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1. 6. 9. (수요일), 14:00 ~ 17:2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재운, 곽연천, 김명선, 김왕직, 김우철,
김충식, 서동철, 유재춘, 윤주, 이승용,
이승호, 최태선, 홍보식(이상 13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공 개)
2	덕수궁 사적 추가지정	(공 개)
3	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공 개)
4	영주 소수서원 보호구역 내 상징조형물 설치	(공 개)
5	경주 이견대 내외 탐방로 정비	(공 개)
6	경주 대릉원 일원 내 경주 대릉원 삼문 설치	(공 개)
7	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회암사 진입로 도로개선	(공 개)
8	북한산성 내외 북한산 재난취약지구 정비	(공 개)
9	부여 정림사지 내 세계유산 탐방길 조성	(공 개)
10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문화공원 조성	(공 개)
11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공원 보수정비	(공 개)
12	김포 문수산성 내 등산객 쉼터 조성	(공 개)
13	합천 해인사 내 담장정비	(공 개)
14	순천 송광사 내 요사채 신축	(공 개)

【검토사항】

15	부산 기장읍성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16	경주 명활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공 개)
17	경주 재매정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 개)
18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19	공주 수촌리 고분군 내 방문자센터 건립 기본계획 검토	(공 개)

【보고사항】

20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 개)
2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1-06-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내 2필지 140㎡를 사적으로 추가지정 하는 사항임
 - 2021년 제4차 회의(2021. 04. 14.) 검토를 거쳐 지정 예고
 - 예 고 일 : 2021. 04. 23.(문화재청 공고 제2021-168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부터 30일 이상
 - 예고의견 : 해당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1,448필지 401,275.4㎡
 - 추가지정 : 2필지 140㎡(풍납동 290-3, 290-6)
 - 추가지정 후 면적 : 1,450필지 401,415.4㎡
-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내 II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
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90-3, 290-6/'21.03.05.)
 - 해당지역은 서울 풍납동 토성의 서성벽 보존지구(사적지정·매입 예정지에 해당)로 추가 사적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0-3	대	122	122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0-6	대	18	18		

2. 덕수궁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덕수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덕수궁 문화재구역에 인접한 4필지 767.1m²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임
 - 2021년 제4차 회의(2021. 04. 14.) 검토를 거쳐 지정 예고
 - 예 고 일 : 2021. 04. 23.(문화재청 공고 제2021-169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부터 30일 이상
 - 예고의견 : 해당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 1963.01.18.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정동)
- (3) 신청내용<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기존지정 면적	추가지정 면적	추가지정 후 면적	비고
6필지 90,270.1m ²	4필지 767.1m ² (정동 1-58 : 17.4m ² 정동 1-77 : 5.7m ² 정동 5-2 : 314m ² 정동 5-5 : 430m ²)	10필지 91,037.2m ²	

(4) 지정 사유

- (정동 1-58, 1-77) 선원전 영역의 궁장 복원 계획에 따라 문화재구역(사적) 추가지정 하고자 함
- (정동 5-2) 돈덕전 재건 시 간섭되는 도로의 일부를 편입하고 돈덕전 재건 및 궁장을 복원하고자 문화재구역(사적) 추가지정 하고자 함

- (정동 5-5) 대한문 원형 터의 효율적인 보존과 역사교육 자료 활용 그리고, 현 대한문 일대재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재구역(사적) 추가 지정 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1.3.25(목)	대상 문화재	덕수궁(德壽宮)	
조 사 자	성 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건축사	○○대학교	교수
	○○○	한국사	○○대학교	교수
	○○○	건축사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	①문화재 종 별	사적		
	②문화재 명 칭	덕수궁(德壽宮)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 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 치 및 근거 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 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 보호구역 >		
보 호 관 리 사 항 검 토	⑦문화재 보 존 영향 행위 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 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2021년 03월 25일 제출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문화재청장 귀하 </div>				

덕수궁(德壽宮) 사적 추가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1.03.25(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덕수궁(德壽宮)의 현 대한문 전면, 원 대한문 유구를 포함한 구역, 선원전 궁장영역, 돈덕전 궁장 영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덕수궁(德壽宮)으로 신청되었으며, 대한문 유구가 매장되어 있는 구역이므로 “덕수궁(德壽宮)”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원래 조선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사저로서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되자 선조가 임시 행궁으로 사용하였음.
- 광해군도 이곳에서 즉위하고 동3년(1611)에는 경운궁으로 개칭하였음.
- 고종대에 와서 황궁이 되었으며, 1907년 다시 덕수궁으로 개칭하였음.
- 덕수궁이란 궁명은 정종이 개성에 건립한 궁이 덕수궁이었고, 태종이 한양에 재천도하여 태조의 궁을 세웠을 때도 역시 덕수궁이었으며 지금 창경원 부근으로 짐작됨.
- 경운궁의 서양식 정전인 석조전이 1910년에 준공되었고, 1938년 준공된 덕수궁 미술관 건물은 국립미술관으로 이용되었음.
- 현 덕수궁은 정문인 대한문이 서쪽으로 33미터 옮겨졌고, 경역도 도시계획으로 축소된 상태임.
- 이 궁의 초기연혁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곳이 많으며, 고종대에 와서 황궁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갔음. 그 후 고종은 이 궁에 계셨고, 순종에게 양위한 후 1907년에 궁명을 덕수궁으로 개칭함. 정전인 중화전과 중화문, 대한문, 즉조당, 준명전, 석어당이 있고 덕홍전과 함녕전 및 그 행각이 있으며, 변형되기는 하였으나 양식건물 정관현 등이 있음. 또 여기에서는 대한제국기 가장 규모가 큰 양식건물인 석조전이 현존하여 기념물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준공된 미술관 건물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선원전 영역

- 1900년 10월 13일 덕수궁 선원전 화재로 소실
- 1901년 7월 11일 당시 미국공사관 북쪽 수어청 자리(구 경기여고 부지)에 복원

- 1920년 덕수궁 선원전 해체, 철거되기 시작하였음
- 1920년~1925년 불교중앙포교소, 불교제중원 및 경성여자문화학원 설치
- 1933년 조선저축은행 사택,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가 설립
- 1945년 경기여고 부지로 사용
- 2003년 6월 주한미국대사관건물신축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수궁 선원전 터가 확인되었음

□ 돈덕전

- 1901년 3월 해관(海關)을 이전하고 궁궐 건물을 신축할 부지를 마련
- 1901년 6월경 돈덕전 공사시작
 - ※ (주한미국공사 알렌) 1902년 5월 당시 대규모 관람시설, 연회시설(돈덕전), 황실도서관 증축 중이라 언급
 - ※ 청경예식 연기 1902년 10월 18일 → 1903년 1월 30일 → 성사되지 못함
- 1902년~1903년 덕수궁 돈덕전 신축(추정)
 - ※ 1902년 10월~1903. 4월 사이 돈덕전 완공 추정
- 1904년~1907년 고종 접견 장소(또는 접견 대기 장소) / 1905년 1월 내각회의장소 / 1905년 9월 외빈 숙소(엘리스 루즈벨트 등) / 1907년 1월 순종과 순정효황후 가례(嘉禮) 연회 장소 / 1907년 6월 수학원 개원식
- 1907년 8월 순종 즉위식
- 1907년~1917년 접견 장소, 신년 연회, 고종 탄신일 행사연 등 개최
- 1919년~ 고종의 서거 이후 관리대상에 제외되면서 퇴락
- 1932년 11월~1933년 10월 덕수궁을 공원으로 개방하는 것을 계기로 돈덕전이 훼손되고 아동유지원지 조성

□ 대한문 및 대한문 월대

- 1899년 대안문(大安門) 현판 입계와 함께 월대 신축
- 1900년 월대에 석수가 설치되고, 삼도 형태로 개축
- 1901년~1909년 삼도 형태의 월대 형태 유지
- 1906년 대안문 부분 수리 후 대한문(大漢門)으로 현판 교체
- 1910년~1912년(추정) 1차 궁장축소 및 월대 변형(삼도→단일경사)
- 1912년 이후 월대 철거 후 경사로로 변형(원수부 건물 훼손)
- 1968년 태평로 확장에 따라 2차 궁장축소(도로 가운데 대한문 위치)
- 1970년 태평로 가운데 위치한 대한문을 축소된 궁장으로 이전(33M 이동)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선원전 영역의 궁장 복원 계획에 따라 문화재구역(사적) 추가지정 하고자 함(정동 1-58, 1-77)
- 돈덕전 재건 시 간섭되는 도로의 일부를 편입하고 돈덕전 재건 및 궁장을 복원하고자 문화재구역(사적) 추가지정 하고자 함(정동 5-2)

- 대한문 원형 터의 효율적인 보존과 역사교육 자료 활용 그리고, 현 대한문 일대재 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재구역(사적) 추가지정 하고자 함(정동 5-5)
- 현재의 용도/기능 및 주변 시설물 현황
 - 정동 1-58 : 선원전 영역 및 경계 담장 위치
 - 정동 1-77 : 선원전 영역 및 경계 담장 위치
 - 정동 5-2 : 현재 도로로 사용 중
 - 정동 5-5 : 현재 도로(인도 및 차도)로 사용 중
- 소유자 : 1-58 및 1-77(국유지 / 문화재청), 5-2(국유지 / 현재 등기부등본 상 건설부이나, 토지 관리청 이관 협의 완료되어 문화재청 이관 등기 진행 중), 5-5(국유지 /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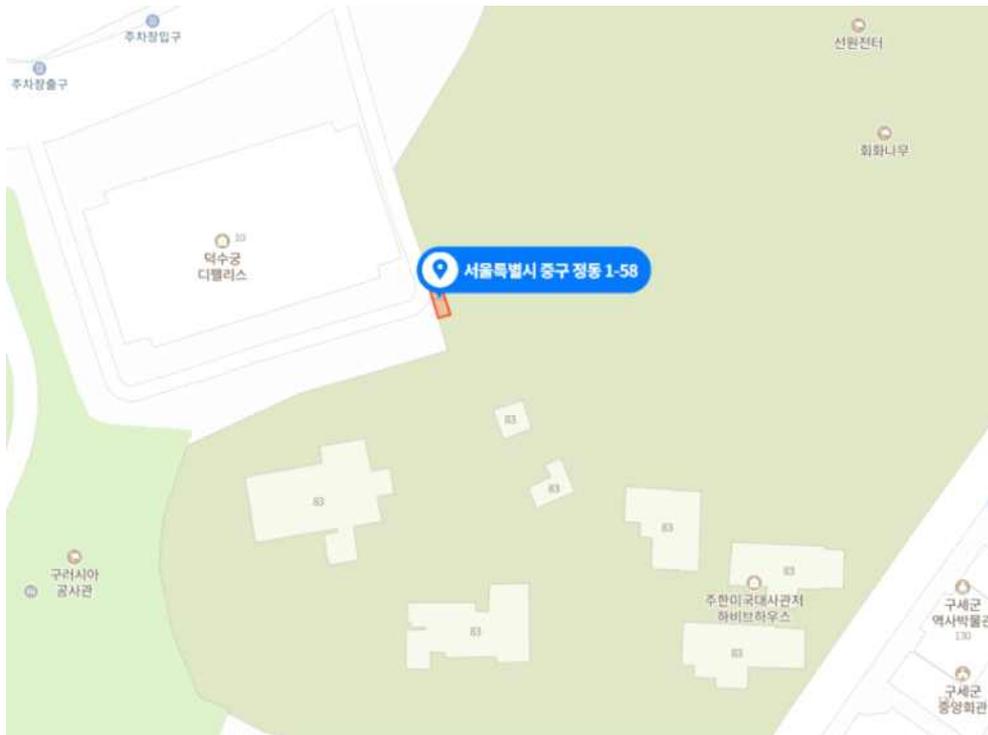
6. 지정 대상 및 범위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면적: 4필지 / 767.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울시 중구 정동	1-58	대	17.4	17.4				
2		1-77	대	5.7	5.7				
3		5-2	도	314	314				
4		5-5	도	4,755.1	430				
계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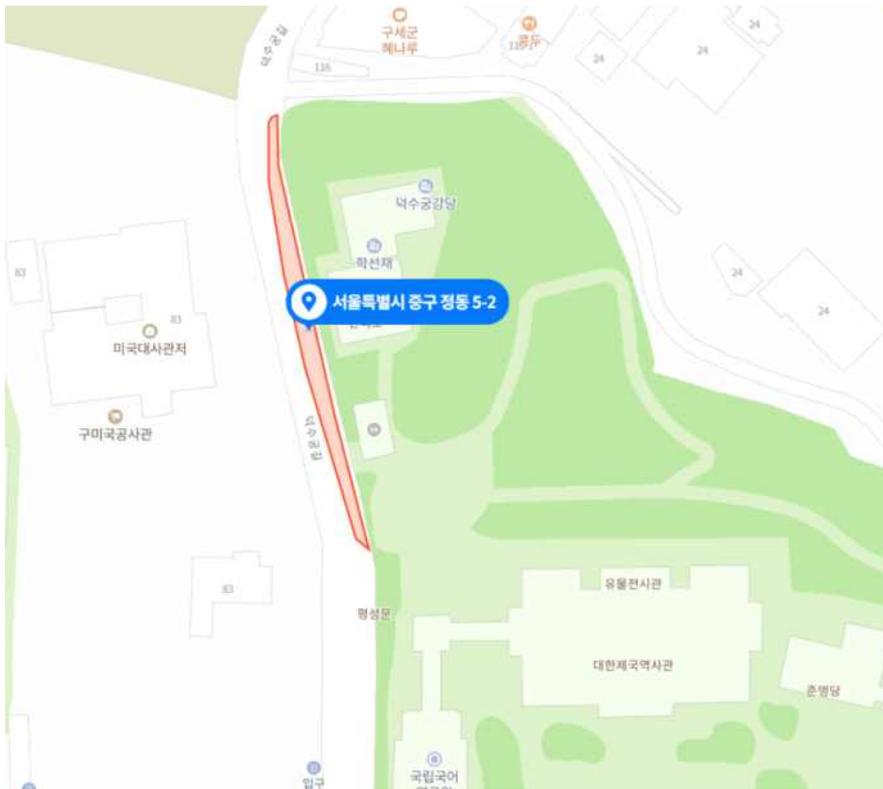
○ 선원전 공장 영역(정동 1-58 : 17.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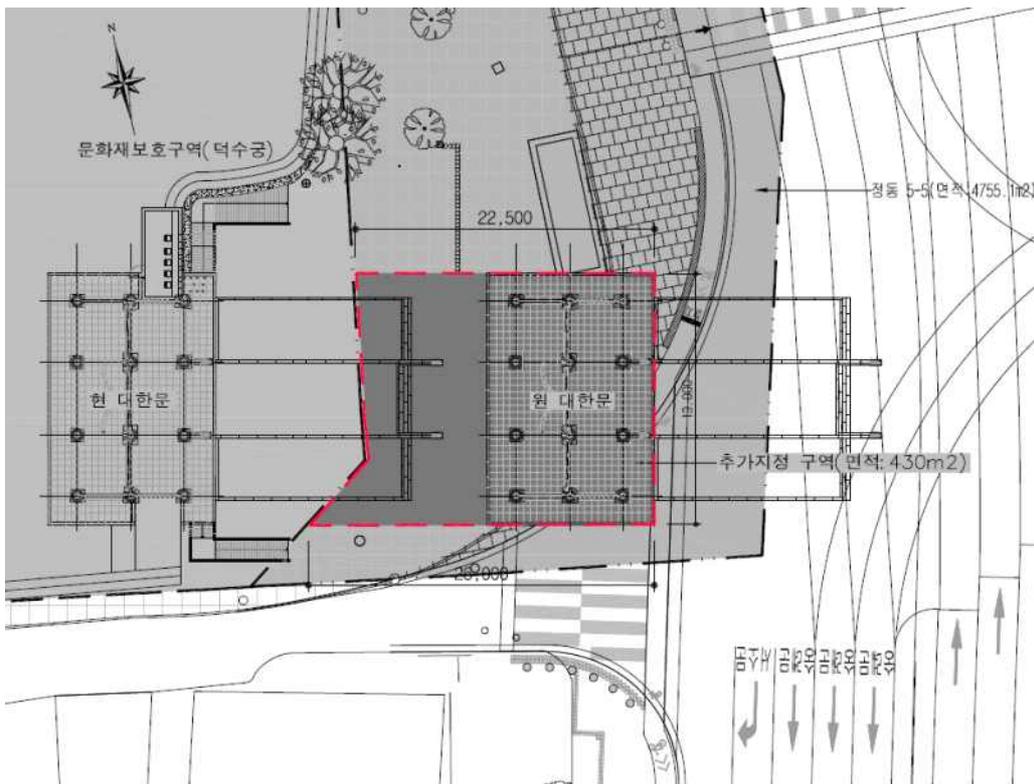
○ 선원전 공장 영역(정동 1-77 : 5.7m²)



○ 돈덕전 공장 영역(정동 5-2 : 314m²)



○ 대한문 원위치 및 월대 재현 영역(정동 5-5 : 4,755.1m² 중 430m²)



□ 문화재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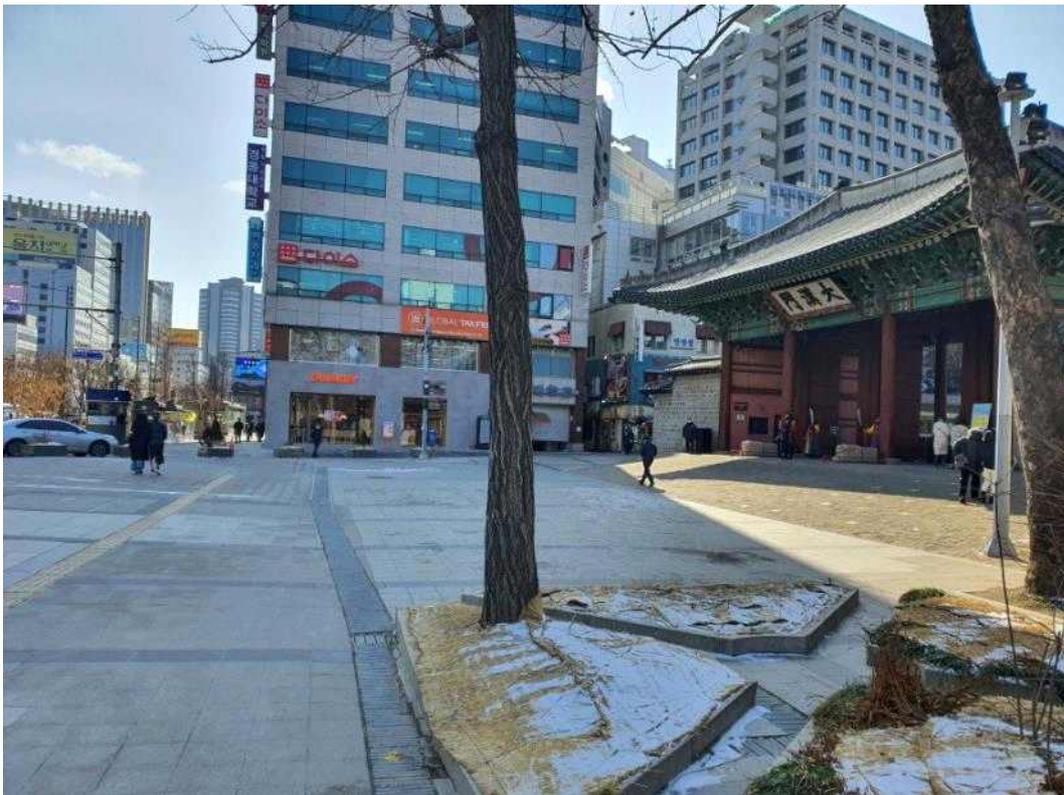
○ 선원전 공장 영역(정동 1-58, 정동 1-77)



○ 돈덕전 공장 영역(정동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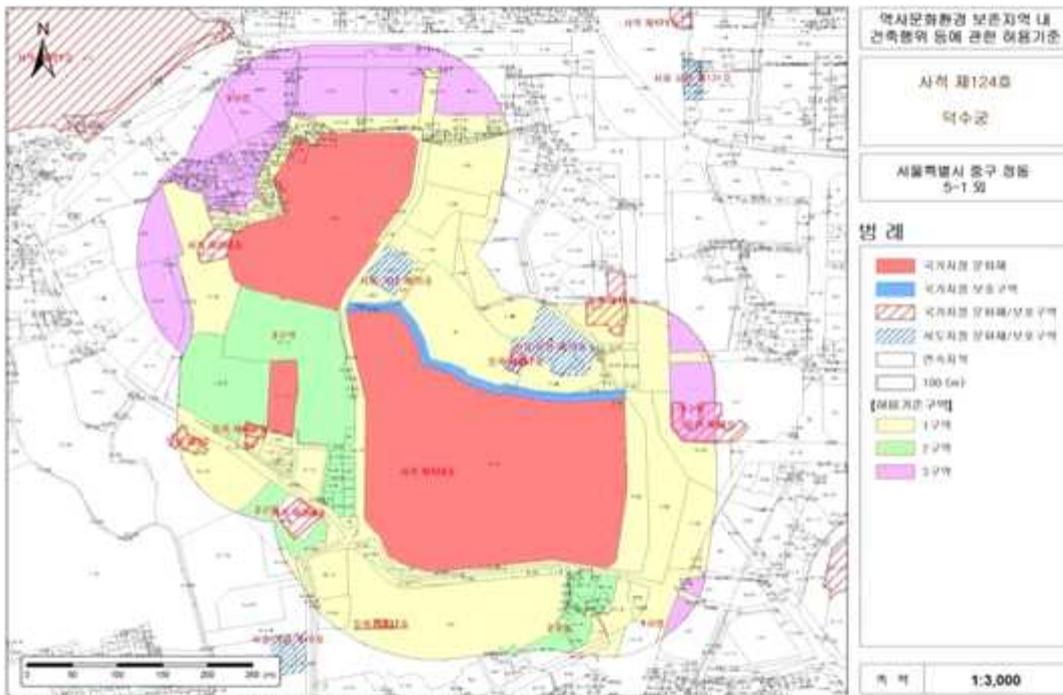
○ 대한문 원위치 및 월대 재현 영역(정동 5-5 중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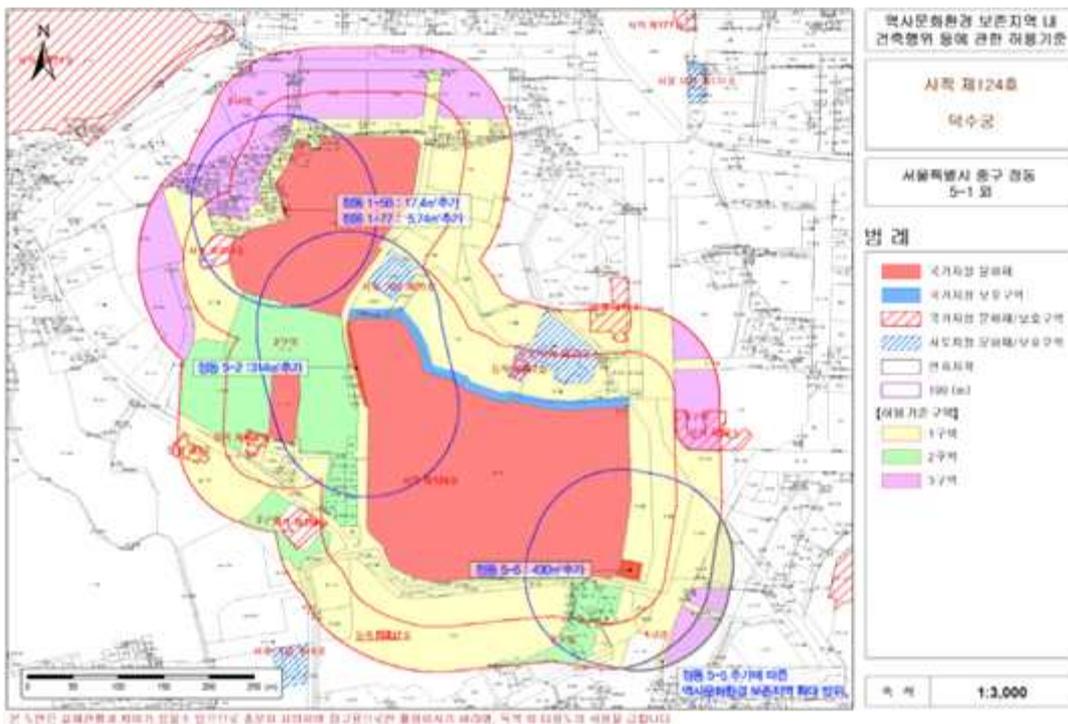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 의견 : 도심화된 곳으로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추가지정 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선원전 영역(정동 1-58, 1-77) : 선원전 영역의 궁장 복원
- 돈덕전 궁장(정동 5-2) : 돈덕전 재건 및 궁장 복원
- 대한문 월대(정동 5-5) : 대한문 원위치 표지 및 월대 재현
 - 대한문 원형 터의 효율적인 보존과 역사교육 자료로의 활용

9. 종합의견

- 본 건은 선원전 영역의 궁장 복원 계획, 돈덕전 재건·궁장 복원 및 대한문 원형 터의 효율적인 보존과 역사교육 자료 활용 그리고, 현 대한문 월대재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재구역(사적)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덕수궁 영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안 남문의 고분군(도기념물 제226호, 2000.8. 지정)을 함안 말이산 고분군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임
- '21년 2차 위원회('21.02.17.) : 함안 남문의 고분군 사적 지정 검토
 - 조건부가결(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으로 추진)
- 사적 추가지정예고
 - 공 고 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 예고기간 : 2021.4.30.~2021.5.29.(문화재청 공고 제2021-187호)
 - 접수의견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76 일원
- (3) 신청내용<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기존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89필지 532,023㎡
 - 추가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27필지 251,596㎡(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추가 지정 후 면적 : 문화재구역 816필지 783,619㎡
- (4) 신청사유
 - 「함안 남문의 고분군」은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어 두 고분군이 함께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기록 등을 고려하여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통합지정이 필요함

라. 참고사항

(1) 연혁

- 함안 말이산 고분군 : 「도항리 고분군」, 「말산리 고분군」의 1963년 사적지정 이후, 2011년 사적 통합 재 지정함
- 함안 남문외 고분군 : 관련 조사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으나, 초기 조사부족으로 2000년에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됨

(2) 추진경과

- 아라가야 유적지(남문외고분군·傳안라왕궁지) 정밀지표조사 학술용역(2013)
- 함안 남문외고분군 11호분 복원정비를 위한 발굴조사 학술용역(2014)
- 함안 남문외고분군 국가사적승격을 위한 6, 7, 15호분 시발굴조사학술용역(2019)
- 함안 남문외고분군 6호, 7호분 주변 발굴조사(2구역) 학술용역(2019)
- 함안 남문외고분군 사적지정요청 자료보고서 작성(2020)
- 함안 남문외고분군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개최(2020.06.)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20. 06. 19.) : 「함안 남문외 고분군」 사적 지정 신청 가결
- 함안 남문외고분군 사적지정신청서 제출(2020.07.)
- 사적지정신청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2020.11.3.) : 함안 남문외 고분군 사적 지정 검토
 - 조건부가결(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으로 추진)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21. 03. 19.)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신청 가결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신청서 제출(2020.03.25.)

(3) 지자체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가 조사의견('20.06.04.)

- (조사자)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 ○○○, ○○○, 전문위원 ○○○
- (조사의견) 함안 남문외 고분군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226호(2000.8.31.)로 지정된 문화재로 국가사적 말이산고분군의 서쪽에 연접하고 있으며, 직경 10~30m 이상의 대형 원형봉토분 23기 등 총 43기의 고분이 확인되었음. 수차례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5세기말 이후 말이산의 묘역이 6세기 이후 남문외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남문외 고분군은 사실상 말이산 고분과 동일성격의 고분군으로 추정되며 아라가야 후기 지배층의 묘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으므로 국가사적

으로 승격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현지조사의견('20.11.03./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1) 문화재위원 ○○○

- 함안 남문외고분군은 말이산고분군 맞은편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고분들이 20여기 이상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땅이 개인 소유로서 봉토가 많이 깎인 상태이다. 봉토분의 입지는 주로 구릉의 정선부와 남동비탈을 따라 분포해 있어 봉분의 어디서든 함안 말이산 고분군이 조망된다.
- 발굴성과에 의하면 대부분은 굴식돌방무덤과 돌널무덤으로 축조되어 있고 11호분은 봉분 규모가 길이 26m, 너비 15m로 아라가야 고분군 중 대형 고분에 해당된다. 목재 구조물을 설치하여 돌방의 입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조사된 사례가 없는 특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돌방내부에서는 신라, 대가야, 아라가야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고 그 조성시기가 6세기 중엽으로써 아라가야 말기 지배세력의 동향과 당시의 국제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 말이산 고분군을 조성했던 세력이 후반기에는 바로 이곳에 능선 따라 고분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아라가야의 총체적인 역사 성과 특성을 말해주는 소중한 유적으로 판단되어 사적으로 지정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다만 남문외 고분군으로 새로이 지정하기 보다는 말이산 고분군의 구역을 확장하여 추가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문화재위원 ○○○

- 함안 남문외 고분군은 사적 제515호 말이산 고분군을 계승하여 축조된 아라국(아라가야) 말기의 왕릉묘역으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구릉 주능선의 정선부를 따라 조영된 입지, '고암반대'로 명명된 봉토축조 방법, 아라가야 후기 형식의 토기들을 비롯한 유물상 등에서 말이산 고분군과 아주 근사한 고분형식과 문화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 최근에 아라국 왕궁 추정유적으로 사적 제554호로 지정된 함안 가야리 유적에 근접해 있으면서, 말이산고분군과 함께 아라국인들이 (추정)왕궁에서 조상들의 무덤을 파노라마처럼 바라 볼 수 있는 경관이 확인되고 있다. 아라국 후기의 왕릉묘역으로서 가야사 뿐만 아니라 한국고대사에 서도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인정된다. 시적 지정을 통한 보호, 정비, 활용이 필요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 다만, 남문외 고분군은 말이산 고분군에 이어 축조되었던 아라국 왕릉묘역

이라는 역사성이 중요하고, 축조방법과 문화내용에서 거의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선후차이가 있을 뿐 동일 고분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조선 전기 함주지(咸州誌, 1587년)에서는 말이산고분군을 동말이산으로, 남문외고분군을 서말이산으로 기록하였으며, 남문외고분군의 명칭은 근래 1998년에 아라가야향토회에 의해 명명되었을 뿐이다.

- 결국 남문외 고분군에 대한 사적지정의 가치가 인정되면서도 남문외 고분군이라는 독립된 명칭 부여보다는 말이산 고분군의 확대구역으로 지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함안 남문의 고분군(咸安 南門外 古墳群)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0.11.03.(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함안 남문의 고분군(咸安 南門外 古墳群)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함안 남문의 고분군(咸安 南門外 古墳群)으로 신청되었으나, 남문의 고분군의 지정학적 위치와 유구, 유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연속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여 “**함안 말이산 고분군(咸安 末伊山 古墳群)**”의 추가적인 문화재구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남문의 고분군은 아라가야 최고지배층의 매장공간으로 주변 평지에 비해 높은 독립구릉(해발 30m)에 위치하며, 남동쪽으로는 신음천과 광정천이 합류하여 함안천으로 흘러 남강으로 유입됨.
- 남문의 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중심세력 영역인 가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가야 고분군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남동쪽으로 말이산 고분군이, 서쪽으로 선왕동 고분군과 필동 고분군 등이, 북쪽으로는 최근 아라가야와 연계된 가야리 유적(사적 제554호)이 인접하여 위치한다. 이들 유적은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내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들이다.
- 특히, 남문의고분군 동쪽으로 0.7~1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아라가야 최고지배자 집단의 중심묘역인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이 위치하며, 가야읍 도항리와 말산리 일대의 길이 2km의 능선 위에 수십기의 대형봉토분이 분포하고 있다.
- 남문의 고분이 위치하는 가야읍 일대는 『함주지』에서도 아라가야의 옛 터로 언급되는 곳이다. 남문의 고분이라는 명칭도 아라가야 왕궁지의 남문 부근에 위치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남문의고분군 보수·정비 이력

- 남문의고분군 11호분 발굴조사 (2014년 10월 ~ 2015년 1월)
- 남문의고분군 11호분 봉분복원 공사 (2016년 12월 ~ 2017년 4월)
- 남문의고분군 6, 7호분 발굴조사 (2019년 3월 ~ 6월)
- 남문의고분군 6, 7호분 주변(2구역) 발굴조사 (2019년 9월 ~ 11월)
- 남문의고분군 6,7호분 및 주변 정비공사 (현재 공사 설계 중)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연혁

- 남문의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자료는 1915년 도쿄제국대학의 쿠로이타 가츠미(黑板勝美)의 조사이다. 쿠로이타는 이미 파괴된 적석총(석곽으로 추정됨) 1기를 발굴하였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고 한다(함안박물관 2013). 이후 1917년에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말이산 고분군과 함께 伽倻里丘群과 新音里丘群(현재의 남문의고분군)을 조사하여 15기의 봉토분을 확인하고 그 분포도와 현황을 기록하였다. 가야리 구군, 신음리 구군이라는 명칭은 원래의 하나의 구릉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마산-진주간 도로개설로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야리 구군과 신음리 구군으로 명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마니시는 보고서에 ‘본인이 다녀가기 전 쿠로이타 가츠미가 1기를 조사하였는데, 51호로 추정되나 정확하지 않다’라고 언급하였다. 남문의 고분군이 대부분 도굴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 일제강점기 이후 남문의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0년 마산대학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봉토분의 수와 고분의 범위가 처음 파악되었다. 이후 1990년대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봉토분 20기가 확인되었다. 1995년에는 창원대학교박물관이 실시한 아라가야 문화권 정밀지표조사에서는 남문의 고분군을 가야리 고분군, 신음리 고분군, 신음리 쾌안고분군 등 남문의 고분군을 세 곳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998년에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는 지표조사를 통해 24기의 봉토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분군이 아라가야 왕궁지의 남쪽에 위치하고, 고분군이 위치하는 남문마을의 지명을 토대로 ‘남문의 고분군’으로 처음 명명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이 남문의 고분군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 기념물 제226호로 지정되었다. 2013년에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의 함안 남문의고분군·傳안라왕궁지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처음으로 고분군 전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측량, 현황파악이 이루어지게 된다. 2014년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남문의 고분군에서 가장 대형분인 11호분의 발굴조사를, 2019년에는 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 6호분과 7호분의 발굴조사와 주변시굴조사, 15호분 내부 현황조사와 주변시굴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남문의고분군 지정범위 외곽을 시굴조사하고 석실과 삼한시대 수혈주거지를 확인하였다. 함안지역은 현재 안야국 단계에 해당하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3세기 집락관련 유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삼한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어 당시 생활상 및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아울러 구상유구에서 출토된 철재, 송풍관편, 슬래그, 벽체편 등은 소편이지만 목관묘 단계의 철생산 관련 자료가 있다.

연도	조사 내용
1915년	구로이타 가즈미(黑板勝美)가 고분 1기(51?) 발굴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
1917년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남문외고분군을 ‘가야리, 신음리고분군’으로 지칭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
1980년	지표조사. 봉토분의 수와 범위를 처음으로 파악 (마산대학박물관, 1984, 『가야문화권유적정밀지표조사보고서-함안군-』)
1990년	지표조사. 봉토분 20기 확인 (창원대학교박물관, 1992, 『함안아라가야의고분군 I』)
1995년	지표조사. 가야리고분군, 신음리고분군, 신음리괘안고분군으로 구분. (창원대학교박물관, 1995, 『아라가야문화권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서』)
1998년	아라가야 왕궁지의 남쪽이라는 점과 고분군에 위치하는 남문마을의 지명을 토대로 ‘남문외고분군’으로 지칭. 24기의 봉토분을 확인. 2000년에 이 명칭으로 경남도기념물로 지정(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1998, 『안라고분군』)
2013년	정밀지표조사에서 총 43기의 봉토분을 확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함안 남문외고분군·傳안라왕궁지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14~2015년	남문외고분군 11호분 정밀발굴조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함안 남문외고분군 11호분』)
2019년 4월	남문외고분군 6·7호분 시·발굴조사 (삼강문화재연구원, 2019.04, 「함안 남문외고분군 사적승격을 위한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 특징

1) 고문헌에 기록된 아라가야 최고지배층 중심고분의 실체 확인

함안은 아라가야의 故址로 남문외고분이 위치하는 가야읍 일대의 저구릉성산지 곳곳에는 크고 작은 고분군이 분포한다. 이중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은 중·대형 봉토분이 주를 이루는 아라가야 지배층의 중심묘역임은 자명하며, 옛기록에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선조 20년(1587) 鄭逵가 편찬한 『咸州誌』와 1861~1866년 사이에 金正浩가 편찬한 『大東地志』에는 말이산과 남문외고분에 대한 기록이 있다.

牛谷의 동·서쪽 언덕에 옛 무덤이 있는데, 높고 크기가 구릉과 같은 것이 40여 기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옛 나라의 왕릉이라고 한다(“牛谷東西丘有古塚, 高大如 丘陵者四十餘. 諺傳古國王陵云” 『咸州誌』 古跡條).

牛谷의 동·서쪽 경계에 옛 무덤이 있는데, 높이가 5丈인 것이 40여기이다. 세상에 전해지길 加耶때 국왕을 장사지냈다고 한다(“牛谷東西境上有古塚, 高五丈者四十餘所. 世傳加耶時國君之葬” 『大東地志』 卷10, 咸安 城地條).

둘 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즉, 牛谷 동서쪽에 40여기의 고분이 있으며, 이 고분들은 옛 왕릉이라는 것이다. 늦어도 16세기 후반에도 이 고분들이 왕릉이라는 사실이 구전되어 오고 있었고, 함안지역 사람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문외 고분군과 말이산 고분군 사이에는 우곡리가 있었으며,

여기서 牛谷西丘가 남문외고분군으로 판단된다. 남문외고분군이 말리산고분군에 비해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말리산고분군과 같은 아라가야 지배층의 묘역이라는 중요한 역사적의미를 가지고 있다. 鄭球와 金正浩도 두 곳 모두를 같은 왕릉으로 인식하여 기술하였고, 일제강점기 이마니시 류도 지형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하였지만 편의에 따른 것이고, 결국은 그도 말리산고분과 남문외고분을 하나의 유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연번을 주었던 것 같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1940년 7월에 말리산고분군을 고적으로 지정하면서 행정구역에 따라 도항리고분군과 말산리고분군으로 분리하여 지정하였는데, 1963년 기존이 고적을 사적으로 지정할 때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각각 지정되었다. 이후 꾸준한 학술적 논의와 두 고분군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2011년 7월에 이르러서야 두 사적을 통합하여 ‘함안 말리산고분군’으로 재지정(사적515호)하기 이른다.

남문외고분군은 실제로는 우곡 동구와 서구의 가야시대 왕릉으로 인식되어왔고, 서말리산으로 불려온 하나의 유적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고적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점차 학술적·역사적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2000년에 이르러서야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아라가야의 중심고분군으로서의 위상을 확인

남문외고분군은 동쪽에는 말리산고분군, 북쪽에는 왕궁지인 가야리유적이 인접하여 위치한다. 북쪽의 가야리 맞은편 구릉에서부터 남쪽의 쾌안마을 북동쪽 구릉까지 해발 30m 내외의 저산성 구릉 정선부를 중심으로 축조되어 있다. 말리산고분군과 함께 남문외고분군은 아라가야 지배계층의 묘역으로 잘 알려져 왔는데, 묘역의 규모나 범위의 측면에서 가야 諸國에 비해 월등하며, 이것은 아라가야의 정치체가 존속기간이고 연속적, 장구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남문외고분군의 유구분포는 북쪽의 가야리 맞은편 구릉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이어진다. 해발 30m 내외의 낮은 구릉이지만 주변 또한 저지대여서 고층의 웅장함이 돋보이는 입지이다. 봉분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봉토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직경 10~30m이상의 대형분이 23기, 직경 5~10m이하의 중소형분이 9기, 5m이하의 소형분이 11기로 43기의 봉토분이 확인되었다.

3) 아라가야 최고지배층 묘역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

긴 주능선과 지맥의 정선부를 따라 대형분이 배치되고 그 주변 및 사면을 따라 중소형분이 배치, 그 아래에 또 다른 소형분이 축조된다.

이성주는 이를 구역 이동 성장 패턴으로 명명하였다. 20~40년마다 추가되는 중심고분군 내 최고지배자를 위해 최대형분은 지형적 선점이라는 방식으로 배치되었다. 능선의 정선부도 정부와 안부가 있는데, 최대형분은 정부에 입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20~40년에 한번씩 추가될 때 하나의 정부에 입지하며 정부에 최대형분이 들어서고 나면 중소형분들이 그 주변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말리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에서도 확인된다. 긴주능선과 지맥의 정선부를 따라 대형분이 배치되고

그 주변 및 사면을 따라 중소형분이 배치, 그 아래에 또 다른 소형분이 축조되었다. 그리고 구역이동성장패턴으로 보면 남문외고분군은 말이산고분군 축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주능선 정선부를 따라 횡혈식석실분을 묘제로하는 수장급 무덤이 축조되고 있어 구역이동성장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문외고분군과 말이산고분군을 조영한 집단들은 최고지배층 고분의 조영 위치와 배열 방식 등에 있어 공통의 관념과 표현 방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 수혈식 석곽묘

아라가야의 묘제는 영남지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목곽묘-수혈식석곽묘-횡혈식석실분으로 변화한다. 남문외고분군의 북쪽 구릉에 입지하는 2호분 주변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되었고, 6·7호분 주변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도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고층인 6, 7, 11, 15호분은 발굴조사와 석실 내 현황조사를 진행해 모두 횡혈식석실분임을 확인하였다. 수혈식석곽묘는 5세기중엽에 출현하여 가야가 멸망하는 6세기 중엽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된다. 남문외고분군에서는 구릉의 정선부를 따라 대형 봉토분이 조성되고 그 주변에 수혈식석곽이 배치되어 있다. 조사된 수혈식석곽묘를 기준으로 해보면 5m 이상의 중형분, 5m 이하의 소형분으로 구분가능하다. 남문외고분군의 중형 석곽묘는 길이 5.7m에 달하고, 너비는 2m 이하로 좁은 세장한 형태이다. 내부에는 가운데를 피장자의 공간, 가장 자리를 부장공간으로 구분하였다. 개석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수혈식석곽묘는 주로 남문외 고분군에 주로 분포하는 암질인 함안층의 퇴적암을 이용하였으며, 길이 70cm 내외의 판상의 할석을 사용하였다. 주로 벽석쌓기는 긴모눈혀쌓기 기법을 이용하였고, 벽석의 모서리는 말각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벽석은 양단벽에 규모가 큰 판석을 각 1매씩 세우고 양장벽을 축조하거나 양장벽의 최하단석만 판석을 길게 세웠으며, 그 위로 3~4단 정도는 할석을 긴모눈혀쌓기 하였다. 그 외 소형석곽묘는 벽석 모서리 부분의 모를 둥글게 처리한 특징을 보인다.

(2) 횡혈식 석실묘

아라가야의 횡혈식석실묘는 6세기 初期에 외래의 영향으로 출현하여 6세기 전반기에 유행한다. 아라가야 묘제의 발굴성과는 대부분 석곽묘에 치중되어 횡혈식석실묘의 조사에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 확인된 아라가야의 횡혈식석실분은 남문외 6호분, 7호분, 11호분, 15호분 및 말이산 <문>4호분, 5호분, 8호분, 47호분이다. 이로 보면 남문외고분은 북쪽과 남쪽구릉 모두 석실분이 조성된 점에서 전반적으로 말이산보다는 늦은 시기로 파악된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양수식이며, 자갈을 깔아 관대를 갖춘 형태로, 이 같은 석실의 형태는 백제에 그 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남문외 6호분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모를 죽이는 형태는 고구려의 영향도 보인다. 그 중에서도 6호분의 현실의 규모는 영남지역 횡구식·횡혈식석실묘 중에서도 최대 규모이다. 6호분의 석실의 규모는 길이 7.4m·너비

2.8m로 지금까지 조사된 삼국시대 황혈식석실묘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4) 아라가야의 토목기술의 보고

고총의 봉분은 매장시설의 일부분이자 당시의 다양한 토목기술이 구현된 토목 구조물이다. 고총의 봉분 구성에 적용된 토목기술로는 고암반대 축조공법, 기초부 샌드 매트공법, 벽석 고정 및 보강을 위한 깎지공법, 성토부 상·하구획석열을 이용한 독특한 축조공법, 성토부 중위에서 물성이 다른 적갈색점토층을 깔아 성토다짐한 토목기법 확인, 수비질된 적갈색점토로 밀봉한 공법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토목기술은 현대 토목공법의 원상과 계통을 구명할 중요한 자료들이다.

(1) 말이산고분과 남문외고분군의 ‘고암반대’ 축조공법 공유

남문외고분군의 고총고분 중 주능선 정선부에 조성된 고총은 18기이다. 현재 그 중에서 4기의 고총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6호분과 7호분은 고암반대 축조공법이 확인되었다. 최근 ‘고암반대’ 축조공법은 남문외고분군 보다 앞선 시기의 말이산고분군 13호분과 45호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묘제변천과정에서도 아라가야의 독특한 ‘고암반대’ 삭토기법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남문외고분군 6호분은 암반대 위에 조성한 지상식 구조이며, 7호분은 암반대를 굴착해 조성한 반지하식 구조이다. 이러한 독특한 무덤축조방식의 공유는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 축조집단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6호분 고암반대 축조 전경(좌:북쪽부분, 右:남쪽부분)

(2) 현대의 샌드매트(sand mat)공법과 같은 지반강화 공법 확인

고총과 같이 거대한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基礎라 함은 상부구조물에서 오는 하중을 하부지반에 전달하는 부분을 말한다. 기초시공에는 지면정리와 지면강화가 있다. 지면정리 과정에서는 잡초나 잡목을 제거하는 벌근·벌목작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벌채와 벌근작업의 목적은 흙쌓기 중에 혼입된 초목, 나무뿌리가 점차 부식하여 부등침하, 처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분 조성에서도 구지표면은 공기의 접촉이나 각종 낙엽과 잡초가 썩거나 雨水 등에 의해 오염되어 지반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적에서 실제로 벌

근과 벌목의 흔적을 확인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이 공정은 당연히 상정 할 수는 있지만 주로 지형조건과 입지를 통해 예측하는 정도이다. 남문외고분군 6호분은 주능선의 정부에 암반대를 삭토한 지반에 고층을 조성하였다. 암반대라는 지형조건으로 인해 벌근과 벌채만으로도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데, 지면강화에는 별도의 토목기법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지면강화는 지형조건상 땅다지기나 다짐말뚝박기 등 지반의 다짐효과를 향상 시키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나 남문외고분군은 암반대를 삭토해 그 위를 두께 10cm 정도 암반편을 깔고 회갈색사질토를 덮어 지면강화하는 토목기법을 채용하였다. 지반이 단단한 암반대라는 점을 착안해 양질의 모래를 두께 15~20cm 정도를 깔아 지반을 개량하였다. 이러한 공법은 성토시 집중하중이 샌드매트의 인장력 때문에 균등 분산되어 침하량이 적어질 뿐 아니라 균등침하가 되므로 지반의 압밀을 촉진하고 지지력을 증대시켜 토목구조물의 안정도가 높아진다. 남문외고분군에서는 기초부 지면강화의 목적으로 암반편을 깔고 그 위에 회갈색사질토를 덮어 정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지층 가장자리에는 외호석을 돌려 기초부가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止土施設을 마련하였다.



남문외고분군 6호분 성토부 토층 세부

(3) 벽석 고정 및 보강을 위한 깎지기법 확인

남문외 고분군은 암반대 위에 무덤을 지상화하면서 벽석의 내경축조기법을 보완하고 봉토를 쌓기 위해 고안된 토목기술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원지형의 레벨이 높은 북쪽은 경사가 급한 남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함이 떨어진다. 그러나 석실이 지상화되는 과정에서 벽석의 기울기가 내경하게 되었다. 내경하는 벽석의 기울기를 잡아주는 기능을 고안한 것이 적갈색점토를 이용한 깎지공법과 성토부 상

단에서 확인되는 상·하구획석열이다. 깎지공법은 적당한 용어가 없어 造語한 말이다. 석실이 지상화되면서 성토부 조성과 벽석쌓기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6호분 북장벽 벽석 축조시 장벽의 중위 지점에서부터 벽석과 적갈색점토를 깎지 하듯이 벽석을 강하하고 성토하는 과정이 2차례 반복되어 확인되었다. 벽석과 성토층 사이에 물성이 다른 적갈색점토를 보강해 성토재의 마찰을 죽임과 동시에 붕분을 견고하게 쌓는 기법이다. 이 과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벽석 상위에 상·하구획석열이 확인된다. 성토공정으로 보면 2차 공정에 해당된다.



남문외고분군 6호분 남북 중심토층 내 깎지토층 세부

(4) 성토부 상·하구획석열을 이용한 독특한 축조공법 확인

6호분은 현실과 양수식 연도와 묘도, 호석 등을 갖춘 지상식구조이다. 현실은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740cm·너비 280cm·깊이 160cm이다. 벽석은 內傾築造技法으로 쌓았고, 성토부에서 구획석열이 확인되었다. 특히 하단석열은 벽석과 연결되어 제1~12열까지 드러났다. 이 석열은 현실 내측으로 들여쌓기 한 벽석을 무너지지 않도록, 석실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길게 연결해 張力이 작용하도록 고안한 축조공법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견고하게 성토하기 위해 구획석열 좌우로 토성이 다른 흙을 채웠다.

7호분은 현실과 양수식 연도, 호석 등을 갖춘 반지하식구조이다. 현실은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510cm·너비 180cm·깊이 170cm이다. 석실의 벽석은 內傾築造技法으로 쌓았으며, 성토부는 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황갈색토를 이용해 쌓았는데, 회갈색점토를 뒤채움토로 사용해 벽석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남문외고분군에서 보이는 상·하구획석열 축조공법은 암반대 위에 무덤을 지상화

하면서 벽석의 내경축조기법을 보완하고 봉토를 쌓기 위해 고안된 토목기술이다. 일반적으로 구획성토공법은 성토 시작지점에서부터 방사상으로 구획하여 성토하는 토목공법인데, 남문외고분군에서는 성토부 상위에서 확인되는 점이 다른 점이다. 이러한 토목기술은 남문외고분군 6호분에서 처음 확인되는 기법으로 고총고분의 묘제 변화로 인한 매장주체부 축조시 견고하게 봉토를 성토다짐하고자 고안된 아라가야 독특한 토목기법이다.



6호분 상·하구획석열 공중사진

(5) 성토부 중위에서 적갈색점토층을 깔아 성토다짐한 토목기법 확인

성토다짐 강화공법은 봉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좌우 또는 상하 성토재의 마찰을 줄임과 동시에 봉분을 견고하게 쌓기 위한 동일 물성의 성토재 중간 또는 경계부위에 넣은 점토띠 또는 점토층을 말한다.

남문외고분군 6호분에서는 성토1공정과 2공정 사이에 적갈색점토층이 두께 20cm 정도로 확인되었다. 성토1공정에서 작은 할석이 다량 혼입된 황갈색토 위에 물성이 다른 적갈색점토를 넓게 펼쳐 상하 성토재의 마찰을 줄임과 동시에 성토다짐을 강화하는 기능을 강구하였다. 적갈색점토층 바로 위에 다시 작은 할석이 혼입된 황갈색토를 쌓아 성토2공정을 마무리하였다.

(6) 수비질된 점토를 이용한 밀봉공정 확인

남문외고분군에서 확인된 밀봉토는 물성이 다른 적갈색점토와 회갈색점토를 이용하였다. 개석은 훼손되어 확인되지 않으나 최상단석 주변으로 원주상의 적갈색점

토와 회갈색점토 범위가 확인되었다. 적갈색점토는 토층에서도 확인되는데, 석실의 최상단석이 남아있는 남서쪽 모서리부근에 잘 남아있다. 고운 점토를 깔아 마무리 하였는데, 암반편이나 알갱이가 보이지 않아 점토 일부를 물에 풀어 확인해 본 결과 정선된 점토가 밀도에 따라 침전되었다. 개석을 덮고 그 위를 적갈색점토로 밀봉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단구획석열 가장자리까지 넓게 덮어 밀봉하였다. 매장주체부가 지상화되어 雨水의 침투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최상단석 위에 놓인 개석 주변을 넓게 적갈색점토로 밀봉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남문외고분군의 주요 출토유물과 의미

남문외고분군에서 조사된 고총과 그 주변유구는 모두 그 출토된 토기유물로 보아 6세기 전반대에 축조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총의 주변유구들은 적어도 고총과 동시기이거나 그 이후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물에 있어서도 공통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형기대의 대형화와 통형기대의 변신이 매우 특이하다. 6세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치열해진 각국의 영토전쟁 가운데서 토기유물은 대부분 器高가 작아지고 왜소화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와중에 諸加耶 중에서 아라가야만이 유독 이전의 발형기대의 크기와 위용을 유지하며, 통형기대는 수부 아래쪽에 항아리가 추가되는 변신을 해가면서 그 아름다움과 크기를 지켜내는 저력을 엿볼 수 있다.



남문외고분군 출토 통형기대 각 종(1:2구역 3호, 2:2구역 8호, 3:11호분)



남문외고분군 출토 발형기대 각 종(1:6호분, 2:2구역 8호, 3~5:11호분)
 둘째, 남문외 고분군에서도 말이산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아라가야 양식 토기의 기
 종 조합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래계토기의 반입비율(점유율)이 점
 점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긴박했던 국제관계 속에서도 대립과 타

협 및 다방면의 교류가 왕성히 이루어졌음을 證據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아라가야 양식토기가 존재하였으며, 하술하는 갑옷과 마구 그리고 금제이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독립적이면서 창의적이며 독특한 아라가야만의 장인정신과 문화를 꽃피웠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6세기 전반대에 속하는 고총을 말이산 고분군과 남문의 고분군으로 나누어 그 상대서열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의고분군 출토 유물 상대서열 집성표

말이산고분군	남문의고분군 (가야리 · 신음리고분군)	연대	남문의 6호 · 7호분 주변 석곽
HM 26호분 · HM 25호분 암각화 고분(35호분)	남문의 6호 · 동 7호분	6세기 1/4분기	2호, 9호, 8호, 6호, 12호, 7호
	남문의 11호분	6세기 1/4분기 ~ 2/4분기	
도항리(문) 4호, 동 5호, 동 8호, 동 47호	남문의 15호분	6세기 2/4분기	3호, 4호, 5호, 10호

다음으로 눈에 띄는 중요유물로 갑옷(찰갑)을 들 수 있다. 남문의 6·7·11·15호분은 이미 도굴로 인해 대부분의 유물이 없어진 상태라 그 全貌를 알 수 없으나, 다만 남겨진 잔편들 중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유물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남문의 11호분에서 출토된 小札들에서 札甲의 부장을 들 수 있다. 찰갑은 縱長板冑(蒙古鉢形冑)와 함께 重武裝騎兵의 채용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武裝具이다. 이러한 찰갑은 대형목곽분인 도항리 43호분(文), 동 48호분(文)에서 시작해서 말이산고분군의 현8호분, 암각화고분에서도 출토되었으며, 4호분(구34호분)에서도 소찰의 출토에서 갑옷의 부장을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형봉토분의 경우 도굴로 인해 실제로 전모를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부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삼각판혁철 板甲은 도항리 13호분(慶)에서 출토된 바 있다. 투구는 주로 縱長板冑가 출토되는데, 마갑총을 비롯해서 말이산고분군의 6호분, 현8호분, 현22호분, 도항리 36호분(文), 동 39호분(文), 43호분(文), 54호분(文) 등 대형목곽분과 수혈식석곽을 매장주체로 하는 고총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말에게 着裝시키는 馬裝具 중 철제 馬甲과 馬冑는 마갑총을 위시해서 말이산 고분군의 6호분, 현8호분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4호분(구34호분)에서도 마갑편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발굴에서도 갑옷 혹은 마갑과 관련한 출토예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다면, 그 수량은 諸가야 중에서 단연 으뜸이다.

이와 같이 말이산 고분군의 수혈식석곽을 매장주체로 하는 고총인 암각화고분에 이어 외래계 묘제인 횡혈식석실분인 남문의 11호분에서도 札甲이 출토함은 이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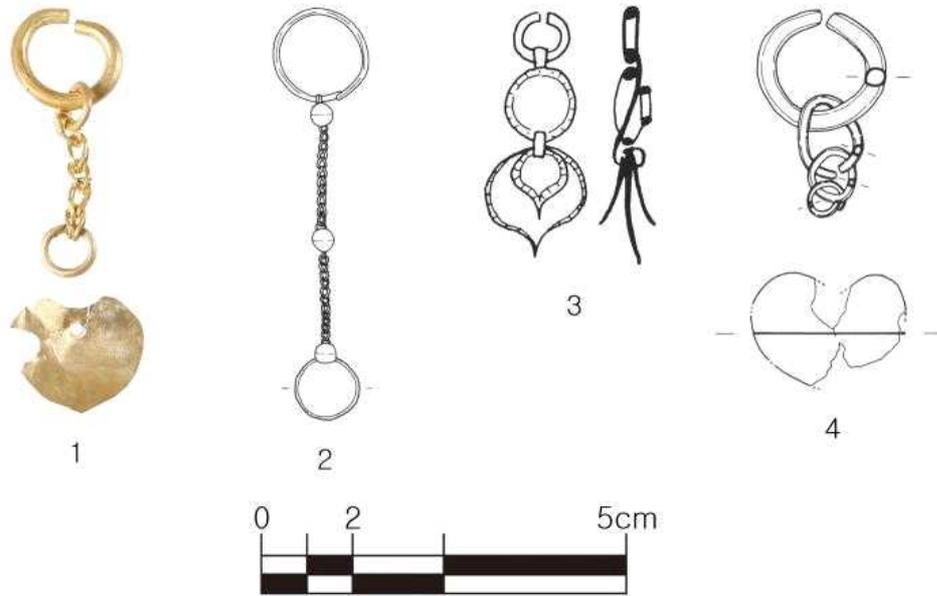
이 최고지배자계층의 위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당시 아라가야가 여전히 매우 무장적 성격이 강한 정치체였음을 방증한다고 판단된다. 즉 6세기 전반대 당시 상황은 주변국인 신라, 백제, 왜 그리고 諸加耶와의 치열한 전투관계 속에 있었으며, 이 속에서 아라가야는 그들과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상당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확보한 강대국이었던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남문외고분군 11호분 출토 찰갑 각 종

마지막으로 타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독특한 금제이식을 들 수 있다. 남문외 6-2호 소형석곽에서 금제 이식이 출토되었다. 세환에 제법 큰 遊環에 사슬형금구를 끼워 넣고 맨 아래에는 유환처럼 굽고 큰 고리에 조각으로 출토된 심엽형수하식을 매달았던 것 같다. 이와 같이 수하식을 매달기 위한 고리를 이처럼 크게 만드는 경우는 삼국시대 귀걸이 가운데는 없는 점에서 아라가야만의 독특한 耳飾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슷한 시기의 도항리 31호묘에서 출토된 이식은 수하식을 매다는 고리가 확인되지 않아 단언할 수 없지만 수하식이 비슷한 크기의 심엽형인 점과 세환에 제법 큰 遊環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단 연결금구가 사슬형인 것과 고리를 연결한 것의 차이는 있다.



아라가야 출토 금제이식 각 종

1:남문의6-2호, 2:도11호(경고연), 3:4-가호묘(창문연), 4:도31호(경고연)

도항리 4-가호묘에서도 금제 이식이 출토된 바가 있다. 대형 횡혈식석실분인 4호분의 배장묘로 4호분의 봉토내에서 확인되었다. 이 이식의 중간식은 중공 편구형의 장식을 세로로 부착한 것인데, 이 역시 본 예가 유일한 것으로 아라가야이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항리 11호묘에서도 세환이식이 출토되었다. 이 경우는 공구체와 사슬을 이어 만든 장쇄식 이식인데 맨 아래 공구체에 홈을 내어 원형의 수하식을 끼워 넣은 방식인데 이 또한 출토예가 없다. 따라서 아라가야만의 독특한 이식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李漢祥 2003)된다. 이상과 같이 피장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위세품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금제이식의 출토유구가 4례 모두 소형 석곽묘인 점과 그 형식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 즉 신라나 백제, 대가야나 왜 등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매우 아라가야만의 독특한 이식문화를 보여주는 점에서 아라가야는 매우 독창적이며 독립성이 강한 강력한 문화의식을 가졌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역사적 배경

- 남문의고분군은 1587년 한강 정구선생이 편찬한 『함주지(咸州誌)』(1587) 고적조에 처음 그 존재가 확인되는 고분군으로 현재의 말이산고분군(동말이산)의 서쪽에 위치하여 '서말이산'고분군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말이산'은 '(우두)머리산'의 이두식으로 표현으로 예로부터 남문의 고분군이 현재의 말이산 고분군에 버금가는 아라가야의 왕릉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일제강점기 부족한 조사와 보호 조치의 미비로 남문의 고분군은 열악한 보존환경에 처하게 되었음
- 이에 함안군과 지역 향토사연구회, 학계전문가들은 유적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도 기념물 지정을 추진하였고, 남문의 고분군은 2000년 8월 31일 경상남도 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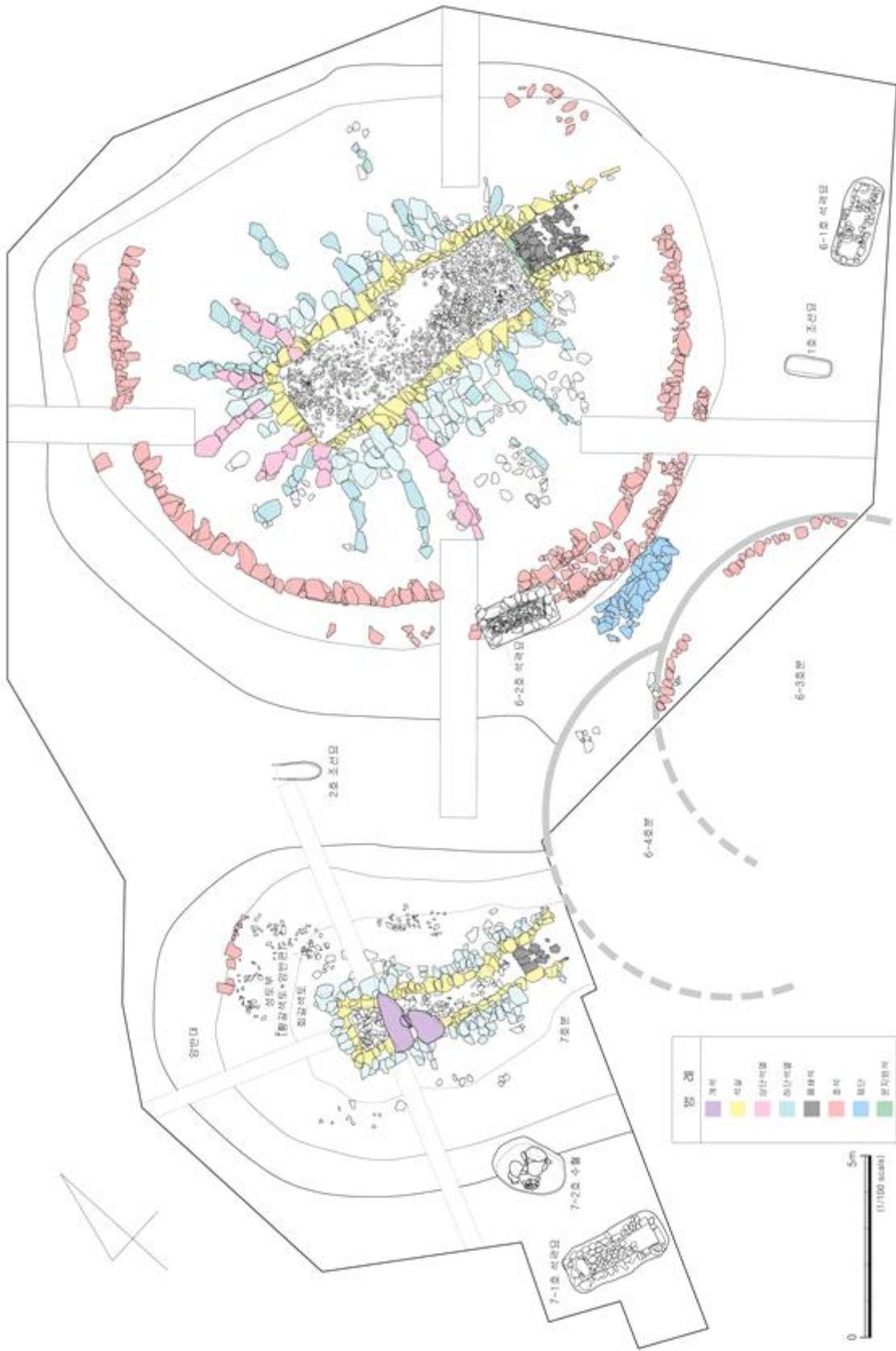
제226호에 지정됨. 지정 이후 유적의 분포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직경 10~30m 이상의 대형분 23기를 비롯한 43기의 봉토분을 확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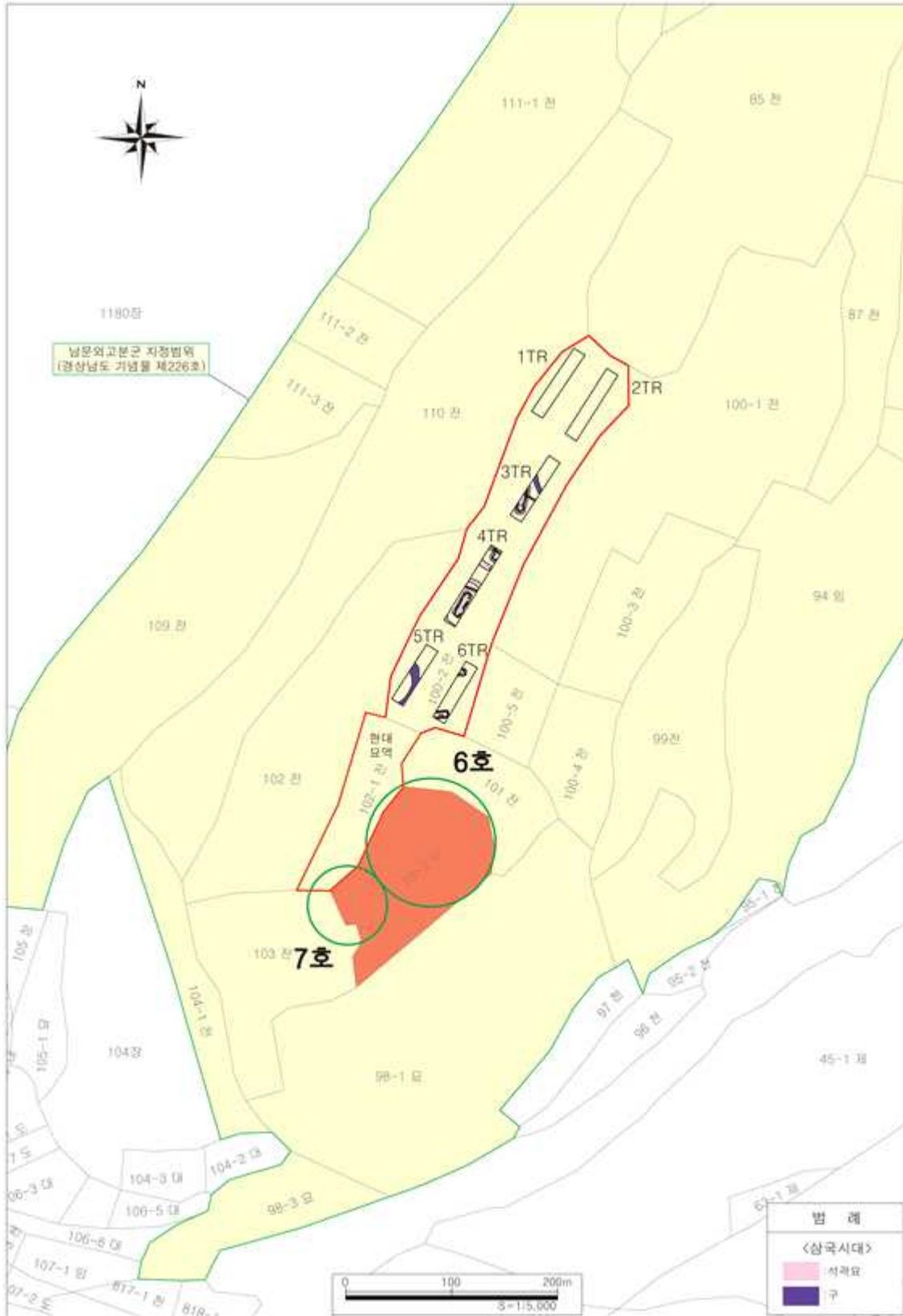
○ 역사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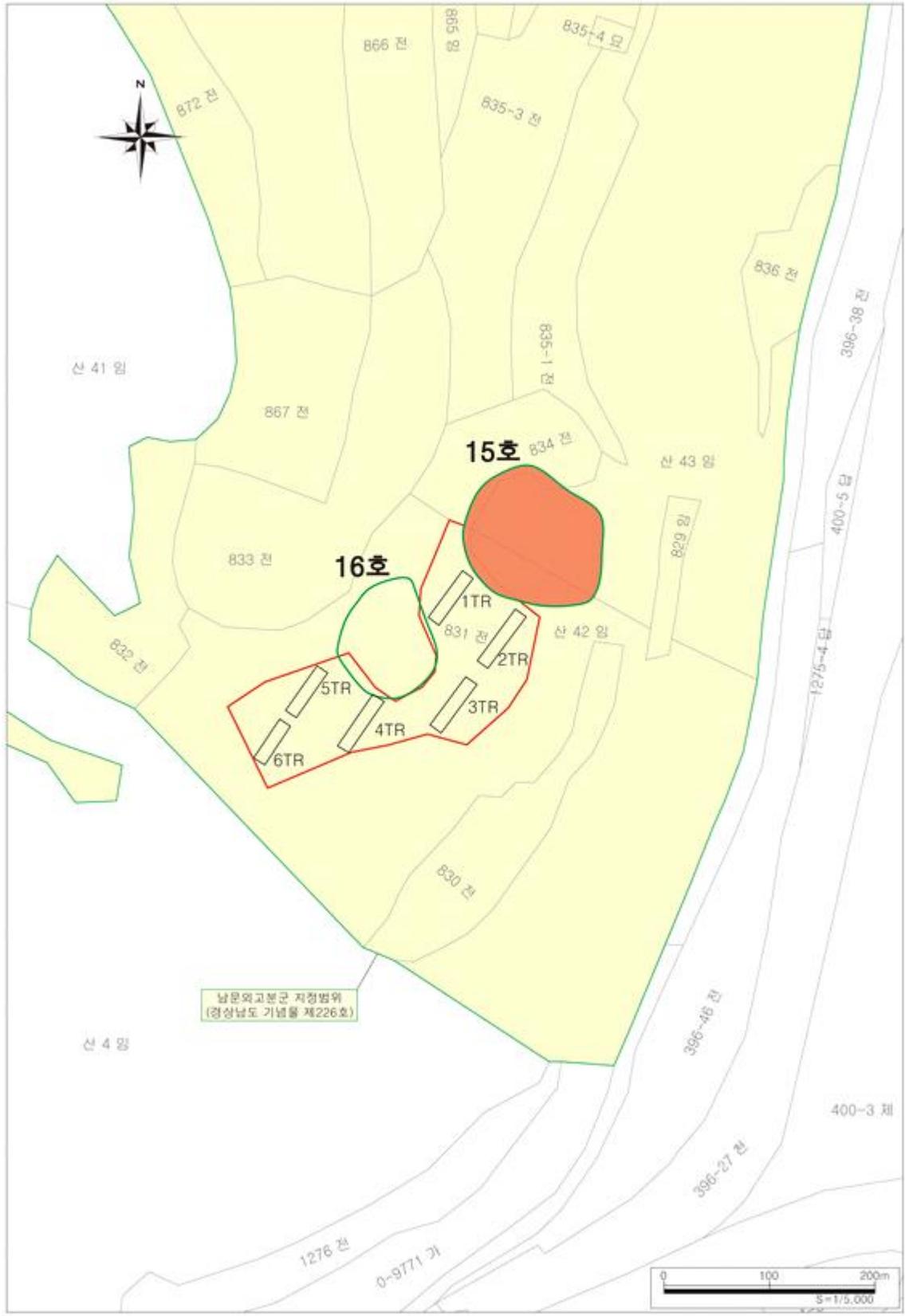
- 2015년 남문외 고분군 11호분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남문외고분군의 정확한 역사성 규명과 사적승격을 위해 6호분과 7호분, 15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6세기경 축조된 굴식돌방무덤 4기와 구덩식돌덧널무덤 14기가 확인되었음. 특히 남문외 11호분과 남문외 6호분은 그 규모에 있어 다른 가야 문화권의 굴식돌방무덤을 압도하는 초대형의 고분으로 6세기 가야의 맹주국가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한 아라가야의 국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이들 고분군은 말미산 고분군의 왕묘급 무덤에서 확인되는 ‘고암반대’를 활용한 축조수법과 분할축조기법 등 아라가야의 독창적 토목기술이 확인되어 두 고분군이 동일 축조집단에 의해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함께 4호분, 13호분 등 5세기 말까지 말미산 주능선에서 조영되던 아라가야의 왕묘급 고분들이 6세기 이후 남문외 고분군에 축조되었다는 점은 6세기를 기점으로 아라가야 왕 묘역이 동말미산(현재 말미산고분군)에서 서말미산(현재 남문외고분군)으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남문외고분군의 성격은 아라가야 후기 왕릉으로 판단됨

○ 사적지정의 필요성

- 남문외 고분군은 아라가야 후기의 왕묘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높고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인 ‘함안 가야리유적(사적 제554호)’에서 ‘함안 말미산고분군(사적 제515호)’으로 이어지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중요한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남문외고분군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아라가야 고도의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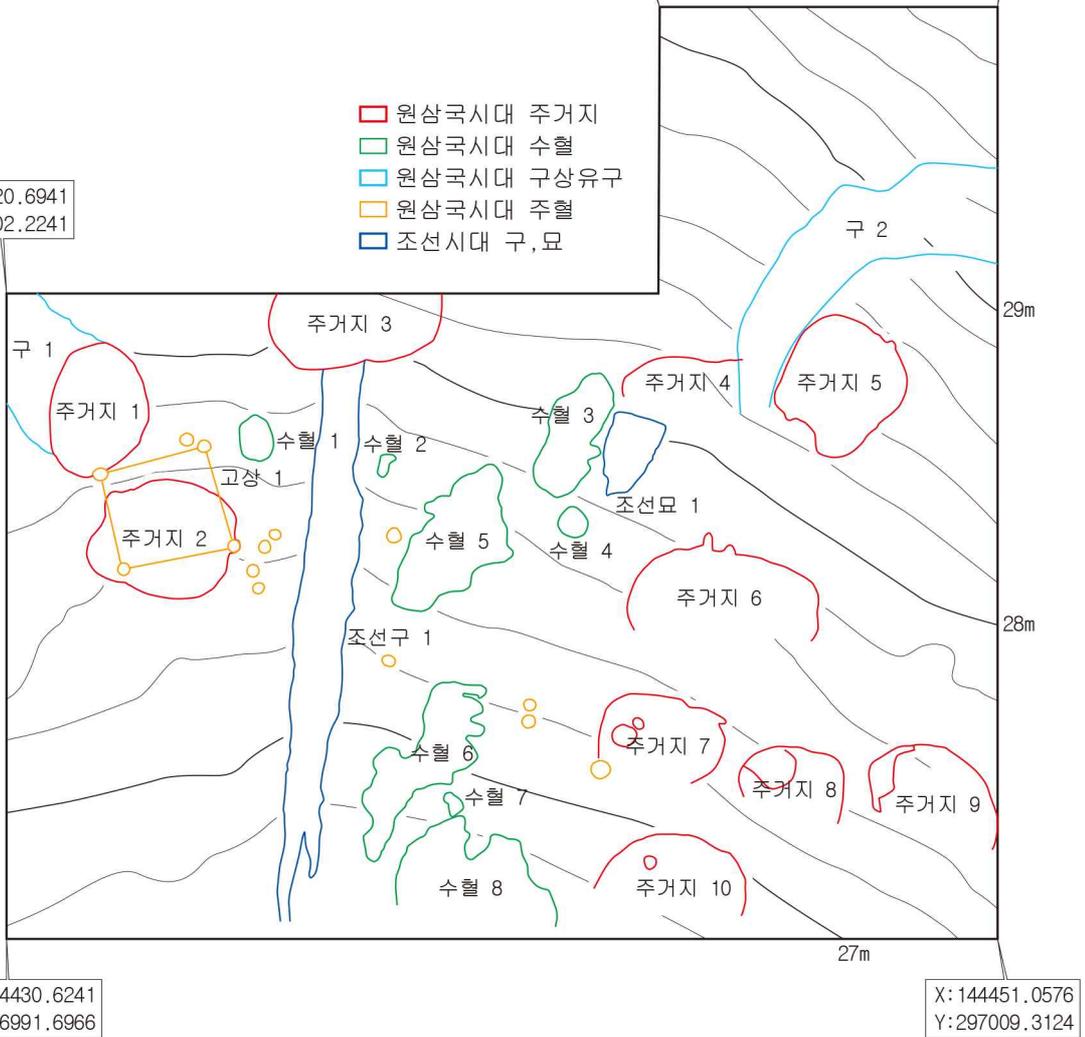


X: 144427.0145
Y: 297020.3988

X: 144433.8023
Y: 297027.1624

X: 144420.6941
Y: 297002.2241

- 원삼국시대 주거지
- 원삼국시대 수혈
- 원삼국시대 구상유구
- 원삼국시대 주혈
- 조선시대 구, 묘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면적: 227필지 /지정구역 266,290.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7-2	채	195	195		
2		17-3	묘	99	99		
3		17-5	구	69	69		
4		17-6	묘	69	69		
5		17-8	묘	46	46		
6		17-9	묘	976	976		
7		17-10	묘	13	13		
8		17-11	구	7	7		
9		17-12	묘	36	36		
10		17-13	묘	136	136		
11		17-14	구	30	30		
12		17-15	묘	414	414		
13		17-16	묘	103	103		
14		17-17	묘	990	990		
15		18-1	전	3,425	3,425		
16		18-2	채	10	10		
17		18-3	전	66	66		
18		19-2	묘	4,231	4,231		
19		21-1	임	1,666	1,666		
20		21-2	전	821	821		
21		21-3	묘	145	145		
22		21-4	전	85	85		
23		72	묘	1,117	1,117		
24		73	천	86	86		
25		74-1	채	762	762		
26		74-2	전	1,687	1,687		
27		74-3	전	2,863	2,863		
28		74-4	전	184	184		
29		74-7	전	92	92		
30		74-8	전	175	175		
31		75	전	291	291		
32		75-1	전	195	195		
33		76	전	565	565		
34		77	전	238	238		
35		78	전	99	99		
36		79	전	1,564	1,564		
37		80	전	912	912		
38		81	묘	1,775	1,77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39		82	전	417	417		
40		83	전	721	721		
41		84	전	1,379	1,379		
42		85	전	3,078	3,078		
43		86	전	506	506		
44		87	전	575	575		
45		88	전	486	486		
46		88-1	전	476	476		
47		89	임	704	704		
48		90	묘	374	374		
49		91	전	99	99		
50		92	묘	268	268		
51		93	임	496	496		
52		94	임	2,760	2,760		
53		98-1	묘	2,503	2,503		
54		98-2	묘	651	651		
55		98-3	묘	466	466		
56		99	전	1,015	1,015		
57		100-1	전	2,255	2,255		
58		100-2	전	1,127	1,127		
59		100-3	전	544	544		
60		100-4	전	350	350		
61		100-5	전	239	239		
62		101	전	377	377		
63		102	전	1,322	1,322		
64		102-1	전	318	318		
65		103	전	754	754		
66		104	장	1,459	1,459		
67		104-1	전	424	424		
68		104-2	대	116	116		
69		104-3	대	143	143		
70		105	장	116	116		
71		105-1	묘	248	248		
72		106-1	도	121	121		
73		106-3	대	173	173		
74		106-4	대	66	66		
75		106-5	대	92	92		
76		106-6	대	121	121		
77		106-7	도	90	90		
78		106-8	대	11	11		
79		106-9	전	4	4		
80		109	전	2,284	2,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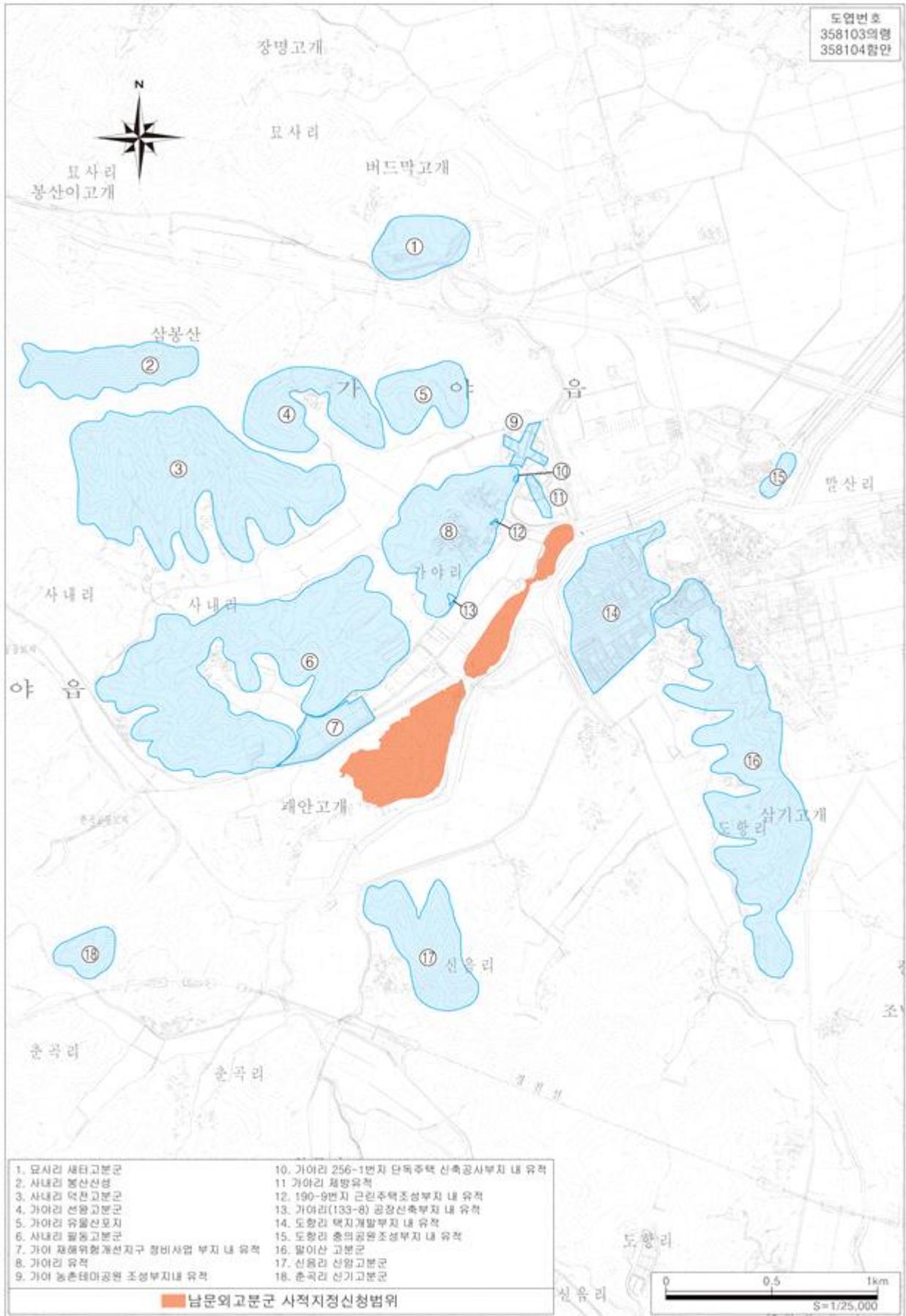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81		110	전	2,860	2,860		
82		111-1	전	1,898	1,898		
83		111-2	전	304	304		
84		111-3	전	400	400		
85		123-112	대	339	339		
86		123-117	대	36	36		
87		123-205	장	269	269		
88		209-4	구	76	76		
89		210-3	전	284	284		
90		212	제	1,145	1,145		
91		213-1	제	43	43		
92		213-2	묘	350	350		
93		214-1	묘	820	820		
94		215	전	783	783		
95		216	묘	443	443		
96		217	전	569	569		
97		218	전	3,183	3,183		
98		219	전	367	367		
99		220-1	구	448	448		
100		220-2	전	1,055	1,055		
101		221-1	전	258	258		
102		222-1	전	1,806	1,806		
103		222-3	전	1,154	1,154		
104		222-4	전	72	72		
105		822-4	도	231	231		
106		823	대	291	291		
107		823-1	전	308	308		
108		823-2	도	175	175		
109		823-3	도	205	205		
110		823-4	전	115	115		
111		824	도	102	102		
112		824-2	전	15	15		
113		824-3	대	156	156		
114		824-4	전	15	15		
115		824-5	대	304	304		
116		824-6	대	99	99		
117		824-7	전	56	56		
118		824-8	도	18	18		
119		824-9	대	16	16		
120		824-10	전	148	148		
121		824-11	전	27	27		
122		824-12	전	5	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23		824-14	전	17	17		
124		825-1	전	2,299	2,299		
125		825-2	묘	582	582		
126		825-3	대	512	512		
127		825-4	묘	26	26		
128		825-5	묘	83	83		
129		825-7	도	55	55		
130		826	대	549	549		
131		826-1	전	106	106		
132		827	임	89	89		
133		828	전	1,534	1,534		
134		829	임	132	132		
135		830	전	747	747		
136		831	전	1,137	1,137		
137		832	전	774	774		
138		833	전	1,617	1,617		
139		834	전	519	519		
140		835-1	전	850	850		
141		835-2	전	255	255		
142		835-3	전	1,709	1,709		
143		835-4	묘	60	60		
144		836	전	364	364		
145		837	전	1,273	1,273		
146		838	묘	198	198		
147		839	전	1,790	1,790		
148		839-1	전	230	230		
149		840	전	668	668		
150		841	전	2,003	2,003		
151		842	전	2,126	2,126		
152		843-1	묘	645	645		
153		843-2	묘	119	119		
154		844	전	1,891	1,891		
155		845-12	전	138	138		
156		845-8	전	1,295	1,295		
157		846	답	238	238		
158		846-1	중	97	97		
159		846-2	도	244	244		
160		856-1	전	2,340	2,340		
161		856-3	전	2,103	2,103		
162		856-5	답	334	334		
163		856-8	전	152	152		
164		856-9	전	101	10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65		856-10	전	123	123		
166		857	전	764	764		
167		858-1	묘	2,820	2,820		
168		858-2	묘	817	817		
169		859-1	전	1,540	1,540		
170		859-2	묘	96	96		
171		860-1	묘	965	965		
172		860-2	묘	76	76		
173		860-3	묘	13	13		
174		860-4	묘	50	50		
175		861	전	1,078	1,078		
176		862-1	전	704	704		
177		862-2	전	463	463		
178		863	전	810	810		
179		864-1	임	724	724		
180		864-2	임	489	489		
181		865	임	251	251		
182		866	전	1,081	1,081		
183		867	전	942	942		
184		868	전	3,365	3,365		
185		868-1	전	113	113		
186		869	답	506	506		
187		870	답	3,131	3,131		
188		871	전	367	367		
189		872	전	1,478	1,478		
190		873	전	443	443		
191		874	전	803	803		
192		875	답	1,534	1,534		
193		876-2	답	334	334		
194		877	전	694	694		
195		878	전	1,590	1,590		
196		881	전	1,131	1,131		
197		1160-11	도	25	25		
198		1160-12	도	14	14		
199		1171	구	1,140	1,140		
200		1175	잡	2,024.60	2,024.60		
201		산39-1	임	6,525	6,525		
202		산39-2	임	3	3		
203		산40	임	20,529	20,529		
204		산41	임	9,818	9,818		
205		산42	임	4,860	4,860		
206		산43	임	6,050	6,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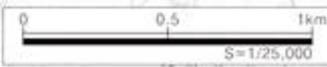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207		산44	임	1,715	1,715		
208		산44-1	임	169	169		
209		산45	임	90	90		
210		산45-1	임	594	594		
211		산45-2	임	35	35		
212		산45-3	임	1,562	1,562		
213		산47	임	138	138		
214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	1276	전	836	836		
215		1289-1	임	114	114		
216		산1-2	임	3	3		
217		산2	임	23,090	23,090		
218		산3	임	3,208	3,208		
219		산3-1	임	267	267		
220		산3-2	임	194	194		
221		산4	임	22,005	22,005		
222		산4-1	임	12	12		
223		16	임	264	264		
224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산1-1	임	7,143	7,143		
225		산1-2	임	3	3		
226		산2	임	4,066	4,066		
227		산3	임	11,285	11,285		
계			-	266,290.6	266,2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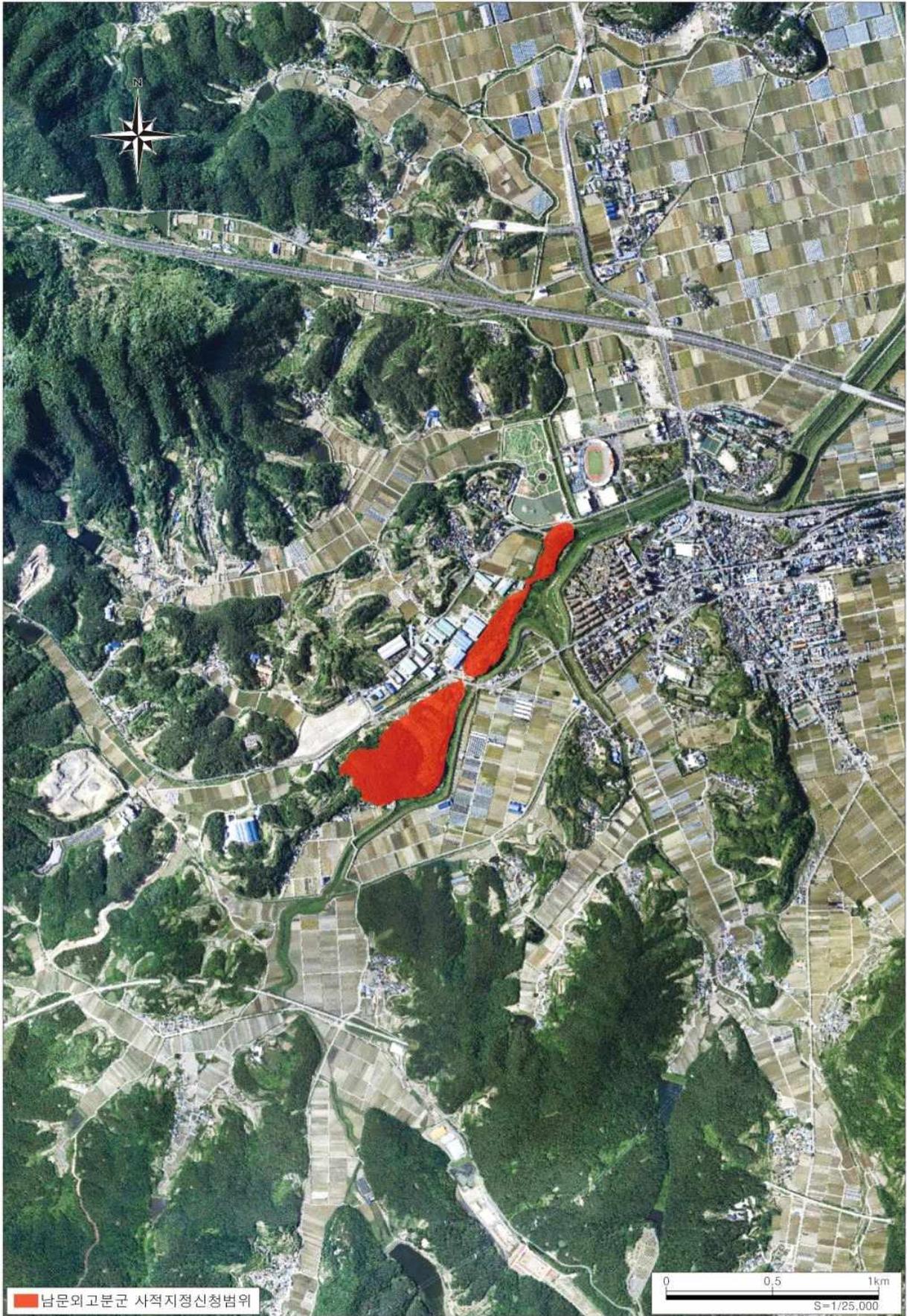
도업번호
358103의형
358104합안



- | | |
|------------------------------|----------------------------------|
| 1. 모사리 새터고분군 | 10. 가야리 256-1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
| 2. 사내리 봉산신성 | 11. 가야리 채방유적 |
| 3. 사내리 덕천고분군 | 12. 190-9번지 근린주택조성부지 내 유적 |
| 4. 가야리 선왕고분군 | 13. 가야리(133-8)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
| 5. 가야리 유물신묘지 | 14. 도향리 택지개발부지 내 유적 |
| 6. 사내리 팔동고분군 | 15. 도향리 총리공원조성부지 내 유적 |
| 7. 가야리 채영위령계선지구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 16. 팔이산 고분군 |
| 8. 가야리 유적 | 17. 신유리 선왕고분군 |
| 9. 가야리 농촌태마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 18. 춘곡리 선가고분군 |

남문외교분군 사적지정신청범위







● 남문의고분군 추정지

조선후기 지방지도-함안현(18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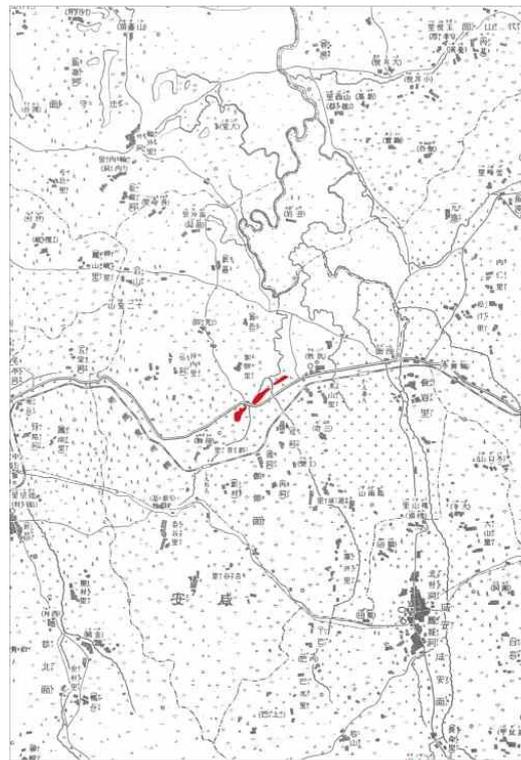
● 남문의고분군 추정지

해동지도-함안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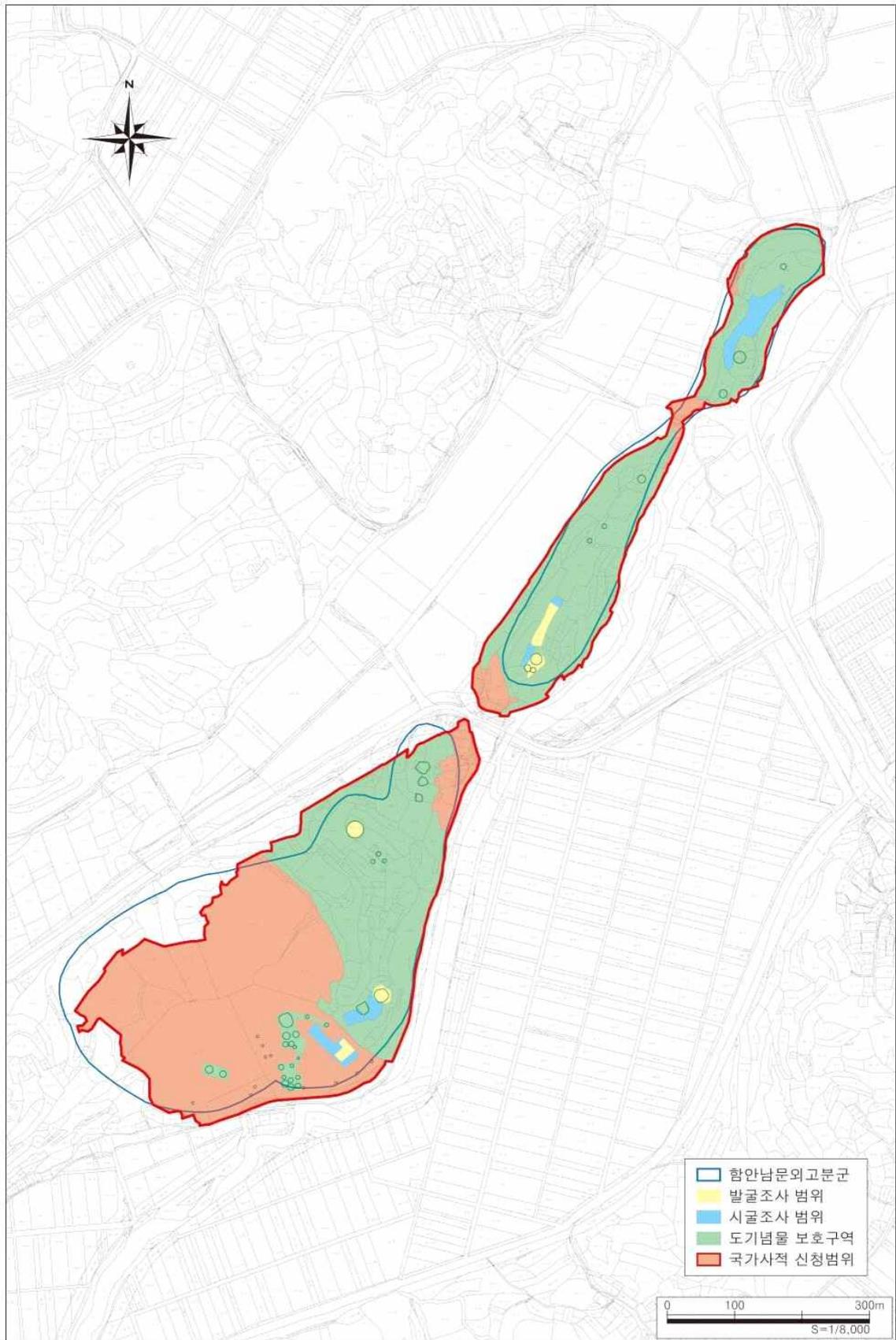
● 남문의고분군 추정지

대동여지도의 남문의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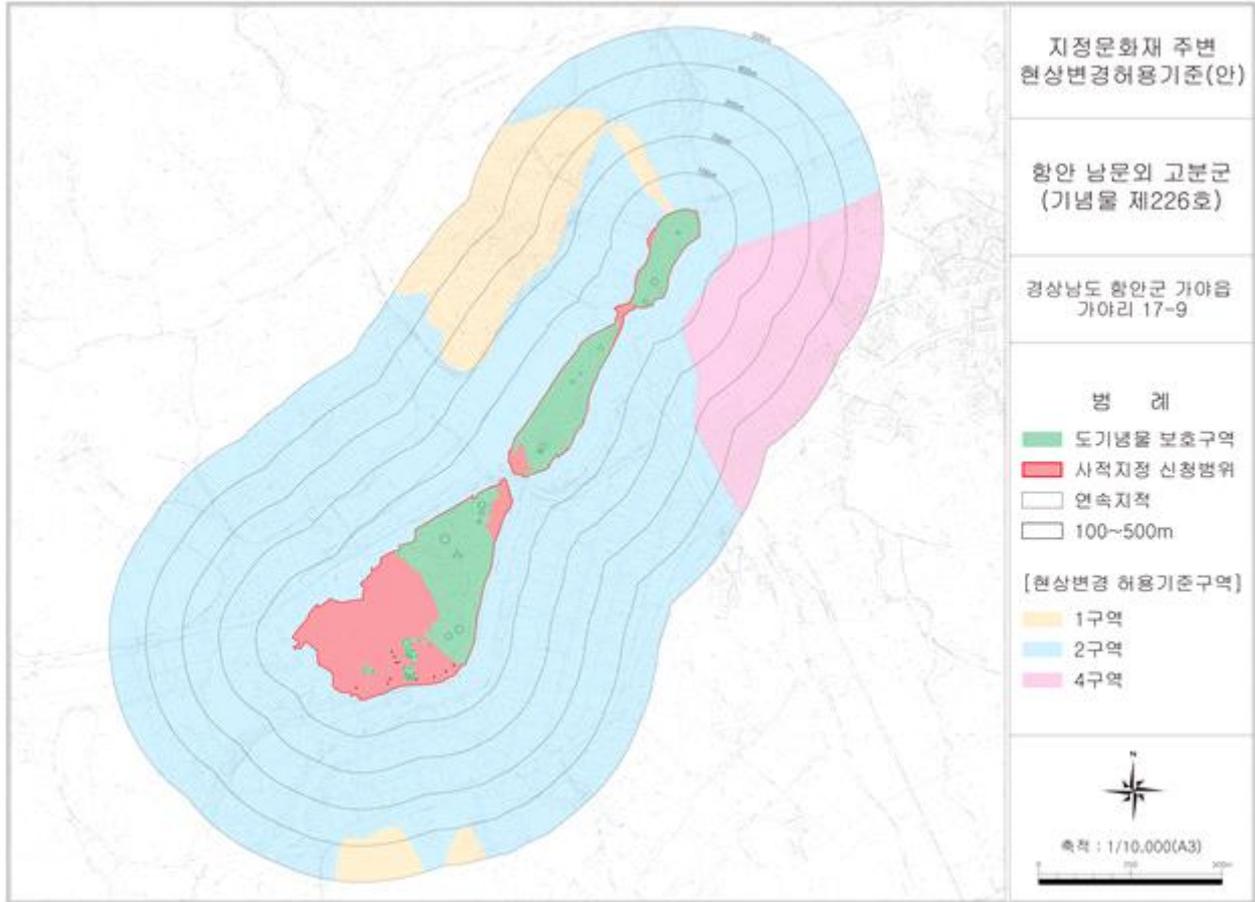
● 남문의고분군 추정지

朝鮮五萬分-지형도(1926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주변 농경지와 임야의 현황에 따라 개별심의구역의 재검토가 필요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시 문화재 표본조사를 시행할 것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건설행위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 공사 시행할 것.
5구역	○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2. 남문의고분군

- 남문의고분군은 해발 70m 전후의 낮고 편평한 구릉 경선부를 중심으로 축조되어 있다. 아라카야의 중심고분군으로 말리산고분군과 축조시기, 고분군의 성격이 동일하며,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말리산고분군에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남문의고분군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와 1990년대 후반에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고분군 전체에 대한 정밀한 측량이 이루어진 바 없고, 도면과 지도, 사진 등 관련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원의 조사에서는 고분군 전체를 정밀 측량하고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분포도의 조사는 GPS를 이용하여 수치지도에 TM 좌표, 위도좌표, 경도좌표를 정확한 입력하여 후조 고분군의 조사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1917년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고분 18기, 1999년 아라카야항토사 연구회에서 조사한 고분 18기를 확인하고 더불어 25기의 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조사된 분포도는 모두 43기이다. 분포도는 대부분 직경 10~20m에 해당하고 20m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2호분, 6호분, 8호분, 15호분, 18호분 등 5기이다. 분포도의 직경이 30m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11호분 1기이다.
- 고분군이 가장 밀집된 곳은 케냐마을 북쪽편 구릉 사면부이다. 직경 10m 내외의 중·소형 분포분 수십기와 20m 정도의 대형 분포분이 밀집해서 축조되어 있다. 개관과 도굴 등으로 분포가 훼손된 고분도 다수 확인되고 석곽이 노출된 고분도 많다. 이 일대는 분포분과 분분이 없는 소형 석곽들이 밀집해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 고분 번호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전의 고분번호를 활용하여 부여하였다. 고분군의 북쪽 끝부분에서 고분 번호를 부여하여 남북방향으로 진행하였다.
- 남문의고분군은 케냐마을 북쪽편 구릉 사면부에서 시작하여 구릉을 따라 연속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축조시기는 5~6세기에 판단된다. 남문의고분군은 말리산고분군과 함께 아라카야 최상위 지배층의 묘역으로 판단된다.



2) 남문의고분군 연가적 학술발굴방안

- 남문의고분군은 분포분 상부와 주변 잡목,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고분의 2차적 훼손이 우려된다. 고분의 훼손이 더 진행되기 전에 조사대상지는 사전 매입 또는 사유지화를 통한 후 학술조사를 통해 고분의 성격을 규명하고, 향후 시적으로 지정 추진하여야 한다.
- 남문의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크게 4차레로 나누어 실시하여 고분군의 성격규명을 위한 조사이므로 고분군 전체 범위에 대한 균일성은 학술조사가 요구된다. 1차 조사는 남문의고분군의 성격을 가장 파악하기 용이하며 고분군 내 가장 큰 규모인 남문의 11호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조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경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문의 15·16호분과 주덕 및 원대보 조성등으로 훼손이 진행중인 남문의 8~10호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남문의 15·16호분은 모두 사유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조사 이전 고분이 위치한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3차 조사는 남문의고분군의 북쪽(구 아라카고분군)에 위치한 과피분(남문의6·7

3. 학술발굴조사 추진

1) 남문의고분군 및 傳안라왕궁지의 성격규명을 위한 학술발굴조사 추진

- 남문의고분군은 일제강점기에 고분군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고분의 성격, 출토 유물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 현재 가야초등학교에 남문의고분군 주변에서 채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야토기들이 일부 확인될 뿐 고분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분군의 성격 규명에 한계가 있다.
- 남문의고분군에 산재하는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학술조사하여 그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적을 정비 보호하여 역사적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 남문의고분군은 고분의 축조상태, 입지, 규모 등으로 추정하면 5~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고분 밀집지역, 분포분의 축조 흐름에 따라 수 개 지점에 대한 학술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남문의고분군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현재 대형분포분들은 도굴 및 개간 등으로 훼손이 심한 상태인데 발굴조사 후 원형을 복원·정비할 필요가 있다.
- 발굴은 남문의고분군의 중심고분인 남문의 11호분, 14·15호분, 8~10호분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며 향후 고분군 정비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학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고분의 이상적인 복원은 학술조사를 통해 고분의 정확한 규모와 범위를 확인한 후 원형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포분의 기저부 조사를 통해 고분의 형태를 파악하고, 고분 일부의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남문의고분군 전체에 걸쳐 무조건 정비할 필요가 있다.
- 傳안라왕궁지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잔존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연차적인 발굴계획, 복원방안을 수립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남문의고분군, 傳안라왕궁지와 주변지역 역사 유적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역사문화지역으로서의 가치를 부각하고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호분) 및 농성상에 위치한 고분군에 대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며, 4차 조사는 남문의고분군 최남단 고분군밀집분포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및 고분 기저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개요

구분	조사대상	고분군 내용(단위m)
1차 조사	11호분 (국유지)	-규모 : 지름 31.7, 높이 6.9, 둘레 103.3 -위치 : 가이리 858-2, 서북북방향의 돌출부에 위치
	8~10호분 (국유지)	- 8호분 : 지름 20.2, 높이 3.8, 둘레 68.5 - 9호분 : 지름 16.2, 높이 1.6, 둘레 52.1 - 10호분 : 지름 10.1, 높이 2.1, 둘레 39.2 -위치 : 가이리 825-1전, 825-2외, 843-2외, 844전
2차 조사	15·16호분 (사유지)	-15호분 : 지름 28.6, 높이 6.5, 둘레 85.8 -16호분 : 지름 19.6, 높이 3.0, 둘레 66.9 -위치 : 가이리 산 42, 산줄기 구릉의 우측편으로 치우친 중간지점에 위치, 도굴로 인해 분포정상부가 1.5m이상 함몰 -조사 전 토질이 우선시 함
	1~7호분 (국·사유지)	- 조사는 남문의고분군 북쪽농성(구 아라카고분군)에 분포되어 있는 고분들 중심으로 하되 고분군의 분포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고분 기저부 조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함 -고분은 남문의 6·7호분을 제외하면 모두 사유지에 있어 조사 전 협의가 필요하다 -남문의 1·2호분 주변은 현재 휴경상태로 고분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남문외 3~5호분 주변으로는 현재 경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4차 조사	17~32호분 (사유지)	- 4차 조사지역은 중·소형 분포분 및 석곽묘가 밀집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일부 석곽묘는 개석 및 석곽 내부가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파괴가 심하다. -고분이 위치한 지역은 산 2면, 산 4면으로 모두 사유지에서 현재 고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산 2면, 산 3면, 산 4면 등 고분마을 북쪽농성으로는 분포는 식별되어 보존되어 있으나 석곽묘가 지표상에 다수 노출·확인되어 있어 남문의고분군 내에서 가장 고분 밀집도가 높다. -분포분의 기저부 조사 및 노출된 석곽묘에 대한 조사 및 보존이 필요하다.

남문의고분군 보존·정비계획1
(출처:함안 남문의고분군·傳안라왕궁지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4. 남문외고분군 사적지정 추진

1) 남문외고분군의 사적 추진 방안

- 남문외고분군 분포조사에서 봉토분 및 석자료가 총 43기가 확인되었다. 이전의 조사보다 전체적인 봉토분의 수는 늘어났지만 후대의 경차지 조성과 근대요를 조성하면서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었던 봉토분이 훼손된 부분도 여러 곳 확인되었다. 금번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고분군 최남단(대인마을)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중·소형의 봉토분이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정밀지표조사 결과 남문외고분군은 아라가야 수장층 묘역으로 추정된다. 고분의 축조시기, 출토유물, 봉토의 잔존 상태 등으로 보아 남문외고분군은 말안산고분군(사적 제515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심고분에 대한 학술발굴을 통해 남문외고분군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할 필요가 제기된다.
- 남문외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고분군이므로 사적지정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말안산고분군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남문외고분군을 말안산고분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 남문외고분군의 분포현황, 입지, 시기별 축조양상에 대한 자료는 일부 확보되었지만 고분군의 성격에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차별 학술발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기 발굴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유물특별전을 개최하고 도록을 발간하여 지역민은 물론 탐방객들에게 남문외고분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남문외고분군과 말안산고분군의 관계성을 부각하여 종합연구보고서 작성, 일제강점기 조사내용, 사건, 축방도, 출토유물의 재검토를 통해 종합보고서를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남문외고분군 전체를 사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약하므로 현재 확보된

국유지를 중심으로 사적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고분군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적지정을 추진해야하며 고분군 주변 사유지는 연차매입(국비, 도비, 군비)하여 추후 사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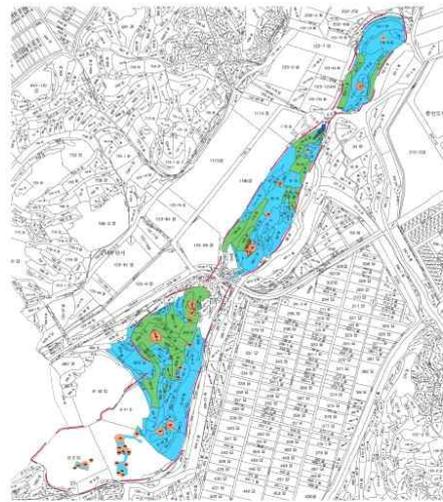
2) 사적지정 추진위원회의 구성

합안지역 고분군 사적지정을 위한 소요예산을 검토한 바, 우선 소요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므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방안 등을 협의토록 한다.

구분	내용
출입 또는 도 조직	- 국비 재원확보 방안 노력 - 주요 사업 추진방안 협의
시·군 조직	- 사적으로 덕당있는 민사, 크게 전문가로 구성 - 해당 시·군과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협의

본 사업을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기적인 모임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추진위원회는 일부 전문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주민, 행정조직, 관련 학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학의 조직체도 구성될 필요가 있다. 조직은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차분위원, 추진위원 등이 포함된다.

남문외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지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홍보자료 발간 및 언론 홍보 등이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문외고분군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 의식 고양 등이 중요하다. 공무원, 군의원, 일반군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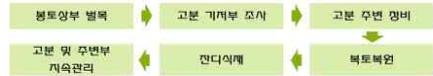
5. 남문의고분군 정비 및 활용

1) 고분군 원형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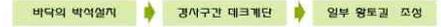
- 봉토의 감복을 제거하고 도굴생은 복구하여 고분의 원형을 복원한다. 포토의 감복과 수풀을 제거하고 잔디를 이식하여 고분의 향구적 보존 방안을 마련한다.
- 고분의 원형복원은 국유지 내 위치한 고분 및 폐허가 심한 고분을 중심으로 4차 례에 걸쳐 고분군 조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11호분은 지름 31.7m, 높이 6.9m, 둘레 103m로 남문의고분군 내 가장 큰 대형분묘분이다. 현재 도굴로 인해 봉분 상부가 부분적으로 훼손된 상태이나, 원형 복원이 요구되는 고분이다.

구분	조사대상	고분군 내용(단위:m)
1차 조사	11호분 (국유지)	-규모 : 지름 31.7, 높이 6.9, 둘레 103.3 -위치 : 가마리 858-2, 서북쪽방향의 돌출부에 위치
		-8호분 : 지름 20.2, 높이 3.8, 둘레 66.5 -9호분 : 지름 16.2, 높이 1.6, 둘레 52.1 -10호분 : 지름 10.1, 높이 2.1, 둘레 39.2 -위치 : 가마리 825-1전, 825-2묘, 843-2묘, 844전
2차 조사	8~10호분 (국유지)	-8호분 : 지름 20.2, 높이 3.8, 둘레 66.5 -9호분 : 지름 16.2, 높이 1.6, 둘레 52.1 -10호분 : 지름 10.1, 높이 2.1, 둘레 39.2 -위치 : 가마리 825-1전, 825-2묘, 843-2묘, 844전
	15·16호분 (사유지)	-15호분 : 지름 28.8, 높이 6.5, 둘레 85.8 -16호분 : 지름 19.6, 높이 3.0, 직경 66.9
3차 조사	1~7호분 (국·사유지)	-고분 기저부에 대한 조사 후 정비·복원 실시 -고분은 남문의 6~7호분을 제외하면 모두 사유지에 있어 조사권 협의가 필요
		-총·소형 분토 및 석곽자가 밀집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파괴가 진행중임 -모두 사유지로 고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분토분의 기저부 조사 및 노출된 석곽자에 대한 조사 및 보존 요망
4차 조사	17~32호분 (사유지)	-총·소형 분토 및 석곽자가 밀집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파괴가 진행중임 -모두 사유지로 고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분토분의 기저부 조사 및 노출된 석곽자에 대한 조사 및 보존 요망

(1) 원형복원의 진행단계



(2) 고분군 관람로 설치



(3) 기타 시설



2) 고분군 활용

지역 문화재의 활용은 침체된 지역의 재생효과와 함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성화를 초래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역의 문화재는 지역 역사와 산실로 지역과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활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는 상승하게 된다. 문화재의 활용은 크게 사회교육, 경제적, 문화공간의 활용으로 나눌 수가 있다. 고분군 내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유적의 정비 및 활용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고분군 탐방로를 개설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6. 종합결론

1) 따금요약

(1) 역사문화적 측면

- 남문의고분군은 5~6세기 말인 아라가야의 중심고분군으로 아라가야의 실체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유적지 중 하나이다.
- 남문의고분군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 기초자료에 대한 문헌은 함안의 지역사는 물론 가야사를 올바로 정립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밭이산고분군과 남문의고분군, 가마리 제방유적, 웅안라왕궁지, 장평리도요지 등은 4~6세기대 유적으로 동일 시기의 매장유적, 생활유적, 생산유적의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일 지역에서 이처럼 다양한 유적과 정보가 확인된 사례는 많지 않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성려는 아라가야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
- 함안의 아라가야는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문화권,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문화권, 소가야문화권, 신라문화권과 교류하며 성장했던 사실이 여러 유물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밭이산고분군과 남문의고분군은 가야 각 정치체들의 교집합상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웅안라왕궁지는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근거는 부족하나 일지, 주변유적 현황 등을 분석하면 왕궁지 또는 아라가야의 중심 권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학술 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남문의고분군을 복원·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수립된다면 함안군내 산재한 많은 유적과 연결된 네트워크망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되며, 삼국시대를 테마로 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개발되고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2) 사회경제적 측면

- 남문의고분군을 복원·정비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며 탐방객들에게 함안의 정체성을 이해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으로 기대한다.

- 함안군민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은 통해 함안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주민간 문화적 적자물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파악된다.
- 각종 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 역사문화사업의 진계를 통해 함안군민의 문화향유 만족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함안군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아라개·무진정 낙화놀이·수박축제·삼절민속 줄타리기 등의 축제와 연계하여 타지역민들에게 함안군의 고유한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함안군의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남문의고분군에 대한 복원·정비는 가야유에 산재하고 있는 많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자원화 등의 기본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남문의고분군에 내게되어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타 지역과 차별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적절한 스토리텔링 등의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특색있는 역사체험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남문의고분군의 고분과 출토유물에 대한 2차적인 가공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세계를 가미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를 자원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남문의고분군과 웅안라왕궁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은 지역민에게 지역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남문의고분군 보존·정비계획3
(출처:함안 남문의고분군·웅안라왕궁지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9. 종합 의견

- 함안 남문의 고분군은 1587년 『함주지(咸州誌)』(1587) 처음 그 존재가 확인되는 고분군으로, 현재의 동말이산(현 말이산 고분군)과 서말이산 고분군(현 남문의 고분군)으로 불리우고 있었음.
 - 남문의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일부 조사 이후, 2015년 남문의 고분군 11호분 발굴, 2019년에는 6호분과 7호분, 15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6세기경 축조된 굴식돌방무덤 4기와 구덩식돌덧널무덤 14기가 확인되었음. 특히 남문의 11호분과 남문의 6호분은 그 규모에 있어 가야문화권의 굴식돌방무덤을 압도하는 초대형의 고분임.
- 이러한 남문의 고분은 말이산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고암반대’를 활용한 축조수법과 분할축조기법 등 아라가야의 독창적 토목기술이 확인되어 두 고분군이 동일 축조집단에 의해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함께 4호분, 13호분 등 5세기 말까지 말이산 주능선에서 조영되던 아라가야의 왕묘급 고분들이 6세기 이후 남문의 고분군에 축조되었다는 점은 6세기를 기점으로 아라가야 왕 묘역이 동말이산(현재 말이산 고분군)에서 서말이산(현 남문의 고분군)으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남문의 고분군은 말이산 고분군과 같은 세력이 시기를 이어오며 조성된 아라가야 후기 왕릉으로 판단됨.
- 따라서 남문의 고분군은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말이산 고분군과 동일 고분으로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단, 남문의 고분군은 말이산 고분군과 유적의 연속성, 유물의 동일성, 축조기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할 때,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추가지정구역으로 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영주 소수서원 보호구역 내 상징조형물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보호구역 내 상징조형물을 설치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소수서원 보호구역 내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1년 3차 위원회('21.03.10.)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영주 소수서원(사적 / 1963.01.21.지정)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상징조형물 설치>
 -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60-1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설치내역
 - 규모 H=4.15m, 1.34m×1.55m(기초)
 - 기초터파기 2×2×1.2(기초골조 1.25×1.46×1.0)
 - 재질: 스테인레스 plate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설치 위치는 관계전문가와 협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5. 경주 이견대 내외 탐방로 정비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이견대」 내외 탐방로 정비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이견대 내외에 탐방로 정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이견대(사적 / 1967.08.0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61
- (3) 신청내용<탐방로 정비>
 - 위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61번지(문화재구역, 3구역)
 - 사업내용
 - 목재데크계단 설치(총 길이 A=63.00m²)
 - 합성목재 난간 설치(61경간)
 - 300mm×300mm×45mm 방전깔기(총 면적 A=7.38m²)
- (4) 신청인 의견
 - 현재 출입구의 위치가 북측 도로에 위치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하기 힘든 상황임
 - 이에, 이견대 주변 탐방로 정비공사로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신라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신라문화의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6. 경주 대릉원 일원 내 경주 대릉원 삼문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 내 경주 대릉원 삼문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대릉원 일원 내에 경주 대릉원 삼문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번지 등
- (3) 신청내용<경주 대릉원 삼문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31-1, 61-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삼문 2개소 설치(총 면적 A=35.16㎡), 최고높이 5.06m
 - 담장해체(총 길이 L=24.88m)
 - 보도블럭 깔기(총 면적 A=268.88㎡), 벌목 1주(활엽수 - B200)
- (4) 신청인 의견
 - 현재 출입구의 위치가 남, 북쪽에 위치하여 동, 서쪽 도로면에서 출입하기 힘든 상황임. 대릉원 삼문 설치 공사로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1.05.20./문화재위원 ○○○, ○○○)
 - 제출된 동측과 서측의 삼문 관련하여 동측은 추후 쪽샘지구 정비와 관련 연계를 고려하여 문을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임
 - 서측은 문화재 관리 등을 고려할 때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과의

- 관계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문의 규모로 제시된 삼문은 과하며 축소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동측 출입문은 설치하되 형태, 규모 등은 재설계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2명, 부결 1명

7. 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회암사 진입로 도로개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회암사 진입로 도로개선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회암사지 회암사 진입로 도로개선공사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1년 5차 위원회('21.05.12.)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회암사지(사적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
- (3) 신청내용<회암사 진입로 개선>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8-1(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1) 1구역
 - 도로확폭(0.5~1.5m): 기존 도로폭 3.0~5.5m → 계획도로폭 3.5~7.5m
 - 석축찰쌓기(H0.5~2.5m) : 38.09m(103.91㎡)
 - 2) 2구역
 - 도로확폭(0.5~2.2m): 기존 도로폭 3.0~4.8m → 계획도로폭 3.5~7.0m
 - 석축찰쌓기(H0.5~2.5m) : 21.53m(33.59㎡)
 - 3) 3구역
 - 도로 경사도 조정
 - 기존 아스콘 포장 해체 후 재설치 : 139.5㎡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1.05.31./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양주 회암사지 내 보호구역에 회암사 진입로가 협소하고 자동차 운행에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 급경사지의 회전로, 하천 연접지 모두 계획대로 시행하여도 문화재 훼손 및 경관에 문제없이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견('20.09./前 문화재전문위원 ○○○)

- 회암사 진입로 정비를 위한 현황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진입로 정비는 회암사 일주문부터 사찰에 이르는 구간 중 차량 운행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함
 - 일주문을 지나 도로가 협소한 구간, 계곡을 횡단하는 도로 암거설치 구간, 사찰입구 주차장 주변 급커브구간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의 폭 및 선행, 경사도를 개선하도록 함
 - 진입로 정비로 인하여 석축 등을 쌓을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자연석 등을 사용토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8. 북한산성 내외 북한산 재난취약지구 정비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북한산성」 및 명승 「삼각산」 문화재구역 내외 재난취약지구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북한산성 및 명승 삼각산 내외 재난취약지구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북한산성(사적 / 1968.12.05. 지정),
삼각산(명승 / 2003.10.3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등

(3) 신청내용<북한산 재난취약지구 정비>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산19-1일원 등 총 5개 구간(문화재 구역 내외)

- 사업내용

번호	개소명	공종	규격	단위	수량	구분
1	산성지구 4공구 (밤골지킴터 상향 1.5km)	안내판(낙석, 추락주의)	W900×H2,200	개소	2	허용기준 1구역
		철재난간	H1,100×W1,500	경간	90	
		낙석방지망	W1,000×H1,000	m ²	48	
		암반걸이공	-	개소	4	
		뜯돌제거	-	개소	3	
2	산성지구 5공구 (용암사-부왕동 암문)	안내판(사고위험)	W900×H2,200	개소	1	북한산성 내, 1구역
		철재난간	H1,100×W1,500	경간	81	
		목재데크C형(경사계단형)	W1,500	경간	12	
		철재계단	H1,100×W1,500	경간	36	
		토사밀림방지대(4단)	4단, 각재형	경간	4	
		구급함	W590×H1,110	개소	1	

번호	개소명	공종	규격	단위	수량	구분
3	산성지구 6공구 (부왕동암문~청수동암문)	철재난간	H1,100×W1,500	경간	10	북한산성 내, 1구역
		목재데크C형(경사계단형)	W1,500	경간	14	
		뜯돌제거	-	개소	1	
4	우이지구 1공구 (백운대피소~위문)	철재난간	H1,100×W1,500	경간	10	삼각산 내, 1구역
		목재데크C형(경사계단형)	W1,500	경간	14	
		돌계단 정비	-	m ²	42	
5	우이지구 2공구 (백운봉암문~노적봉삼거리)	목재데크C형(경사계단형)	W1,500	경간	10	삼각산 내, 1구역

라. 참고사항

(1) 천연기념물과 명승 「삼각산」 현상변경 검토의견('21.06.02)

- 신청 사업은 명승 「삼각산」 문화재구역 내외 탐방객 안전시설 설치와 관람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해 문화재 경관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9. 부여 정림사지 내 세계유산 탐방길 조성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부여 정림사지」 내 세계유산 탐방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정림사지 내 세계유산 탐방길 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정림사지(사적 / 1983.03.26.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번지
- (3) 사업내용<세계유산 탐방길 조성>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65-1 외 25필지(문화재구역)
 - 신청내용
 - 규모 : 보도 정비(1,114㎡, B=6m, L=500m)
 - 수목 : 가로수(왕벚나무)를 정림사지 담장내로 이식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의견('21.03.11./문화재위원 ○○○)
 - 기존 도로에 있는 벚나무를 정림사지 경내로 이식하여도 문제없다고 판단됨. 단, 이식 후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작성하고 경관의 변화를 제시한 후 시행
- (2) 지자체 의견
 - 문화재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존 수목은 존치
 - 보도 바닥 패턴은 전문가와 협의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10.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문화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에 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한양도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등 일원
- (3) 신청내용<문화공원 조성>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8-2 일대(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 부지 면적 : 3,026.5㎡(성북동 헛터 978㎡, 신규 조성 1,478.5㎡, 근현대 문학기념관 570㎡)
 - 시설물 설치 : 목재데크1(W=1.2~3.5m, L=35m), 목재데크2(W=1.2~3.3m, L=43.9m), 황토포장(W=1.2m, L=50.5m), 황토길(W=1.3m, L=30.7m), 옹벽(H=1.2m), 조망데크(62.3㎡) 및 파고라(1개소), 야외무대데크(61.1㎡) 잔디포장 등
 - 성북근현대문학 기념관 : 기존 2층 규모 건물 개축

구분	기존	개축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274.74㎡ (449.95㎡)	205.27㎡ (449.49㎡)	69.47㎡ 감소 (0.46㎡ 감소)
규모 (최고높이)	지하1층, 지상2층 (12.6m)	지하1층, 지상2층 (11.6m)	1m 감소

라. 참고사항

(1) 한양도성도감 의견('21.06.04.)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유산구역) 내 시설물 설치 및 건축행위는 한양도성의 유산가치 보존·관리를 위해서 한양도성의 경관과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나아가 세계유산등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대상지 일대는 한양도성 성북동 성곽이 시작되는 경관상 중요지점으로 한양도성 보호와 경관개선, 점검통로 및 순성로 확보 등을 위해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성벽에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고, 기존건축물(지상2층)을 철거 완료한 지역으로, 이와 연접한 부지에 건물높이 10.4m(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건축행위는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한양도성 유산구역(완충구역) 관리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한양도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르면, 해당 위치의 건축물의 높이는 성곽 연접구역으로 도로 표고로부터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음

<한양도성 허용기준>

성곽 연접구역(2E구역) : 주 출입 도로 표고로부터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 따라서, 해당 위치에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에는 위 허용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8m 이하(도로면기준, 2층 이하)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공원조성은 성북쉽터부터 문화공원, 기존건축물, 위쪽 인접한 순성로와 상호 유기적으로 전체 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원계획 중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계단식 형태의 지형에 성토부분이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수복할 수 있는 부분(소단)과 성토부분을 구분하여 계획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임

또한, 산책로 주변 성벽 형태의 석재마감 계획은 문화재의 진정성, 역사성 등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목재 등 다른 재질이나 형태로의 변경 되도록 하고, 인접도로변에서 한양도성의 조망이 원활하고 전체적인 성곽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명, 보류 12명

11.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공원 보수정비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에 공원 보수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에 공원 보수정비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한양도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등 일원
- (3) 신청내용<공원 보수정비>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 ① 어린이놀이터
 - 시설물 설치 : 슬라이드, 경사놀이, 스페이스 볼 등 놀이 및 운동시설
 - 수목 식재 : 소나무 11주, 백목련 12주, 배롱나무 8주, 산수유 12주, 청단풍 15주, 홍단풍 2주 등 60주
 - 포장 및 구조물 : 탄성고무짚 포장 175㎡, 투수블럭 포장 21㎡, 경계석 등
 - ② 산책로 정비 : 데크계단 3개소, 경화마사토포장 180㎡, 조경석쌓기 25m
 - ③ 관목 보식 : 매화나무 12주, 살구나무 18주, 눈주목 960주, 모란 60주 등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2. 김포 문수산성 내 등산객 쉼터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김포 문수산성」 내 등산객 쉼터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포 문수산성 내 등산객 쉼터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문수산성(사적 / 1964.08.29.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36-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등산객 쉼터 조성>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5-1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쉼터설치 1개소
 - 설치면적 : 38.0m²
 - 설치규격 : 6.744m(폭)×7.415m(높이)
 - 형태 : 팔각지붕 정자 형태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3. 합천 해인사 내 담장정비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사적 「합천 해인사」 내 담장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합천 해인사 내 담장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합천 해인사(사적 / 2009.12.21. 지정)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치인리 10)
- (3) 신청내용<보경단 주변 담장정비>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치인리 10)(문화재구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사업목적 : 보경단 주변 외편담장 철거 후, 석재난간 설치
 - 사업내용
 - 외편 담장 철거 : L=22.6m, H(평균)=0.87m
 - 석재 난간 설치 : L=22.6m, H(평균)=0.97m
 - 담장 하부 석축 상단 일부 해체 후 재설치 : L=22.4m, H(평균)=0.45m
- (4) 신청인 의견
 - 경내 외편담장 뒤에 위치한 무장애시설(경사로)의 가시성 개선을 위한 정비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한 문화재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4. 순천 송광사 내 요사채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사적 「순천 송광사」 내(감로암 권역)에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순천 송광사 감로암 권역 내(문화재구역)에 요사채 1동을 신축하고 요사채 배면에 석축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송광사(사적 / 2009.12.21. 지정)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3) 신청내용<요사채 신축 등>
 - 위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요사채 신축
 - 건축면적 80.19㎡정면 3칸, 측면 3칸(ㄱ자 평면), 익공식 5량가, H=6.39m
 - 석축 배수로 정비
 - L=10.0m, 석축 H=0.65m, 배수로 B×H= 0.3m×0.3m
 - ※ '21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480백만원)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와 협의하여 위치 조정 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1-06-015

1. 부산 기장읍성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부산 기장읍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 기장읍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기장읍성(釜山 機張邑城,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0호, 1996.5.25.지정)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동부리, 서부리 일원

(3) 지정 명칭 : 부산 기장읍성(釜山 機張邑城)

(4) 지정 범위 : 문화재보호구역 185필지 29,093㎡(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관리단체(안) : 부산광역시 기장군

(6) 신청사유

- 부산 기장읍성은 세종 7년(1425년/ '축성신도' 반포 전)에 고려 때 흙으로 쌓은 고읍성을 폐기하고 새 터에 돌로 쌓은 전기 연해읍성으로, 성곽유적이 전체위곽의 3/4이상 걸쳐 1~4m 높이로 남아 있는 등 잔존상태가 양호함.
 - 남쪽 성곽의 확대 등 몇 차례 수축으로 세워쌓기와 가로 쌓기, 계단식 쌓기와 사직선 쌓기 등 시기별 다양한 축조방법을 볼 수 있어, 조선시대 전기 연해읍성에 대한 성곽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음.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발굴조사 현황

연도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성과
2005	기장서부리 도로개설구간 내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건물지
2010	기장읍성 정비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동양문물연구원	동문지/옹성/적대 /남동내벽
2012	기장 장관청 진입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기장초등학교 증개축 부지내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한국문물연구원	동벽 기초 북벽/객사/사창지
2018	기장읍성 남벽 및 남서쪽 외곽 유적	울산문화재단	남문지/옹성/해자
	서부리 85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내 유적	한국문화재단	향청 및 서벽 기초
2019	기장읍성 남서벽내벽부 문화재 시굴조사	시공문화재연구원	남서벽축성법
2020	기장읍성 남동벽 일원 문화재 시굴조사 기장읍성 해자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시공문화재연구원 가야문물연구원	해자 외벽부 성우/해자
2021	기장읍성 서벽 일원 발굴조사 기장읍성 남서벽내벽부 발굴조사	가야문물연구원 시공문화재연구원	성벽구조/해자 성벽구조

○ 학술대회 : 문물자료를 통해 본 기장읍성의 역사적 정체성(한국성곽학회, 2019.)

○ 부산 기장읍성 사적지정 신청서 제출 (2020.1.13.)

○ 사적지정신청 자료보완 요청(2020.2.6.) 및 보완제출(2020.4.29.)

○ 현지조사 실시(2021.3.26.)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2)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19.09.26.) : 사적 지정 신청 원안 가결

(3) 현지조사의견('20.03.26./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부산 기장읍성을 국가 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현지 조사를 한 내용임

○ 현지조사에서 검토한 바, 지정신청 상에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른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경계 설정시 추정지에 대한 지표 조사, 시굴조사, 육안 확인 가능성 등 객관성 확보 필요.

○ 읍성의 사적 신청 가치기준에 있어 성곽 자체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자연

지리적 특성, 읍성이 지니는 도시계획상 역할 및 기능적 가치, 연안 읍성의 특성상 수군진과의 관계성 및 주변 봉수유적 등과의 관계성 등 다각적 접근 필요함. 이를 규명하기 위해 학술세미나 등으로 학술적 가치 보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읍성 내 객사 등 건물지 위치, 우물지, 수구문 위치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읍성 내부 관리 관리계획 수립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기장읍성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에 대한 학술성과 등 자료보완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보류 12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1.3.26(금)	대상 문화재	부산 기장읍성(釜山 機張邑城)	
조 사 자	성 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한국사	○○○학교	명예교수
	○○○	도시설계	○○대학교	교수
	○○○	고고학	○○박물관	팀장
	○○○	건축사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부산 기장읍성(釜山 機張邑城)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 보호구역 >		
보 호 관 리 사 항 검 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2021년 3월 26일 제출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문화재청장 귀하 </div>				

부산 기장읍성(釜山 機張邑城)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1.3.26(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문화재전문위원 ○○○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부산 기장읍성(釜山 機張邑城)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부산 기장읍성(釜山 機張邑城)으로 신청되었으며, 문화재 명칭 부여 원칙에 의하면 지역+ 문화재명을 고려할 때 “부산 기장읍성(釜山 機張邑城)”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세종 7년(1425) 고려 때의 토축 고읍성을 폐기하고 지금의 기장읍 서부리 일원에 둘레 3,197척, 높이 12척 규모로 새로 쌓은 석축 읍성이다. 성종 연간에 남쪽 위곽을 확대, 증축했고, 임진왜란 이후 몇 차례 수축했다. 전체 위곽의 2/3 정도인 670m에 걸쳐 1~4m 높이로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최근 발굴조사로 체성, 옹성, 성문, 해자, 적대 등의 규모와 축조수법이 전기 연해읍성의 전형으로 확인되는 등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으로 평가됨.

부산광역시기념물로 지정(1996. 5. 25) 이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체성 안팎으로 평균 34m 폭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다시 500m 범위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1~4구역을 설정해서 문화재와 주변 경관을 보호,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기장군은 복원·정비계획 수립에 이어 소요 부지의 대부분을 매입한 상태이다. 다만 장기간 방치된 데다 주민들의 경작행위로 유구의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사적으로 지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최근까지 기장읍성지의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은 29,093㎡이며, 보호구역에 속하거나 걸쳐 있는 토지는 총 185필지, 면적 51,360㎡이다. 그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국가기관 소유인 국공유지는 154필지로 전체의 84.9%이다. 향후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은 아직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매입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서 조만간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전체 토지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996년 5월 25일자로 부산광역시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된 이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주변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최대 500m까지 1, 2, 3, 3-1, 4구역으로 설정되어 구역별로 엄격한 건축제한이 실시되고 있다. 즉, 1구역은 개별 심의(원지형 보존을 원칙), 2구역은 최고높이 5m 이하(경사지붕 5m 이하), 3구역은 최고높이 5m 이하(경사지붕 5m

이하), 3-1구역은 최고높이 5m 이하(경사지붕 5m 이하), 그리고 4구역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기장읍성은 <축성신도> 반포 전인 세종 7년(1425)에 처음 축조된 전기 연해읍성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 기장군 기장읍 교리 일원에 잔존하는 고읍성에서 이전된 것을 감안하면 그 연원은 고려 초까지 소급된다. 각종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려 현종 2년(1011) : 기장에 성을 쌓다.
- 고려 공양왕 3년(1391) 3월 : 기장군과 해주, 웅진에 성을 쌓다.
- 고려 신우 2년(1376) : 왜적이 진주 명진현을 침범하고 또 함안, 동래, 양주, 언양, 기장, 고성, 영선 등을 불사르며 노략질하고, 또 그해 10월에 왜적이 합포영을 불사르고, 양주와 울주 두 고을과 의창, 회원, 함안, 진해, 고성, 반성, 동평, 동래, 기장 등을 도륙하고 불사르다.
- 고려 신우 5년(1397) : 적이 울주에 머무르면서 벼와 기장을 베어 양식을 삼고, 기장, 언양까지 침노하여 땅을 쓴 듯이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되다.
- 조선 태조 5년(1396) 8월 9일 : 왜적의 배 120척이 경상도에 입구(入寇)하여 병선 16척을 탈취해 가고, 수군만호 이춘수를 죽이고, 동래·기장·동평성을 함락하다.
- 조선 태종 11년(1411) 7월 15일 : 기장을 비롯한 경상도의 연해변 주·군의 수령은 모두 문무를 겸비한 자를 택하여 차견토록 하다.
- 조선 태종 15년(1415) 12월 7일 : 기장, 고성, 하동, 장기의 수령을 지현사로 삼아 4품 이상으로 제수토록 하다.
- 조선 세종 3년(1421) 9월 16일 : 경상도 관찰사로부터 기장현 성 안에 우물물이 없으므로 현아를 박곡리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 조선 세종 7년(1425) : 돌로 쌓았는데, 둘레 1,527척, 높이가 15척, 군창이 있고, 우물 1곳, 연못 2곳이 있는데, 가뭄 때는 마른다고 하다.
- 조선 문종 1년(1451) 9월 5일 : 충청전라경상도도체찰사 정분의 계문에, 기장현 읍성은 주위가 1,527척, 높이가 11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가 6개소, 문이 3곳인데 웅성이 있으며, 여장이 3백 83개이고, 성안에 우물이 1곳인데 판 깊이가 20척이고 물의 깊이는 1척이며, 성 밖의 방천에서 성을 뚫고 물을 끌어들이며 못을 만들어 저수하였는데 깊이는 1척이며, 해자는 아직 파지 않았다고 보고하다.
- 조선 세종연간~문종연간 : 북벽 구간에 대해서 2차례 정도 수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2년의 기장초등학교 개축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때 확인되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의 사진자료에서 <축성신도>(1438)에서 규정한 계단식 내탁부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 조선 성종연간 : 남쪽 위곽의 확대를 위해 남벽을 전면으로 약 126m 진출시켜 새로 쌓고, 해자로 이용되던 기존 자연하천 대신 새로 쌓은 남벽 전면 10m 거리에

새로 해자를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8년의 남북 외곽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체성부를 자연대석을 세워쌓기와 늪혀쌓기를 혼용한 입수적 쌓기 했고, 기단 수평화공법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점으로 전·후의 문헌에서 둘레를 다르게 기록한 데다 김일손의 「기장현관기」(1490)에 성종 19년(1488)을 전후해서 객관 일곽의 대대적인 개축한 사실을 기록한 데서 추정이 가능하다.

- 조선 선조 25년(1492) : 임진왜란 발발 초에 왜군 제2군 가토 기요마사에 의해 동래읍성에 이어 함락되다. 당시 성을 지키던 현감 이용준이 앞장서 도망치는 바람에 이렇다 할 전투 없이 적군 수중에 떨어졌으나, 이후 지역민 최개동을 비롯한 의병들이 수 차례의 전투로 뺏고 뺏기기를 거듭함에 따라 성곽과 관아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조선 선조 28년(1595) : 왜군들이 장기간 주둔할 요량으로 이곳에서 동쪽 2.8km 떨어진 조선 수군진의 하나였던 옛 두모포진 근처의 죽성리에 왜성을 쌓기 위해 기장읍성의 성돌을 절반 이상 빼내갔다고 한다. 이에 따라 크게 파괴되었으나 일시 조선군에 의해 수복되었다.
- 조선 선조 30년(1597) : 정유재란 발발로 다시 왜군에 의해 함락되다.
- 조선 효종 3년(1652) : 경상감사 조계원의 치계로 예전에 폐현되어 울산군에 합속되었던 하미면을 원래대로 회복됨에 따라 현감이 파견되었으며, 관아시설도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 따라서 읍성도 임시방편으로나마 수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조선 영조 29년(1753) : 기장현감 김건이 부임해서 객사와 동헌 등의 관아시설을 복구했다 하므로 읍성도 위곽이나 규모의 변화 없이 소략한 정도로 수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체성부 곳곳의 V자형으로 잔돌을 메워서 보축한 것이다.
- 조선 정조 7년(1783) : 기장현감 이경렬이 객사를 중건했는데, 당시 읍성도 일부 수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체성부 곳곳의 V자형으로 잔돌을 메워서 보축한 것이다.
- 조선 고종 4년(1867) : 대원군 집권기에 국방 강화를 위해 전국 성곽을 수축할 때 기장읍성도 수축했을 것이다. 당시 암행어사 성이호(1817~1895) 등의 보고에 동래읍성을 비롯한 각급 읍성, 좌병영과 좌수영, 진과 보에 이르기까지 무비정비 성과가 기록되고, 또한 이를 근거로 상벌했기 때문이다. 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단에 잔돌로 보축한 것이나 내부의 적심석으로 사용되는 돌로 외벽을 V자형으로 메꾼 부분이 그때 보축한 것이다.
- 고종 31년(1894) : 전국의 모든 읍성과 마찬가지로 갑오개혁으로 혁파되고, 특히 1907년의 군대해산령으로 각종 방어시설과 무기류까지 폐기되기에 이른다.

□ 문화재의 특성

- 기장읍성은 세종 7년(1425) 지금의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서부리, 대라리 일원에 쌓은 석축 성곽이다. 고려 때부터 사용하던 기존의 토축 고읍성이 왜구를 막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이를 폐기하고 새 위치로 옮겨 쌓았다. 당시는 국초부터

추진된 연해읍성 축성사업이 시작되던 때로, 기장읍성은 하동읍성(1417)이나 진해읍성(1417)과 함께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 조선시대 읍성의 선구적인 축조기법 뿐 아니라 이후 수축 시기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초축 때의 원형이 잘 남아 있고, 시기별 변화상을 고루 보여주는 등 조선시대 읍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 기장읍성 유적은 여느 읍성들에 비해서 넓은 범위에 걸쳐 양호한 상태로 잔존한다. 전체 둘레는 최근 계측으로 약 1km 정도이다. 이 수치는 성종연간의 남쪽 위곽 확대로 형성된 둘레 3,127척(영조척, 약 981.5m)과 거의 일치한다. 그 중에서 지표 위로 흔적을 보이는 체성부는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약 670m이며, 높이는 1.0~4.0m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동문과 동문옹성, 동성적대, 남문과 남문옹성, 서문과 암문 및 남문 해자 등 성곽시설들도 잘 남아 있다. 또 성내에는 조선시대 속오군 지휘관인 장관들의 집무처였던 기장장관청(부산광역시유형문화재 제153호)이 동래장관청과 함께 전국에서 유이(有二)하게 남아 있다.
- 최근 10여 차례의 조사로 기장읍성의 축조기법이 상세하게 규명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초축 때의 유적인 동문지 등의 기단부나 체성부에서 확인된 고려 판축토성의 기법이다. 고식의 사직선기단과 긴 장방형의 자연대석 넓혀쌓기 및 경사 내탁부 등 1차 축성기 축조기법의 전형적인 특성들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 18년(1434) 병조판서 최윤덕이 읍성을 석축으로 쌓도록 건의하기 11년이나 앞서 석축으로 축조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본격적인 읍성 석축화의 시행에 앞서 추진된 시범적 선구로서 그 의미가 크다.
- 기장읍성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이후 수축 때의 구간별로 다양한 축조기법을 보여주는 점이다. 먼저 2012년의 북벽에 대한 조사에서는 <축성신도>(1438) 반포 직후로 추정되는 시기에 2차례 정도 수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구간은 일제강점 초기부터 성터 위에 기장초등학교 교사가 자리 잡은 탓에 성토된 지반 아래 유적이 묻혀 있었는데, 조사에서 내, 외벽 간의 너비 7.5m, 높이 1.8m에 4단 정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기저부의 너비 16척(7.5m) 위로 내, 외벽을 쌓은 후 내탁부를 돌로 계단식으로 쌓도록 한 <축성신도>의 규식과 일치한다. 실제로 객사 일곽의 뒤편을 촬영한 1910년대의 사진에서 이러한 계단식 내탁부의 모습이 보인다. <축성신도> 반포 이후 어느 시점에 북벽에 대한 수축이 이뤄졌고, 이때 계단식 내탁부를 <축성신도>의 규식에 따라 축조한 것이다.
- 기장읍성은 성종연간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남쪽 위곽을 전면 146m까지 진출시키면서 남성과 남문, 남옹성, 적대 4소를 옮겨 새로 쌓게 된다. 최근 발굴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남문지 좌, 우로 길이 약 100m, 높이 1~1.8m에 1~3단의 외벽이 남아 있는데, 동성 등 여타 구간의 체성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지대석의 경우 비교적 작은 돌들을 사용하고, 외벽 면적은 2단 정도까지는 비교적 큰 자연석을 넓혀쌓기(평적)와 세워쌓기(수적)를 혼용했다. 지대석은 지반의 고저에 따라 계단

식으로 수평으로 쌓는 기단수평화공법을 보여준다. 동벽이나 북벽에서 확인되는 평적이나 사직선기단 및 계단식 내탁부보다 후대의 축조기법으로, 2차 축조된 남해안 연해읍성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초축 이후 60~70년이 지날 무렵의 축조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2012년의 동문과 동문옹성, 적대에 대한 조사에 이어 2016년의 북쪽 체성 및 2018년의 남문과 남문옹성, 남쪽 체성 및 해자 등 각종 성곽시설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로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동문지는 폭 3.5m에 잔존높이 2.3m로 밖이 안보다 약간 넓은 사다리꼴로 문을 여닫는 둔대석(확돌)이 확인되었으며, 동문옹성은 반원형의 편문식으로 체성에 덧대어 축조되었는데, 전기 연해읍성들 중에서 규모가 크고, 축조수법이 대단히 정교하다. 특히 2018년의 남문지와 남문옹성, 체성, 해자의 조사에서 기저부의 기단보축이라든지 지형경사에 맞춰 지대석을 계단식으로 쌓는 기단수평화공법도 확인되었다. 또 남문옹성은 반원형의 편문식으로 체성과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기저부 조성 후 잘 치석한 판석으로 기단보축을 하는 등 여느 연해읍성에 비해서 대단히 정교한 수법을 보여준다.
- 2018년 조사 때 그간 도로와 경작지에 묻혀있던 해자의 면모도 완연하게 확인되었다. 성종연간에 남쪽 위곽을 확대하면서 남성을 개축할 때 새로 쌓은 것으로, 초축 당시는 남벽 앞으로 흐르는 방천이 자연해자로 사용되다가 이때 남벽을 전면으로 진출해서 쌓고 그 앞 10m 거리에 폭 4.8~5m 정도로 판 것이다. 이러한 규식은 척계광의 『기효신서』나 유형원의 『반계수록』에서 규정한 외벽으로부터의 거리 4장(40척=8~10m), 너비 2장(20척=4~5m)의 규식과 거의 일치한다. 조선 후기 성곽 축조 때 통용되던 해자의 선구적인 사례로 그 표준적인 규식을 잘 보여준다.
- 주지하듯이 읍성은 평시에는 치소를 보호하고, 전시에는 적과의 공성전에 대비한 방어거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려 때까지의 읍성은 산을 등지고 계곡부에 자리 잡은 이른바 포곡식 성곽이 대부분이었다. 기장읍성의 전신인 기장고읍성이 그런 예로, 성내 공간은 평지가 적고 우물도 부족해서 군사들이 장기간 주둔하기 어렵고 더욱이 상거민을 수용할 수도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 유형원 등이 상거민의 대거 수용이 가능하도록 평지읍성의 위곽을 넓혀서 전시에 군관민이 함께 방어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민책(保民策)이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세종 7년(1425) 산 계곡부에서 평지로의 읍성 이전과 성종연간의 남쪽 위곽 확대는 주목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대한제국기의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1904)에 적힌 성내·외 공간의 건물 호수는 127호에 367칸에 달한다. 보민정신에 입각해서 많은 수의 상거민을 수용했던 읍성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 기장읍성 성내 공간은 일제강점기부터 가장 먼저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가로망이나 필지 형태는 옛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고, 관아시설의 터도 확연하다. 일찍

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 데다 성곽 안팎의 토지를 기장군이 대거 매입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객사와 동헌 터는 일제강점기부터 기장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지만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2018년의 향청 터에 대한 조사에서 석축과 초석, 암거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동래장관청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한 속오군 건물인 장관청(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53호)은 2014년의 복원·정비를 거쳐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 기장읍성에 대한 문헌자료는 여느 읍성에 비해서 풍부한 편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물론이고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454) 등의 지리지, <해동지도>(1750년대), <여지도서>(1757) 등의 고지도, 그리고 『기장현읍지』(1839) 등 6종의 읍지류 등에서 대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종연간의 수축 사실을 짐작케 하는 김일손의 「기장현관기」(1490)를 비롯해서 임진왜란 직후 동래부사로 부임한 이안눌(1571~1637)이 이곳을 순시할 때 지은 <기장현에서 짓다(機張縣作)>등 기장읍성의 상황을 알게 해주는 제영이 많이 남아 있다.
- 특히 고을 이름과 관련해서 동헌 정문이었던 직금루와 객사에 딸린 청사루라는 두 관영누각의 존재가 주목된다. 각기 ‘비단을 짠다’와 ‘베틀 북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으로 ‘비단짜는 베틀’이란 ‘기장’에서 따온 것이다. 특히 현종이 임진왜란 때 명군 장수로 공을 세운 마귀(麻貴)의 9세손 마시가(麻時可)를 기장현감으로 임명하면서 삼은 여름 비단이란 뜻으로 하백이란 이름을 내리고, 비단에는 베틀이 제격이라면서 파견한 사실이다. 후대의 신문에서도 직금과 청사 2루가 있으니 군명이 기장인 까닭에 베틀 부속품으로 누각을 명명했는데, 현종조에 마하백으로 군수를 임명한 것이 천고의 기우라 했다. 길쌈은 농사와 함께 백성의 풍요를 상징하는 향토성 짙은 명칭과 임진왜란 때 전공을 기렸던 호국정신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기장군이 두 누각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기장읍성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한층 고양되기 충분하다고 본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역사적 가치

○ 전기 연해읍성의 시원

기장읍성은 세종 7년(1425)에 기존의 토축 고읍성이 왜구를 막는 데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폐기하고 지금 위치로 옮겨 새로 쌓은 석축 읍성이다. 조선왕조는 출범 직후부터 연해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성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동남해안지역은 예로부터 왜구의 침탈에 시달렸던 탓에 연해읍성들부터 먼저 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세종 11년(1429) 병조판서 최윤덕이 도순무사가 되어 하삼도의 연변읍성의 편부를 순심토록 했다. 주목되는 것은 흙과 잡석을 섞어 쌓았거나 우물과 샘이 없는 기존 읍성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 16년(1434) 고려 때의 토축 대신 석축으로 쌓도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여러 연해읍성들

이 축조되면서 아울러 석축화도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기장읍성은 최윤덕이 연변 고을을 순심하고, 이어서 석축화를 건의하기 9년 전에 축조되었다. 『세종실록』 세종 3년(1421) 9월 16일 병자조에 ‘경상도관찰사로부터 기장현 성 안에 우물물이 없으므로 현아를 박곡리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우물과 샘이 없는 기존 고려 때의 토축 읍성을 폐기하고 새 터로 옮겨서 석축으로 쌓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종연간 최윤덕이 주도한 본격적인 연해읍성 축성에 앞서 석축 읍성을 축조한 배경이 주목된다. 태조 5년(1396) 왜구에 의해 성이 함락되어 서둘러 읍성을 정비해야 했다. 여기에다 태종 7년(1407)에 내이포와 함께 인근의 부산포(내이포와 함께)에 왜관을 설치함에 따라 왜인들의 통제를 위한 군사들의 주둔처가 필요했을 것이다. 태종 15년(1415)부터 현감을 지현사로 삼아 4품 이상으로 제수하고, 읍성도 새로 축조한 것이다.

이처럼 가장 먼저 축조된 만큼 이후의 개선안 마련에 모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세종 11년(1429) 최윤덕의 계문에, ‘하삼도에서 방어가 가장 긴요한 연변 고을은 산성을 없애고 읍성을 쌓도록 하며, 쓸 만한 옛 읍성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새 터를 가려 신축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산지를 낀 포곡성(包谷城)이었던 고려 때의 토축 고읍성을 폐기하고 평지의 새 터에 석축으로 다시 쌓은 기장읍성의 경우와 하등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장읍성은 조선왕조 출범 직후의 이른바 전기 연해읍성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만큼 이후의 본격적인 축성사업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조선시대 연해읍성 축성사업의 시발점이자 선구적 사례로서 가치가 크다.

○ 관방성으로서의 역할

조선시대 읍성들은 치소성(治所城)으로, 지방행정관의 집무처인 관아시설의 보호가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연해읍성들은 왜구의 침입에도 대비해야 했으므로 관방성(關防城)의 역할도 겸했다. 그런 점에서 기장읍성은 세종연간의 축성 배경에서도 보듯이 관방성의 역할도 겸하도록 축조되었다. 조선 초기의 연해읍성은 육수군과 기선군을 함께 운영해야 했는데, 기선군(수군)은 선상 방어가 기본 전략이어서 요해처인 선소에 전선이나 병선을 정박시키도록 했다. 기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읍지류에는 ‘선소는 현의 남쪽 8리 떨어진 무지포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의 읍성에서 남쪽 2.4 km 거리의 기장읍 대라리 일원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조선시대 연해읍성의 전형적 요소를 잘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기장읍성은 평지성으로 평면형태는 남-북 약 44m, 동-서 약 260m의 장방형으로, 남벽과 동, 서벽이 만나는 좌, 우 모서리가 직각을 이루고, 여타 구간은 곡선을 이룬다. 가장 높은 곳은 북벽(해발 39m) 위치이며, 가장 낮은 곳은 동, 남벽이 만나는 우각부(해발 21m)로 객사나 동헌에 좌, 우 및 전면으로의 조망이 원활하다. 관방성으로서 적군의 접근을 요망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성문과 옹성, 적대는 모두 바다를 향해서 지표면이 낮아지는 남벽과 동벽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왜군의 상륙 예상지인 동쪽의 죽성리와 대변포, 연화리 등에서 읍성으로의 진격로에 맞춘 것이다.

실제로 선조 25년(1592) 4월 13일 부산 앞바다로 진출한 왜군은 다음날 부산성에 이어 동래성을 함락한 후 곧장 이 길을 따라 기장으로 향했다. 당시 기장은 좌로에 위치했는데, 제2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 의해 기장읍성은 이렇다 할 전투 없이 함락되었다. 당시 왜군과의 전투는 잘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기장읍지』(2005) 등에는 함락된 지 얼마 후 지역민들인 정팔동, 최개동, 오춘수 등이 의병을 조직해서 왜군과의 혈전 끝에 뺏고 뺏기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조실록』에는 선조 28년(1595) 12월 2일 무렵 왜군들이 부산과 울산 일대로 남하해서 장기 주둔할 요량으로 기장읍성의 성들을 반수 이상 뽑아내서 옛 두모포진 근처 죽성리에 왜성을 쌓았다 하고, 2년 후의 정유재란 때 재차 함락되었다고 했다. 기장읍성은 임진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투현장이다.

○ 풍부한 관련 유적과 기록

기장읍성 성내 공간은 일제강점기부터 가장 일찍이 개발된 원도심이지만 가로망과 필지 형태는 옛날 그대로이다. 객사와 동헌 터는 일제강점기부터 기장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사용되며, 2018년의 향청 터에 대한 조사에서는 석축과 초석, 암거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속오군 지휘 군교들의 집무처인 장관청(부산광역시유형문화재 제153호)은 2014년의 복원·정비를 거쳐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인근의 동래장관청(부산광역시유형문화재 제8호)을 제외하면 전국 유일의 군사용 건축문화재로 희소적 가치가 크다. 뿐만 아니라 기장지역은 1919년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곳으로, 성내 동부리 197번지의 오형근 생가를 비롯해서 7필지에 근대한옥들이 남아 있다. 이 밖에 연변봉수로 제2거에 속한 7개 간봉 중의 하나인 남산봉수와 아이봉수, 선소 유적 등의 관방유적들도 잘 남아 있다.

기장읍성은 초축 이래의 수축 연혁과 이후의 변화상에 대한 문헌기록도 풍부하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서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454) 등의 지리지, <해동지도>(1750년대), <여지도서>(1757) 등의 고지도, 『기장현읍지』(1839) 등 읍지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종연간 김일손의 「기장현관기」(1490)를 비롯해서 임진왜란 직후 동래부사로 부임한 이안눌(1571~1637)을 비롯한 많은 명사의 제영에서 당시 읍성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장의 향토성을 대변하는 직금루(織錦樓)와 청사루(廳梭樓)라는 두 관영누각에 대한 기록이다. 각기 ‘비단을 짠다’와 ‘베틀 북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으로 ‘비단짜는 베틀’이란 ‘기장’에서 따온 것이다. 그런데 현종이 임진왜란 때 명군 마귀(麻貴) 장군의 9세손 마시가(麻時可)를 이곳 현감으로 임명하면서 삼은 여름 비단이란 뜻으로 하백이란 이름을 내리고, 비단에는 베틀이 제격이라면서 파견한 일을 『현종실록』에 적고 있다. <황성신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이는데, 직금

과 청사 2루가 있으니 군명이 기장인 까닭에 베틀 부속품으로 누각을 명명했는데, 현종조에 마하백으로 군수를 임명한 것이 천고의 기우라 했다. 길쌈은 농사와 함께 백성의 풍요를 상징하는 향토성 짙은 명칭과 임진왜란 때 전공을 기렸던 호국정신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기장군이 두 누각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기장읍성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한층 고양되기 충분하다고 본다.

2) 학술적 가치

○ 양호한 잔존 유적과 역사경관

기장읍성이 위치한 공간은 기장군 일원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도시화가 이루어진 원도심이다. 그럼에도 성곽유적은 넓은 범위에 걸쳐 남아 있다. 고밀화된 상업지역의 고층건물들로 인해 유적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여느 읍성들과 달리 잔존상태도 양호하다. 초축 위곽의 둘레 1,527척(포백척, 약 700m)을 형성하던 남벽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성종연간의 남쪽 위곽의 확대로 형성된 둘레 3,127척(영조척, 약 981.5m) 중에서 2/3 정도인 670m의 체성이 1.0~4.0m 높이로 남아 있고, 여타 구간에서는 지표면 아래에 하부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 기장읍성은 치소성과 관방성의 기능을 겸하도록 축조된 전기 연해읍성의 선구적 사례로서 성곽사적으로 가치가 대단히 크다.

최근까지 수차례의 발굴조사로 동문과 동문옹성, 동성적대, 남문과 남문옹성, 서문과 암문 및 남문 해자 등 주요 시설들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전체 위곽에 걸쳐 체성부와 주요 방어시설의 형식과 구조 등이 밝혀짐으로써 그간 피상적인 추정에서 멈춰있던 전기 연해읍성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역사문화환경도 제대로 보존·관리된 탓에 유적에 대한 인위적 훼손이 전무하고, 유적 안팎에서의 조망권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 또 성내에는 동래장관청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한 군영시설인 장관청(부산광역시유형문화재 제153호)이 2014년의 복원·정비되어 옛 모습을 잘 보여준다. 조선 후기 속오군을 지휘하던 군교들의 집무처인 장관청과 읍성이 하나의 역사경관을 이루고 있다. 연해읍성의 공간구조와 그 변화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시기별 축조기법과 양상

기장읍성에 대한 그간의 학술조사에서 가장 괄목할 성과는 세종 7년(1425)의 초축부터 고종연간 대원군에 의한 수축까지 시기별로 다양한 축조기법을 보여주는 점이다. 이는 조선 초기 연해지역 읍성들에 대한 축성이 본격화되기 전에 축조되고, 이후 여러 차례 수·개축 때의 축조기법과 성곽형식이 적용된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초축 때의 유적인 동문지 등의 기단부나 체성부는 고려 때의 관축토성 축조기법을 보여준다. 고식의 사직선기단과 긴 장방형의 자연대석 눕혀쌓기 및 경사 내탁부 등 1차 축성기 축조기법의 전형적인 특성들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 18년(1434) 병조판서 최윤덕이 읍성을 석축으로 쌓도록 건의하기 11년이나 앞서 석축으로 축조된 때문이다. 본격적인 읍성 석축화의 시행에 앞서 추진된 선구적 사례로서 성곽사

적으로 가치가 크다.

기장읍성 북벽은 2012년의 조사에서 <축성신도>(1438) 반포 직후 2차례 정도 수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제강점 초기부터 기장초등학교 교사가 자리 잡은 구간으로, 내, 외벽 간의 너비 7.5m, 높이 1.8m에 4단 정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기저부의 너비 16척(7.5m) 위로 내, 외벽을 쌓은 후 내탁부를 돌로 계단식으로 쌓도록 한 <축성신도>의 규식과 일치한다. 실제로 객사 일곽의 뒤편을 촬영한 1910년대의 사진에서 이러한 계단식 내탁부의 모습과 일치한다. <축성신도> 반포 직후의 수축에 의한 계단식 내탁부를 보여주는 대단히 드문 사례로 축성방식의 변화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특히 2018년 조사로 성종연간에 남쪽 위곽의 확대를 위해 남벽 전면으로 146m까지 진출시켜 체성과 남문, 남문옹성, 적대 4소를 새로 쌓은 사실과 함께 동벽이나 북벽과는 다른 축조기법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잔존 길이 약 100m, 높이 1~1.8m에 1~3단의 외벽에서 확인되는 자연대석 눕혀쌓기(평적)와 세워쌓기(수적)의 혼용이라든지 지대석을 지반 고저에 따라 계단식으로 수평으로 쌓는 기단수평화공법 및 토사로 경사지게 다지는 내탁부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 25년(1443) 겸성군주부 이보흠의 <축성신도>에 대한 개선안과 유사하다. 2차 축성기의 연해읍성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성종연간의 위곽 확대의 배경과 함께 초축 이후 축조기법의 변화상을 잘 보여준다.

한편 2018년 조사에서 해자의 축조형식과 구조도 확인되었다. 초축 때의 해자는 남벽 앞의 방천을 자연해자로 사용했는데, 이는 『문종실록』에 실린 삼도도체찰사 정분의 계문과 일치한다. 이후 성종연간에 남쪽 위곽을 확대하면서 남벽 전면 10m 띄워서 외벽과 평행하게 4.8~5m 정도로 판 것이다. 이는 명나라 장군 척계광의 『기효신서』나 유형원의 『반계수록』에서 규정한 외벽으로부터의 거리 4장(40척=8~10m), 너비 2장(20척=4~5m)의 규식과 거의 다르지 않다. 조선시대 읍성 해자의 규식이 성종연간의 기장읍성 축조 때 이미 통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성곽 방어시설의 형식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지정면적: 185필지 / 29,093㎡

연번	동명	지번	지목	지적 (㎡)	보호구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대라리	454-1	대	331	331		
2	"	457	대	79	79		
3	"	458-1	대	152	152		
4	"	458-2	대	212	212		
5	"	460	대	112	112		
6	"	460-1	대	7	7		

연번	동명	지번	지목	지적 (㎡)	보호구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7	"	460-2	대	13	13		
8	"	461	대	126	126		
9	"	463	대	33	33		
10	"	465	대	231	231		
11	"	470-1	대	245	245		
12	"	471	대	159	159		
13	"	471-1	대	40	40		
14	"	472	대	340	340		
15	"	472-1	대	89	89		
16	"	473	대	456	456		
17	"	476	대	212	212		
18	"	476-1	대	53	53		
19	"	476-2	대	13	13		
20	"	477	대	162	162		
21	"	478	대	377	377		
22	"	478-1	층	26	26		
23	"	478-2	대	86	86		
24	"	480	대	83	83		
25	"	481	대	116	116		
26	"	482	대	136	136		
27	"	482-1	대	106	106		
28	"	482-2	도	26	26		
29	"	484-1	대	245	245		
30	"	484-2	대	53	53		
31	"	485	대	46	46		
32	"	486	대	258	258		
33	"	487	대	384	384		
34	"	487-1	대	9	9		
35	"	488	대	281	281		
36	"	489	대	155	155		
37	"	785	도	26	26		
38	"	786	도	13	13		
39	대라리	787	도	10	10		
40	동부리	224-1	대	66	66		
41	"	257	대	205	205		
42	"	258	대	76	76		
43	"	258-1	대	106	106		
44	"	259	대	72	72		
45	"	259-1	대	83	83		
46	"	260-1	대	347	347		
47	"	261-1	대	731	246		
48	"	281-2	임	32	32		

연번	동명	지번	지목	지적 (㎡)	보호구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49	"	282	전	98	98		
50	"	285-1	전	86	86		
51	"	285-2	전	34	34		
52	"	285-3	전	14	14		
53	"	285-7	전	339	339		
54	"	285-8	전	28	28		
55	"	286	전	16	16		
56	"	286-2	전	261	261		
57	"	287	전	16	16		
58	"	287-2	전	13	13		
59	"	287-3	전	156	156		
60	"	288-1	대	83	83		
61	"	288-2	대	69	69		
62	"	289	대	52	52		
63	"	289-1	대	21	21		
64	"	289-2	대	59	59		
65	"	289-3	대	57	57		
66	"	289-4	대	48	48		
67	"	289-5	대	27	27		
68	"	290	대	258	258		
69	"	290-1	대	83	83		
70	"	292	대	660	660		
71	"	292-1	대	291	291		
72	"	293	대	281	281		
73	"	293-1	대	102	102		
74	"	309	대	403	403		
75	"	309-1	대	119	119		
76	"	310	대	96	96		
77	"	310-1	대	215	215		
78	동부리	311	대	86	86		
79	"	311-1	대	298	298		
80	"	312	대	168	168		
81	"	312-1	대	127	127		
82	"	313	전	103	103		
83	"	313-2	전	21	21		
84	"	313-3	전	114	114		
85	"	320	학	17,190	490		
86	"	324	대	196	196		
87	"	324-1	대	381	381		
88	"	325	대	30	30		
89	"	325-1	대	30	30		
90	"	325-2	대	157	157		

연번	동명	지번	지목	지적 (㎡)	보호구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91	"	325-5	대	134	134		
92	"	326	대	377	377		
93	"	327	대	202	202		
94	"	328-1	중	69	69		
95	"	329	대	380	380		
96	"	496	도	216	216		
97	"	496-2	도	545	309		
98	"	496-11	도	1,881	11		
99	서부리	80	대	225	225		
100	"	81-1	대	129	129		
101	"	82	대	228	228		
102	"	82-1	대	36	36		
103	"	84-3	대	515	515		
104	"	97-2	대	185	185		
105	"	99	대	149	149		
106	"	100-3	대	91	91		
107	"	100-4	대	194	194		
108	"	100-10	도	12	12		
109	"	100-11	답	233	233		
110	"	103	답	13	13		
111	"	103-2	답	11	11		
112	"	104-1	답	280	280		
113	"	104-4	답	31	31		
114	"	104-7	답	20	20		
115	"	104-8	답	10	10		
116	서부리	109	답	1,121	1,121		
117	"	109-2	답	20	20		
118	"	110	전	139	139		
119	"	112	대	136	136		
120	"	115	대	556	556		
121	"	115-1	대	76	76		
122	"	116-1	대	73	73		
123	"	117	전	892	892		
124	"	117-1	전	89	89		
125	"	119	대	245	245		
126	"	119-1	대	69	69		
127	"	120	대	360	360		
128	"	120-1	대	53	53		
129	"	124	전	157	157		
130	"	124-1	전	13	13		
131	"	124-2	전	101	101		
132	"	124-3	전	327	327		

연번	동명	지번	지목	지적 (m ²)	보호구역 면적(m ²)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33	"	125	대	95	95		
134	"	125-1	대	74	74		
135	"	126	전	63	63		
136	"	172	대	188	188		
137	"	173	대	23	23		
138	"	174	대	99	99		
139	"	175	대	169	169		
140	"	176	전	162	162		
141	"	177	대	425	425		
142	"	177-1	대	79	79		
143	"	177-2	전	188	188		
144	"	177-4	대	51	51		
145	"	178	대	46	46		
146	"	179	대	182	182		
147	"	179-1	전	86	86		
148	"	179-2	대	102	102		
149	"	180-1	대	136	136		
150	"	180-2	전	136	136		
151	"	180-3	전	109	109		
152	"	181	대	213	213		
153	"	181-2	전	167	167		
154	"	181-3	도	16	16		
155	"	182	대	228	228		
156	서부리	182-1	대	122	122		
157	"	183	대	96	96		
158	"	184	대	53	53		
159	"	185	대	79	79		
160	"	186	대	155	155		
161	"	186-1	대	66	66		
162	"	186-2	대	30	30		
163	"	186-4	전	69	69		
164	"	187	대	145	145		
165	"	187-1	전	79	79		
166	"	188	대	109	109		
167	"	189	대	119	119		
168	"	190-1	대	159	159		
169	"	190-2	대	165	165		
170	"	191-1	대	179	179		
171	"	191-2	대	278	278		
172	"	192-1	대	541	541		
173	"	192-2	답	198	198		
174	"	192-3	답	235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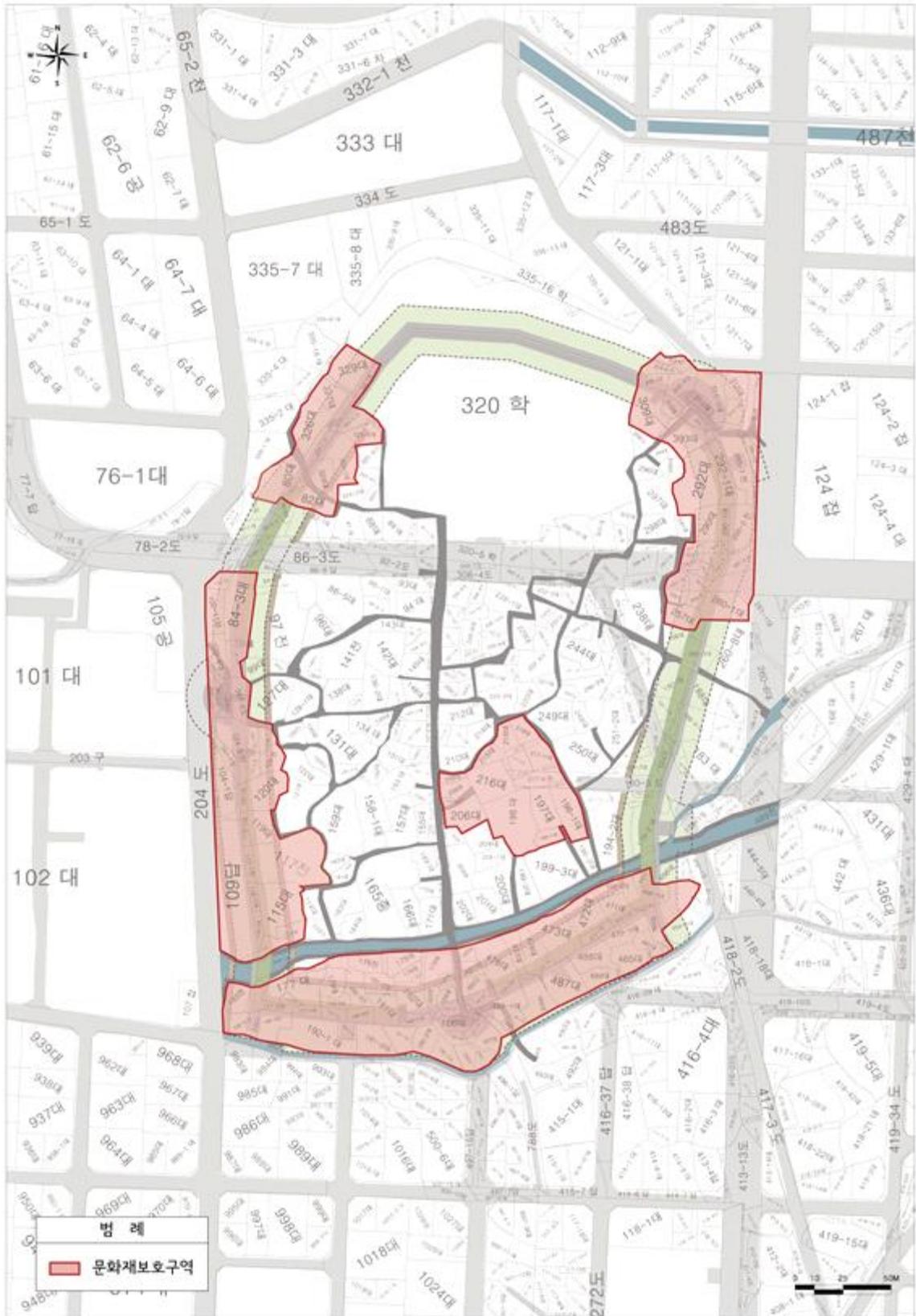
연번	동명	지번	지목	지적 (m ²)	보호구역 면적(m ²)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75	"	192-5	대	90	90		
176	"	192-6	답	23	23		
177	"	193	전	175	175		
178	"	217-3	답	68	68		
179	"	217-30	답	70	70		
180	"	347-1	도	192	192		
181	"	347-6	도	3,094	455		
182	"	347-9	도	17	17		
183	"	347-10	도	10	10		
184	"	347-11	도	1	1		
185	"	349-5	도	1,008	671		
계		185필지		51,360	29,093		



기장읍성 배치도



지형도



기장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설정 현황 (2019년 현재)



<해동지도>에서 기장읍성(17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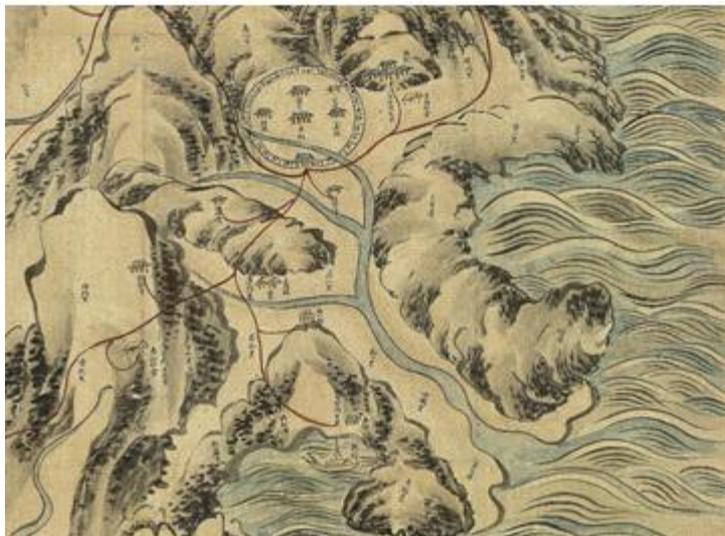
<경주도회좌통지도>에서 기장읍성



<여지도>에서 기장읍성(1757)



<지승>에서 기장읍성(18세기 중엽)



<1872년 군현지도>에서 기장읍성(1872)



<여지도>에서 기장읍성(1736-1776)



<여지도>에서 기장읍성(18세기 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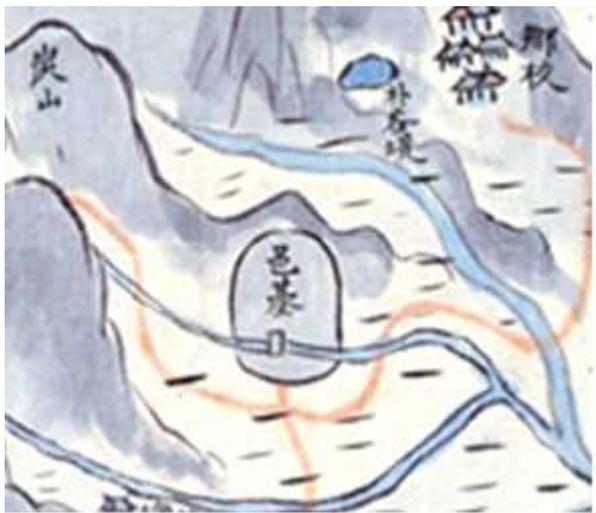
<각읍지도>에서 기장읍성(19세기 초)



<지도>에서 기장읍성(19세기 중엽)



<여지편람>에서 기장읍성(19세기 중엽)



<기장현읍지>에서 기장읍성



1954년 기장읍성 항공사진



1967년 기장읍성 항공사진



1985년 기장읍성 항공사진



기장읍성 일원 항공사진 (2016)



기장읍성 일원 항공사진2(보호구역 표시)(2016)



기장읍성 남벽 내벽조사1



기장읍성 남벽 내벽조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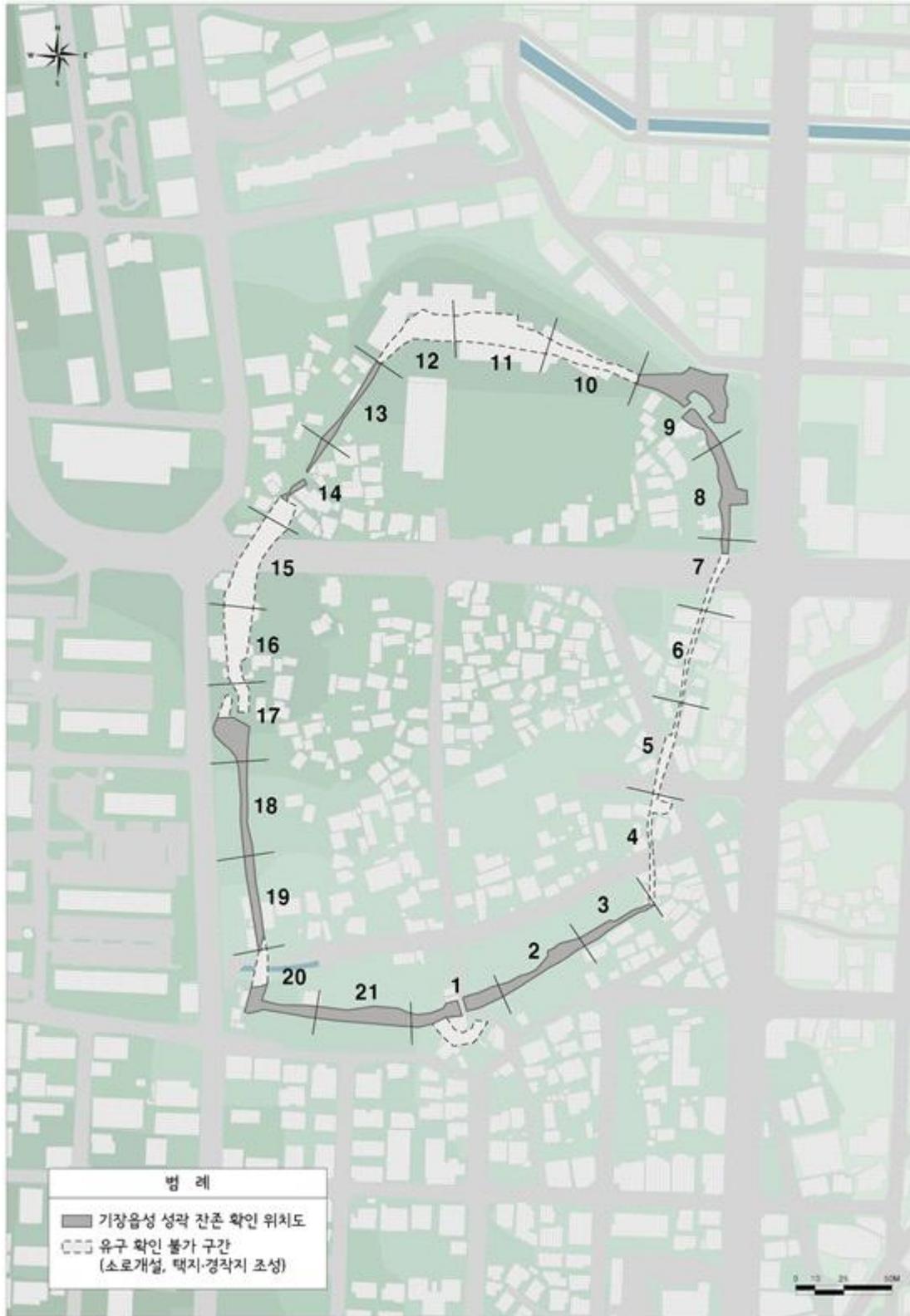
기장읍성 서성 외벽 상세1



기장읍성 서성 외벽 상세2



기장읍성 서성 외벽 상세3



기장읍성의 현황도(구간 설정)

□ 기장읍성의 현황사진

■ 1구간



1구간-남문지 동쪽 육축부 현황

■ 2~3구간



2구간-남성벽 외벽



3구간-남성벽 외벽(1)



3구간-남성 외벽(2)



3구간-남성 치 추정지 현황



3구간-남성 체성 내탁부 잔존상태 및 현황(2016)



3구간-남성 체성 내탁부 발굴조사 현황(2012)

▣ 4~6구간



4구간-초축해자 복개도로 및 택지 조성 현황



5구간-택지 조성 및 도로 개설 현황

▣ 7구간



7구간 복원공사 이전 성곽 현황(2008년)



7구간-협축식 복원 구간 현황

▣ 8~9구간



8구간-체성 외벽부 현황



8구간-체성 내탁부 현황



9구간-동문지 육축부 현황



9구간-체성 내탁부 현황

▣ 10~12구간



10~12구간 발굴조사 전



10구간 체성 유구



12구간 체성 유구



10~12구간 현황

▣ 13구간



13구간 외벽 전경(2)



13구간 외벽 상세(2)



13구간 내벽 상세



13구간 외벽 상세(1)

▣ 14구간



14구간 북문지 근경



14구간 외벽 상세



14구간 내벽 근경



14구간 내벽 상세

▣ 15~17구간



15구간-읍내로 개설 현황



16구간-건물지와 경작지 조성 현황



17구간-서성 문지 및 용성부 현황

▣ 18구간



18구간 성벽 단절부분(통행로)



18-1구간 성벽 전경



18-1구간 외벽 근경(1)



18-1구간 외벽 근경(2)



18-2구간 외벽 상세(1)



18-2구간 외벽 상세(2)



18-2구간 외벽 지대석 상세(1)



18-2구간 외벽 지대석 상세(2)



18-2구간 내벽 상세



18-2구간 잔존 체성 상부



18-2구간 내벽 및 내탁 관련시설



18-2구간 계단식 내탁 관련시설

▣ 19구간



19구간 외벽 근경



19구간 내벽 근경



19구간 남쪽 단부 성곽 상부



19구간 남쪽 단부 성내 인접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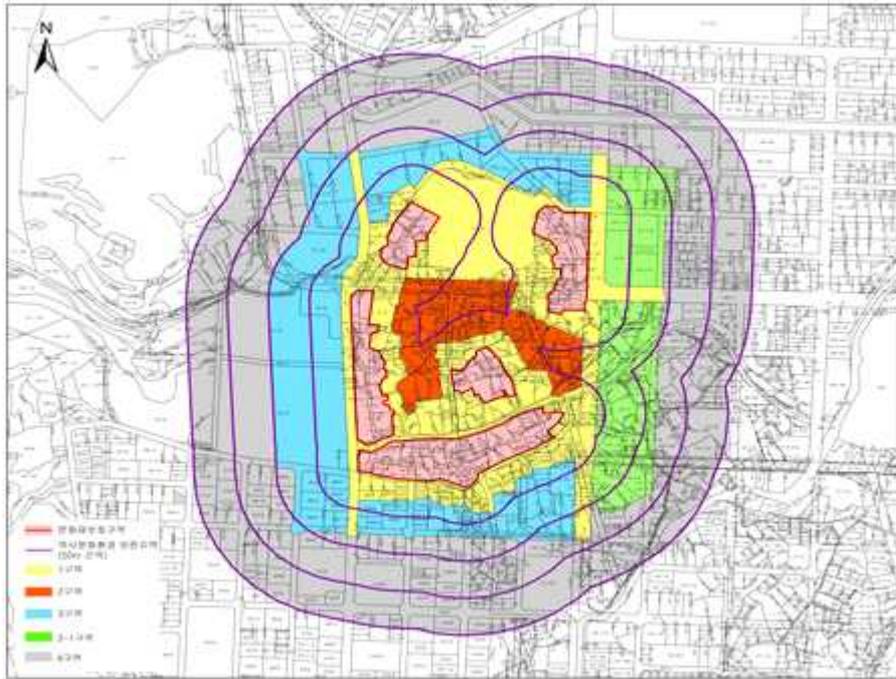
▣ 20~21구간



20~21구간-남성 서측부 성우 인접 건물 현황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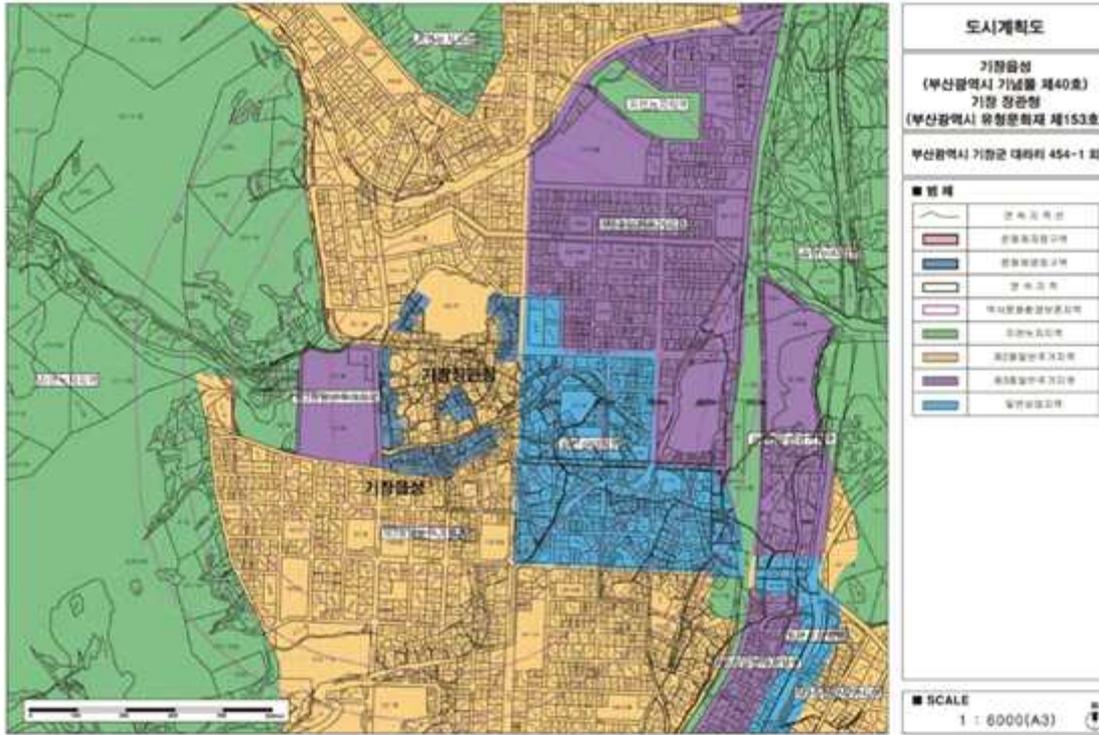
- 검토의견 : 도심화된 곳으로 도시계획상의 계획정도, 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허용기준이 작성될 필요가 있음.



기장읍성 현상변경 허용기준(현황)



기장읍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조정안)



기장읍성 주변 지역·지구 현황

기장읍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별 내용

구분	허용기준		구역범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500m 이내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5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5m 이하	
3-1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5m 이하	
4구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구역 내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1~4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여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가) 문화재 보존 · 정비계획

1) 기본 방향

○ 복원 · 정비를 목표

- 문화재의 정비는 원형(prototype) 보존이 원칙이다. 그러나 성곽은 전적이거나 서책, 불상, 고회화와 같은 소규모 문화재와 달리 최초 제작 때의 원형을 유지할 수 없다. 초축 이래 여러 차례 수축되고, 각종 재해나 심지어 국방정책의 변화 등으로 흥폐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장읍성은 임진왜란 때 함락된 데다 성석의 절반 이상이 왜성 축조에 전용되었다가 구한말의 혁파 전까지 개, 보수

로 면모가 회복되었다. 근대기의 도시화 과정에서 전체 위곽의 1/3이 건물이나 도로에 묻혀있지만 나머지 구간에는 높이 1.0~4.0m 정도로 잔존한다. 따라서 초축 때의 면모를 원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종 혁파 때까지의 통시적 관점에서 누적된 변화상을 고려해야 한다.

- 특정 시기에 형성된 것 중에는 역사적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다. 체성부의 일부에 임진왜란 이후 무너진 곳에 잔돌로 보충한 ‘V’자형의 일부 벽면들이 대표적이다. 통식적인 규식이 아닐 뿐더러 외관상 흉물스럽기조차 하다. 원형의 유지가 아니라 원형이 훼손된 경우이다. 또 최대 4m 높이로 잔존하는 체성 곳곳에 생긴 배흘림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보존과 가리가 멀다. 오히려 현재의 위곽이 형성되고, 문헌기록이나 잔존유적을 통해 입증 가능한 최전성기의 면모를 고증해서 복원·정비하는 것이 올바른 보존 방식이다.
-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은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2002년과 2016년 두 차례 기장읍성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2016년의 <기장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에서 복원기준시점과 용척의 설정, 체성부를 비롯한 성곽 시설들에 대한 고증, 복원설계, 복원대상과 우선순위의 설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기장읍성에 관한 각종 문헌기록과 그간의 시굴·발굴조사를 대조함으로써 수축시기별 구조와 축조기법, 복원치수를 추정하고, 미조사 구간에 대해서는 실측조사를 실시해서 복원설계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다만 당시는 2017~2018년 사이의 남북 일원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전이어서 최근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한다.

○ 복원기준시점과 용척

- 기장읍성은 세종 7년(1425)에 축조되었지만, 현재의 위곽은 성종연간 현감 민관 때인 15세기 말~16세기 초에 형성되었다. 임진왜란 때 함락된 후 선조 28년(1595) 무렵 왜군들이 죽성리에 왜성을 쌓기 위해 성석의 절반 이상을 빼내감으로써 크게 훼손되었고, 정유재란 때 다시 함락되었다. 이에 따라 한동안 폐허상태가 지속된 탓에 각종 문헌에는 ‘잔성(殘城)’, ‘퇴훼(頽毀)’, ‘금비(今圮)’ 등으로 적고 있다. 다만 대원군집권기의 수축했지만, 성종연간의 양상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기장읍성의 최전성기로 추정되는 15세기 말~16세기 초의 성종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성종연간에 형성되었을 기장읍성의 규모는 그 직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석축으로 둘레 3,197척, 높이 12척’으로, 둘레 치수는 현재의 계축치와 거의 같다. 성곽시설은 『문종실록』(1451)에 ‘적대 6소, 성문 3소로 웅성 3소’로 이는 최근의 시굴·발굴조사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축성신도>(1438) 반포 전의 초축 때 쌓은 동벽, <축성신도>의 규식대로 쌓은 북벽, 그리고 성종연간에 쌓은 남벽과 서벽에 대해 각기 수축시기에 따른 축조

기법을 적용한다.

- 복원설계에 필요한 용적은 체성 높이의 경우 성종연간 이전의 축조 구간에는 포백척을 적용하고, 성종연간 이후의 수축 구간에는 영조척을 적용한다. 이는 기장읍성을 기록한 문헌들에서 성종연간 이전까지 포백척을 사용하고, 이후는 영조척으로 사용한 점에 근거한다. 다만 체성의 너비, 문지와 옹성 개구부 등의 너비는 최근의 시굴 · 발굴조사 결과를 적용하며, 성문누각이나 관아시설은 전통적으로 적용해온 영조척을 적용한다.

2) 성곽 복원설계

○ 체성부

- 동벽은 동문지에서 남쪽으로 약 90m, 북쪽으로 약 13m 길이의 외벽이 1.8~3.0m 높이로 3~5단 정도 남아 있다. 남쪽 체성은 최근의 조사에서 너비 약 7.3~8.0m로 확인되므로 내탁부를 포함한 기저부는 8.0m, 석축 기저부는 6.2m, 내벽은 상부로 3단 정도의 계단식으로 쌓는다. 내탁부는 내벽 끝에서 경사지게 토석으로 쌓되, 북벽과 만나는 구간은 계단식이므로 북벽에 준해서 쌓는다. 체성 높이는 12척(포백척, 약 5.6m)을 원형으로 설정해서 잔존성벽 상부의 결락부를 고려시대 아래의 전통적인 평적으로 보충하며, 여장은 정확한 고증이 불가능하므로 설치하지 않는다.
- 북벽은 대부분의 구간에 기장초등학교 교사가 눌러 앉은 탓에 현실적으로 복원 · 정비가 불가능하다. 다만 최근의 발굴조사와 일제강점기 사진자료에서 내탁부가 <축성신도>의 규식처럼 계단식으로 추정되므로 복원설계도를 작성해서 보존토록 한다. 또 북벽 서쪽 경계에서 남북방향으로 길이 약 9m, 너비 7m, 외벽 높이 2m 정도의 성벽이 시멘트포장 아래에 잔존한다. 계단식의 북벽과 달리 내부는 사면에 기대어 뒤채움한 내탁식 편축성으로 추정되므로 같은 규식의 서벽에 준해서 높이 12척(포백척)까지 입수적(立垂積)으로 보충하며, 여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 남벽은 남문지 옹성을 기준으로 서쪽 87m, 동쪽 56m의 외벽이 1~3단 정도 남아 있다. 동벽이나 북벽에 비해 가장 늦은 시기인 성종연간에 축조되었다.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기저부 폭은 7.6m로 토석을 경사면에 덮어서 내탁부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시의 축조기법인 입수적 쌓기와 기단 수평화공법에 따라 상부의 결락 부분을 높이 12척(포백척)까지 보충하며, 여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서벽도 같은 시기에 축조되었으므로 남벽의 축조기법에 따라 복원 설계한다.

○ 기타 시설

- 현재까지 체성 외에 지표면 위로 드러난 성곽시설은 동문과 동문옹성, 남문과 남문옹성, 동벽 적대 1소, 남벽 앞 해자 등으로, 최근 조사에서 구조와 축조기법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존재 가능성이 큰 경우로, <1914년 지적원도>의 지

적선(地籍線)이나 육안으로 확인되는 유적들이 있다. 남문지의 동쪽과 서쪽에 각기 적대로 추정되는 지적선이 그려져 있을 뿐 아니라 철거 전의 주택 담장에 서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남서 및 남동 우각부(城隅)에도 적대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 남동 우각부 외에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구간에서는 설치하지 않는다.

- 동문은 2012년 동양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에서 개구부의 너비 3.0~4.5m로 평면상으로 밖이 넓고 안으로 좁아지는 사다리꼴이며, 성문 둔테석(확돌)은 입구에서 안으로 약 6m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동문옹성은 외벽 둘레 50m, 내벽 둘레 23.5m, 옹성 길이 27m, 옹성 너비 15.5m, 내벽 직경 14m, 옹성체성 폭 6.5m, 개구부 폭 3.5m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복원모형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한다.
- 남문은 2018년 울산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때 초축 이후 2차례 수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남문옹성은 반원형 편문식으로, 길이 28.8m, 너비 15.7m, 내벽직경 14m, 옹성체성부의 너비 7.0m, 외벽둘레 47.5m, 내벽둘레 21.7m이다. 옹성의 축조는 체성에 덧대어 축조한 것이 아니라 체성과 동시에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복원모형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한다.
- 동벽 적대는 2012년 동양문물연구원이 실시한 발굴조사로 구체적인 치수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 즉, 체성에서 돌출된 길이 약 8.9m, 폭 약 7.3m로 복원치수를 설정한다. 이 밖의 4곳 적대는 현재까지 시굴 또는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일단은 동문 적대에 준해서 치수를 설정한다.
- 남벽 해자는 2018년 울산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에서 구조와 축조기법이 확인되었다. 즉, 평면은 대체로 직선적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약간 곡선을 이루는데, 특히 옹성 쪽에서는 옹성과 같은 반원형이다. 단면은 가운데가 약간 오목한 완만한 'U' 자형으로, 폭 4.8~5.0m, 잔존깊이 0.6~1.0m이다. 벽면은 생토면을 직각에 가깝게 굴착한 후, 30~50cm 정도의 할석을 굴광면에 거의 붙여서 1열로 하여 7~8단 정도를 대체로 하단부는 수직, 상단부는 평적하였다. 따라서 복원모형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한다.
- 서문지와 서문옹성지, 암문지 등도 확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아직까지 정밀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정확한 규모와 구조, 축조기법을 알 수 없다. 향후 서벽과 함께 발굴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양상을 파악한 후 복원모형을 설계한다. 이밖에 여장, 성루 등에 대한 양상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므로 복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복원 추진계획

○ 기본 방향

- 기장읍성은 조선 세종 7년(1452) 축조된 연해읍성으로, 6백여 년간 치소성(治所城)으로서뿐 아니라 관방성(關防城)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왜군과의 전투가 벌였던 곳으로, 전쟁사의 한 페이지를 점하는 중요한 국방유적이기도 하다. 성곽사적으로도 조선 전기 연해읍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선구적 모본으로서 가치가 클 뿐 아니라 단일 성곽임에도 고려 때의 전통적인 관축기법에서부터 이후의 다양한 축조기법을 갖춘 점에서 성곽연구의 보고라 해도 모자람이 없다.
- 그러나 최근까지 체성 곳곳에 배불림 현상이 진행되고, 성상로(城上路)나 성벽 안팎의 성기(城忌)를 주민들이 경작지로 이용한 탓에 흉물스러운 경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 사적 지정과 함께 복원 ·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역사문화재적 가치를 고양하고,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 및 후속 세대들의 향토수호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 역사문화유적은 진정성(authenticity)에 근거해서 원형(prototype)에 따라 복원 ·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그간의 잔존 유적에 대한 지표 · 시굴 · 정밀발굴조사 및 두 차례의 복원 · 정비계획에 의한 학술적 고증과 사업 여건의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원 기준시점과 복원 설계, 사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현재 기장읍성 체성 안팎의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미수용 토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한다. 이와 함께 서벽, 서문과 서문옹성, 동남우각부 적대 등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구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해서 정확 구조와 축조수법을 규명해서 복원설계를 위한 근거자료로 삼는다.
- 오늘날의 문화재 정책은 보존 · 보호에 머물기보다 그 활용을 중시한다. 따라서 기장읍성은 복원 · 정비를 통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특히 기장 지역은 남산봉수, 기장산성, 수군선소, 두모포진성, 척화비와 같은 관방역사유적 뿐 아니라 왜군이 쌓은 죽성리왜성 등 임진왜란 전쟁유적까지 다양하다. 여기에다 수려한 해양경관과 기장멸치나 미역과 같은 지역 특산물을 연계해서 역사체험과 휴양을 겸한 복합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 기장읍성의 복원 · 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노력 외에 지역민의 협조도 필요하다. 사업목적과 취지, 기대효과에 대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문화재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의 이해,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 노력 등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예산의 확보에 노력을 경주해서 미수용 토지 매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사업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에 의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동의를 유도하도록 한다.

○ 단계별 추진계획

- 체성부를 비롯한 성곽의 복원 ·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용이성, 기대효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원대상과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즉, 잔존 상태와 사업 수월성, 경관 개선 및 활용성, 토지수용 상태와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높은 평점의 구간부터 시행한다.
 - 1단계 : 서벽, 남동우각부 적대 등 조사 미실시 구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남벽, 남문, 남문옹성, 남벽 해자, 남동우각부 적대의 복원 · 정비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미수용 토지에 대한 매입 완료
 - 2단계 : 동벽, 동문, 동문옹성, 동벽 적대의 복원
서벽, 서문, 암문, 서벽 적대의 복원 · 정비
탐방로, 옛길,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 3단계 : 관영누각인 직금루와 청사루 복원

○ 가칭 기장읍성역사관 건립

- 체성 복원 · 정비는 잔존 벽면 위의 성돌 결락부를 복원치수에 맞게 보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잔존 상태를 정밀실측하여 모사도(模寫圖)를 작성한 후 벽면을 전면 해체해서 복원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재구성한다.
- 체성부 보축 때 기존 성돌은 그대로 사용하며, 새 성돌은 구재와 같은 형상과 재질, 크기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성내 주택의 담장 등에 전용되고 있는 성돌을 수습해서 재활용한다.
- 조선 후기에 성돌 결락부에 V자형으로 보축한 구간은 통식적인 규식에 어긋나므로 철거하고 잔존 석벽과 쌓기방식에 따라 보축한다. 정비기준면은 체성 높이 5.6m를 기준으로 미석까지 쌓고 여장은 쌓지 않는다.
- 성곽의 복원과 함께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서벽 등 조사 미실시 구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실시
 - 성내의 관영누각인 직금루와 청사루 재건
 - 가칭 기장읍성역사관 및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
 - 성내 항일독립운동가 생가 및 거주지 보존 · 정비
 - 근대한옥을 활용한 항일독립운동 테마거리 조성

나) 관리 및 활용계획

1) 문화재 관리계획

○ 유지 · 관리계획

- 기장읍성 관리계획은 유적의 안정적인 유지 · 관리를 통해서 문화재로서의 수명을 영구히 하고, 그 가치를 지속시킴으로써 후손들에게까지 계승될 수 있는 방안을 담는다. 이와 함께 주민과 학생, 외래 탐방객 등 모든 이들이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므로써 그 활용성을 제

고한다.

- 성곽 유적은 항상 외기에 노출된 탓에 폭우나 태풍, 빙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함께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문화재담당 부서와 <부산광역시문화재돌봄사업단> 및 문화재위원회 등 관계전문가의 협력체계를 구성하며, 연차별로 장·단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기장읍성은 둘레 1km에 체성 안팎으로 넓은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하는 면적(面的) 문화재이므로 오물, 쓰레기, 폐자재 등으로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문화재 및 그 주변 공간에 대해서 상시적인 청소 및 정리 체계를 마련한다.
- 성곽은 최대 5.6m 높이까지 복원되므로 성상로(城上路) 위를 답성(踏城)하거나 체성 안팎의 탐방로에서 벗어나 성벽 가까이서 관람할 때 예기치 못하게 추락하거나 성돌의 탈락에 의해 안전에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교육과 함께 보호펜스, 특정 지점에 대한 포토샷(photo-shot) 지정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
- 가칭 <기장읍성역사관> 내에 성곽 일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부서를 상주시키며, 성곽 일원에 대한 감시 시스템(CCTV)을 구축하고 주요 지점마다 소화기와 소화전, 방화수, 스프링클러, 화재감지센서와 경보기, 구난장비 등 각종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편의시설 계획

- 탐방객의 동선, 접근성, 행동 패턴 등을 고려해서 탐방로 곳곳에 알코브(alcove)를 마련하고, 적정 위치에 쉼터, 벤치, 음수대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체성 벽면으로부터 각기 8~10m(4丈=40尺) 내의 공간은 보호해야 할 성기(城忌) 부분이므로 불가피한 경우 도로나 동선의 결절점(結節點)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한다.
- 주차장은 일반인 탐방객의 승용차뿐 아니라 학생단체나 관광단체의 대형 관광버스를 위한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하며, 야간에는 지역민에게 개방한다. 주차장 주변의 경계에는 관목 위주로 식재해서 성곽 안팎으로의 상호간 조망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 성곽 유적의 면적이 광범위하고, 전체 둘레도 대단히 길어서 탐방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 체성부를 비롯한 각종 성곽시설은 성곽사에 관한 전문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탐방객의 동선과 주요 성곽시설이 위치한 곳에는 이정표와 함께 설명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 가칭 <기장읍성역사관>은 역사문화유적의 분위기와 조화되도록 조선시대 전통 건축 모티프(motif)를 채용해서 디자인한다. 여기에는 기장읍성과 관련한 각종

문헌과 사진, 고회화, 고지도 등을 비롯해서 임진왜란 전쟁사,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근세기 항일운동사, 성내 공간의 주생활사 등을 담은 각종 역사문화적 사료를 보존, 전시하며, 특히 최근 발굴조사 때 출토된 무구류나 생활유물 등을 보존, 전시한다. 이와 함께 성곽 유적의 유지 · 관리부서와 주민, 학생, 외래객을 위한 문화유산해설사를 상주시킨다.

- 성곽 복원 후에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며, 주변 공지는 주민들의 휴식, 모임, 놀이 등을 위한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밖의 공지는 잔디와 키가 낮은 교목 위로 식재해서 성곽 내부의 내탁부와 같은 분위기가 되도록 녹화한다.
- 성곽 주진입로에는 안내소를 설치하며, 탐방로의 주요 결절점에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탐방객들로 하여금 기장읍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안내판의 내용으로는 고려 때부터의 기장읍성의 역사와 연혁, 연해읍성으로서의 성곽사적 의의, 수축시기별 구간의 다양한 축조기법, 임진왜란 전쟁사 등의 내용을 담는다.
- 탐방로는 성곽 유적의 내, 외벽으로부터 성기(城忌)가 끝나는 8~10m 거리에 성벽과 나란히 진행토록 설치한다. 탐방로 바닥은 황토다짐으로 하며, 경계블록 없이 잔디밭과 자연스럽게 경계를 이루도록 친환경적으로 설치한다. 탐방로 중간 적정 위치나 주요 결절점, 또는 성곽시설이 있는 곳에 알코브를 두고 퍼골라, 벤치, 음수대 및 포토샷을 설치한다.
- 성곽 유적과 탐방객의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안내소를 설치한다. 관리사무소는 가칭 <기장읍성역사관> 속에 두며, 안내소는 성곽 주진입로 입구에 설치하되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도록 소규모에 전통건축 모티프(motif)를 채용한다.
- 소화안전 및 전기통신시설로는 소화기 및 소화전, 가로등 등이 있다. 소화기 및 소화전은 최대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소화전 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제작한다. 가로등은 최소한의 수로 설치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며 조화되는 형태 및 재질로써 설치한다.

○ 위탁 운영계획

- 복원 · 정비 후 기장읍성은 보존 · 관리 뿐 아니라 탐방객 관리 등 여러 면에서 관리운영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흔히 성곽과 같은 면단위의 문화재 관리운영방식으로는 행정관청의 직영관리, 민간 위탁관리, 부분 위탁관리, 시민참여형관리 등이 있다. 관리운영 방식은 각기 장, 단점이 있으므로 기장읍성의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설정토록 한다.
- 행정관청 직영관리는 산하에 별도 조직을 설치해서 기장읍성을 포함한 지역의 여러 문화재를 통합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 남한산성의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와 같은 경우로 별도의 관리사업소나 관리공단을 두는 식이다. 직접적인 관리로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고급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순환되는 공무원 조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 민간 위탁관리는 문화재청 및 지자체가 관리업무를 민간단체나 민간법인에 맡

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 주민과 탐방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치중한다. 읍성의 관리운영 업무 중 특수한 기술이나 능력을 필요하지 않고 위험요소가 따르지 않는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 부분 위탁관리는 관리를 담당하는 기존의 조직이 있지만 비교적 단순하거나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업무 등은 위탁하는 방식으로 최근 <문화재돌봄사업단>이 대표적이다. 담당 관리조직에서 주요 관리 업무를 하되 민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업무를 하게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예를 들면 제초작업, 잡풀제거, 해충방지 등 시기별 작업량이 집중되고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 시민 참여형관리는 청소나 수목관리 등 단순한 관리업무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부녀회나 자치회, 노인회, 학교 등이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유희인력의 고용효과도 노릴 수 있는 방식이다. 또 참여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인의식과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재 활용계획

○ 기본방향

- 기장읍성은 조선 세종 7년(1425) 전기 연해읍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다. 현재는 전체 1km 중의 2/3에 해당하는 체성 최고높이 4m까지 잘 남아 있고, 여느 읍성에서 보기 힘든 성문, 옹성, 적대 유구도 확연하게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단일 성곽임에도 초축부터 수차례의 수축시기별로 다양한 축조기법을 갖고 있어서 성곽연구의 보고라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역사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성곽사적으로 크게 주목된다.
- 기장읍성은 기장현의 치소를 보호하는 치소성일 뿐 아니라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관방성으로서 기능이 더 중시되었다. 실제로 고려 말부터 조선 초 사이 기록된 것만 왜구에 의해 3~4차례나 함락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2차례 전투가 벌어졌다. 읍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국방사적인 가치도 대단히 크다.
- 기장읍성은 초축 이래 6백여 년간 지역민과 함께 흥폐를 거듭했던 만큼 기장지역의 역사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복원 · 정비된 기장읍성은 성내, 외의 관아시설은 물론이고 지역민의 주생활문화, 그리고 주변의 여러 관방시설을 함께 아우르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 첫째, 기장읍성을 통해서 조선시대 지방행정과 관련한 역사체험의 장으로 활용한다. 비록 일제강점기부터 군대철거령에 의해 혁파되고부터 도로 개설과 건물 잠식들에 따라 크게 훼손되었으나 객사와 동헌, 향청, 사창 등이 있던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기장장관청은 국내 유일의 속오군 군사시설로서 옛 모습 그대로 잘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학술연구로 관영누각인 직금루와

청사루의 위치와 그 가치도 밝혀졌다. 성내 공간의 관아시설들과 연계한 역사 체험의 장으로서 활용가치가 크게 기대된다.

- 둘째, 성내에는 지금도 조선 초기에 형성된 옛길이 잘 남아 있고, 필지의 형상도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기장읍성의 복원과 함께 옛길을 걷는 것만으로 새로운 체험거리가 될 수 있고, 변함없이 존속하는 성내 공간에서 예 사람들의 주생활상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옛 길과 옛 필지의 보존 · 재생을 통해서 주생활문화 체험거리로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3.1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항일운동가와 선각자의 생가들이 성내에 남아 있어서 복원 · 정비 후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체험의 장으로 활용한다.
- 셋째, 기장지역은 일본과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최접경지로서 왜구를 막기 위한 군사시설이 많이 설치되었다. 이른바 관방시설들로, 산성과 봉수, 선소, 진성, 왜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장읍성도 치소성이면서 관방성의 기능이 더 컸던 만큼 지역 관방시설들과 연계해서 국방체험의 장으로서 활용가치가 크게 기대된다.
- 넷째, 해안지역이 전체의 2/3 이상인 기장지역은 시랑대나 오랑대, 일광해수욕장과 같은 수려한 해양자연이나 관광지가 즐비하고, 미역이나 다시마, 멸치와 같은 해산특산물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다. 매년 이를 주제로 축제행사가 열리지만, 기장읍성을 비롯한 역사문화유적과 연계하면 괄목할 수준의 복합관광벨트화가 가능하다. 자연과 역사의 융합을 통해서 특출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연관 계획

지역의 다양한 관방유적과 연계된 국방유적 탐방 프로그램 개발
역사유적과 해양자연경관 및 수산자원과 연계한 융합 관광벨트화
직금루(織錦樓) 등 관영 누각의 재현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성내 공간의 한옥마을 조성 및 전통건축 조성 분위기 고양
3.1만세운동 및 항일 독립운동가 생가 복원으로 지역민의 긍지를 고취
관영누각, 장관청, 성내 옛길, 옛 우물 등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
성내의 <기장읍성역사관> 건립 및 방문객에 대한 문화유산해설

9. 종합의견

- 본 건은 부산 기장읍성을 국가 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현지조사를 한 내용임
- 현지조사에서 검토한 바, 지정신청 상에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른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경계 설정시 추정지에 대한 지표 조사, 시술조사, 육안 확인 가능성 등 객관성 확보 필요.
- 읍성의 사적 신청 가치기준에 있어 성곽 자체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자연지리적

특성, 읍성이 지니는 도시계획상 역할 및 기능적 가치, 연안 읍성의 특성상 수군진과의 관계성 및 주변 봉수유적 등과의 관계성 등 다각적 접근 필요함. 이를 규명하기 위해 학술세미나 등으로 학술적 가치 보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읍성 내 객사 등 건물지 위치, 우물지, 수구문 위치 등의 확인이 필요 하고, 읍성 내부 관리 관리계획 수립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경주 명활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경주 명활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명활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명활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보문동 산12 외
- (3) 지정신청 범위 : 경북 경주시 보문동 산14-6
 - 현재 : 문화재구역 894,850㎡
 - 변경 : 보호구역 125,933㎡ 추가

구 분	지정면적(㎡)	필지수	비 고
기 존	894,850	18	문화재구역
추 가	-	1	문화재구역
	125,933	1	보호구역
합 계	1,020,783	20	

* 지번분할 및 합병으로 문화재구역 지적면적(894,850㎡→895,706㎡) 및 필지(18→19필지) 변경. 문화재구역 지정면적은 변동 없음

- (4) 관리단체(안) : 경주시

(5) 신청사유

- 경주 명활성은 산지에 위치하여 문화재의 관리와 조망이 어려워 접근성과 활용성이 낮은 편임. 이에 명활성 북문지 전면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문화재의 활용 및 보존관리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경주 명활성(慶州 明活城)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1.3.19(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경주 명활성(慶州 明活城)의 입구 연접지를 사적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경주 명활성(慶州 明活城)으로 신청되었으며, 명활성의 진입 연접구역으로 경주 명활성(慶州 明活城)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주 명활성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산7번지를 중심으로 그 일대 18필지를 포함.
- 경주의 동쪽 명활산 꼭대기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쌓은 둘레 약 6km의 신라 산성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산성지구에 등재됨.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경주의 동쪽 명활산 꼭대기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쌓은 둘레 약 6km의 신라 산성으로 성을 쌓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에 신라 실성왕 4년(405)에 왜병이 명활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보이므로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을 쌓는 방법에서도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한 신라 초의 방식을 보이고 있다. 눌지왕 15년(431)에는 왜구가 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는데, 이는 이 성이 신라의 수도인 금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곳임을 말해준다. 진흥왕 15년(544)에 다시 쌓았고, 진평왕 15년(593)에는 성을 확장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성벽이 무너져 겨우 몇 군데에서만 옛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진흥왕 때의 ‘명활산성 작성비’가 발견되어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명활산성비’로 보이는 비석조각이 안압지에서 발견되었다.

선덕여왕 때는 비담(毗曇)이 이곳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으나 김유신이 평정하기도 했으며, 남산성·선도산성·북형산성과 함께 동해로 쳐들어오는 왜구에 대항하여 경주를 지키는데 큰 몫을 한 곳이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경주 명활성의 문화재 지정구역은 총 894,850㎡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지정된 경주 명활성의 문화재 지정구역 범위는 매장문화재로 인하여 성곽 내

부범위가 전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경주 명활성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성곽의 관리가 어렵고 조망이 어려워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음
- 경주 명활성 북문지 전면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명활성의 원활한 관리와 산성의 접근성, 활용성을 높여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임.
- 기고시(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 2008년 12월 10일)된 경주 명활성 문화재구역은 총 18필지, 지적면적 894,850㎡, 지정면적 894,850㎡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2021년 기준으로 지적 병합 및 분필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 문화재구역은 19필지 지적면적 895,706㎡, 지정면적 894,850㎡로 고시 당시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주 명활성의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제안하고자 한다.
 -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 경북 경주시 보문동 산14-6 125,933㎡

6. 지정 대상 및 범위

□ 추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면적 : 보호구역 125,93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주시 보문동	산14-6	임	125,933	125,933		
계				125,933	125,933		

□ 문화재 구역 지정면적 및 필지 변경

문화재구역 : 지적면적(894,850㎡→895,706㎡) 및 필지(18→19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기 고시(㎡)			변경(㎡)			비고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1	보문동	산7	임	88,463	88,463	임	88,463	88,463	
2	보문동	산8	임	16,661	16,661	임	16,661	16,661	
3	보문동	산9	임	77,752	77,752	임	77,752	77,752	
4	보문동	산10	임	7,140	7,140	임	7,140	7,140	
5	보문동	산11	임	8,331	8,331	임	8,331	8,331	
6	보문동	산12	임	329,256	329,256	임	329,256	329,256	
7	보문동	산13	임	74,975	74,975	임	74,975	74,975	
8	보문동	56	전	56	56	전	912	56	지적면적 정정
9	보문동	57	답	1,521	1,521	답	1,521	1,521	
10	보문동	58	답	674	674	답	674	674	
11	보문동	59	답	1,983	1,983	답	1,783	1,783	59-1로 분할
12	보문동	59-1				답	200	200	59-1에서 분할
13	보문동	376	임	436	436	임	436	436	
14	천군동	산334	임	191,603	191,603	임	191,603	191,603	
15	천군동	산335-1	임	19,438	19,438	임	19,438	19,438	

연번	소재지	지번	기 고시(m ²)			변경(m ²)			비고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16	천군동	산335-2	임	16,264	16,264	임	16,264	16,264	
17	천군동	산336	묘	9,917	9,917	묘	9,917	9,917	
18	천군동	산337	임	30,942	30,942	임	30,942	30,942	
19	천군동	산338	임	19,438	19,438	임	19,438	19,438	
계				894,850	894,850		895,706	894,850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慶州 明活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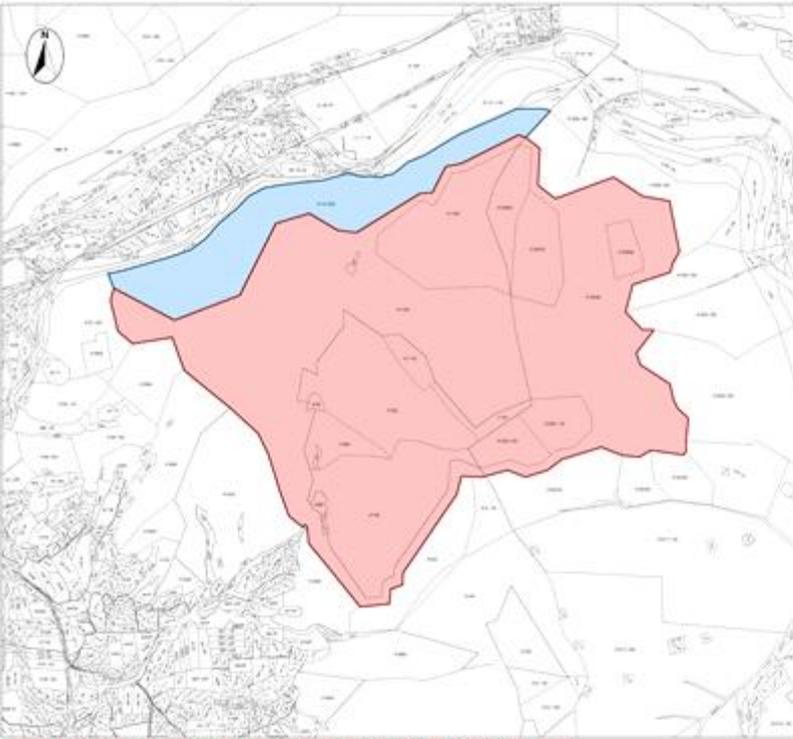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산12 외 18필지

범례

- 분할채구역
- 보호구역
- 연속지적

축척 1 : 7,000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를 사용합니다.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慶州 明活城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산12 외 18필지

범례

- 분할채구역
- 보호구역
- 연속지적

축척 1 : 7,000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를 사용합니다.

3. 경주 재매정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경주 재매정」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추가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재매정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추가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재매정(사적 / 1976.01.07.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교동 89-7번지
- (3) 지정신청 범위 : 경북 경주시 89-4 외 8필지
 - 현재 : 문화재구역 5,509
 - 변경 : 문화재구역 7,239㎡ 추가

구 분	지정면적(㎡)	필지 수	비 고
기 존	5,509	9	문화재구역
추 가	7,239	8	문화재구역
합 계	12,748	16	

* 경주시 황남동 도493-1은 기 지정되어 있는 지번으로 지정면적만 증가.
필지 수 변동 없음

- (4) 관리단체(안) : 경주시

(5) 신청사유

- 1991~1993년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문화재구역이 설정되었으나 2013~2014년 추가발굴조사 결과 현 문화재구역의 동편 일대에서 건물지가 연속되어 재매정택과 관련되는 단위 구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 또한 재매정택의 동서방향으로 건물지가 연속되고 있어 재매정택의 영역 확인을 위해서는 현 문화재구역의 서편 일대에 추가발굴조사가 진행 되어야 하므로 문화재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 수용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경주 재매정(慶州 財買井)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1.03.19(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경주 재매정(慶州 財買井)의 양측 연접지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경주 재매정(慶州 財買井)으로 신청되었으며, 재매정의 연접지로서 관련유구가 연속되어 일체성이 확인되므로 경주 재매정(慶州 財買井) 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재매정 서쪽으로 형산강, 송화산, 선도산, 동쪽으로 흰등산, 대덕산, 남쪽으로 남산, 도당산, 북쪽으로 신라왕경권과 시내가 조망되며, 근경은 농경지와 저층 건물이 주로 위치하여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산과 하천 등의 자연경관 외에 수직으로 형성된 인공경관이 없어 자연이 조망되는 트인 경관이다.
- 현재 재매정 문화재 지정구역은 경주 남산권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위쪽으로는 경주 대릉원 일원(황남동 고분군과 인접)이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인 역사경관이 매우 양호하다.
- 주변은 신라왕경의 주요유적(경주 월성, 월정교, 계림, 대릉원 일원 등)과 조선시대 유적(경주향교, 최부자집 및 한옥마을)이면서 교촌한옥마을과 사마소 등이 위치하여 다양한 문화재들이 분포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세계유산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경지 및 저층의 건물이 대부분이며, 유적경관 확보가 용이한 위치이다.
- 재매정은 신라 김유신 장군 집에 있던 우물로 이 일대를 김유신집안의 종택인 재매정택으로 추정
- 재매정 우물은 깊이 5.7m이며, 가장 넓은 부분이 1.8m, 바닥의 지름이 1.2m로 벽돌같이 다듬은 화강암으로 축조
- 우물 옆에 비각이 있고 비각 안에 조선 고종 9년(1872)에 이만운이 쓴 김유신유허비가 있다.
- 1991~1993년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재매정을 중심으로 사방 70m 지역을 발굴하였고, 2013~2014년에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재매정지 일대를 확장 발굴조사 하여 다수의 건물지와 우물, 담장지 등을 확인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재매정은 재매정택 안에 있던 우물이고, 재매정택은 김유신의 조종이다. 『삼국사기』의 열전 김유신전에 김유신의 행적 가운데 재매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진
 - 을사(선덕왕 14년, 645년) ... 3월에 돌아와 왕궁에서 복명(復命)하고 미처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또 백제 병사가 국경에 와서 주둔하며 장차 군사를 크게 일으켜 우리를 치려한다는 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왕은 다시 [김]유신에게 “바라건대 공은 수고를 꺼리지 말고 빨리 가서 그들이 이르기 전에 방비를 마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 [김]유신은 다시 집에 들르지도 못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병기를 손질하여 서쪽을 향해 떠났다. 이때 그 집안사람들이 모두 문 밖에 나와 [김유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김]유신은 문을 지나쳐 돌아보지 않고 지나갔다. 50보 쯤 가서 말을 멈추고는 사람을 시켜 [자기] 집에서 마실 물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마시고는 “우리 집의 물은 여전히 예전 맛 그대로구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여러 군사들이 모두 “대장군께서도 오히려 이와 같을진대 우리들이 어찌 가족과 떨어져 있음을 한스러워 하리오?”라고 하였다.
 - 국경에 이르자 백제인들이 우리 군사들의 방비 상태를 보고는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곧 물러갔다. 대왕이 이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관작과 상을 더해주었다.¹⁾
 - 재매정은 문헌과 유적으로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재매정은 신라 금입택의 하나인 재매정택에 속한 우물로 재매정택은 김유신의 종조(조상의 집)로 추정된다.

5.1. 금입택(金入宅)

『삼국유사』 진한조에 신라 전성기에 수도 서라벌의 규모를 말하는 가운데 35채의 금입택을 들고 있다. 이 금입택으로 불려지는 상류저택들이 서울에 들어섰다는 것은 왕권에 비례되는 막대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유력 진골층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금입택과 함께 四節遊宅 역시 귀족층의 부유한 생활상을 전한다. “봄에는 東野宅이요 여름에는 谷良宅이요 가을은 仇知宅이요 겨울은 加伊宅이다. 제49대 헌강왕 때에는 성 중에 초가집이란 하나도 없었으며 추녀가 맞붙고 담장이 연닿고 노래와 풍류 소리가 길에 가득 차서 밤낮 그치지 않았다”²⁾ 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사절유택은 귀

1) 『三國史記』 41 列傳 金庾信傳 上.

乙丑 ... 三月, 還命王宮, 未歸家, 又急告, 百濟兵出屯于其國界, 將大舉兵侵我. 王復告庾信曰, “請公不憚勞過行, 及其未至備之.” 庾信又不入家, 練軍繕兵, 向西行. 于時其家人皆出門外待來, 庾信過門, 不顧而行. 至五十步許駐馬, 令取漿水於宅, 啜之曰, “吾家之水, 尚有舊味.” 於是, 軍衆皆云, “大將軍猶如此, 我輩豈以離別骨肉爲恨乎.” 及至疆場, 百濟人望我兵衛, 不敢迫乃退. 大王聞之甚喜, 加爵賞.

2) 『삼국유사』 권제1 기이 제1 又四節遊宅, 春東野宅, 夏谷良宅, 秋仇知宅, 冬加伊宅. 第四十九憲康大王代 城中無一草屋接角連牆, 歌吹滿路晝夜不絕.

족들이 계절에 맞추어 놀러 다니던 별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당시의 귀족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재매는 김유신의 부인 이름이다. 재매정은 금입택에 어울리는 비교적 큰 우물로, 벽돌같이 다듬은 화강암으로 쌓아 올리고, 그 위 네 변에 각각 거칠게 다듬은 장대석을 이중으로 쌓은 다음, 맨 위는 잘 다듬은 ‘ㄱ’자형 장대석 두 개를 맞추어 정사각형으로 짜임새 있게 마무리 지어 놓았다.

5.2. 김유신 관련 유적

신라의 김유신 장군 집에 있던 우물이다.

화강암을 벽돌처럼 쌓아 올려 만들었는데, 이 일대가 장군의 집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된다. 김유신 장군이 오랜 기간을 전쟁터에서 보내고 돌아오다가 다시 전쟁터로 떠날 때, 자신의 집 앞을 지나면서 가족들을 보지도 않고 우물물을 떠오게 하여 말 위에서 마시고는, “우리집 물맛은 옛날 그대로구나”하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재매정은 재매정택에 있던 우물이면서 김유신 종택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신라 유력 진골귀족 가문인 김유신의 행적을 유적과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5.3. 문화재 구역 추가

경주 재매정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의해 1976년 1월 7일 사적 제246호로 지정되었다. 동년 8월 30일 재매정과 그 옆 김유신유허비 및 비각 주변의 1,658평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9년 문화재구역 일괄 조정으로 9필지 5,509㎡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였다.¹⁾

이는 1991~1993년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문화재 구역이 설정되었으나, 기존 조사에서 재매정 경역이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3~2014년까지 두 차례 추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 문화재구역의 동편 일대에서 건물지가 연속되고 있음이 밝혀졌고, 재매정택과 관련되는 단위 구역으로 현 문화재 구역에 이어지는 유적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재매정의 문화재구역은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 문화재구역에 이어지는 동편의 3필지[89-4, 89-5, 89-6]를 포함하여야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참조하면 재매정택의 범위에 대해 남단과 북단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이다. 북단은 현 도로를 경계로 왕경의 도시유적으로 이어지고 남단은 남천의 북안으로 제한된다. 반면에 재매정택의 동서방향으로는 건물지가 연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매정택의 영역확인을 위해서는 현 재매정지 서편으로도 추가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발굴 예정지인 서편 황남동의 4필지[472-1, 472-4, 472-7, 472-8]와 그 사이의

1) 관보 제16895호(그2) 2008. 12. 10-재매정 문화재(보호) 구역 일괄조정 고시 참조.

도로[493-1, 184m²]도 이번 추가 지정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재매정 문화재구역 추가 범위



재매정 문화재 구역 현황(2008년 고시)

6. 지정 대상 및 범위

□ 추가 지정 문화재구역

지정면적 : 16필지 12,748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비교(m ²)			소유자
					기존 (2008 고시)	추가 (2021 안)	변경	
1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4	전	1,848		재매정 동쪽 1,848	1,848	
2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5	전	876		재매정 동쪽 876	876	
3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6	전	896		재매정 동쪽 896	896	
4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7	전	1,137	1,137		1,137	
5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8	전	1,024	1,024		1,024	
6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12	사	153	153		153	
7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90	전	963	963		963	
8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90-1	사	82	82		82	
9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91	대	410	410		410	
10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92-1	전	1,250	1,250		1,250	
11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92-5	전	462	462		462	
12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472-1	전	652		재매정 서쪽 652	652	
13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472-4	전	1,593		재매정 서쪽 1,593	1,593	
14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472-7	전	595		재매정 서쪽 595	59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 면적 비교(m ²)			소유자
					기존 (2008 고시)	추가 (2021 안)	변경	
15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472-8	전	595		재매정 서쪽 595	595	
16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493-1	도	34,026	28	재매정 서쪽 184	212	
계				46,562	5,509	7,239	12,748	



재매정지 원경 (남→북)



재매정지 원경 (동→서)



재매정지 원경 (북→남)



재매정지 원경 (서→동)

□ 시설물 현황

재매정 내 건축물은 유허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각이 유일하며, 비각을 둘러싼 담장이 있다. 담장 내부에는 재매정 우물과 석물유구(초석 등)를 두었고 주변은 밭갈 후 성토·정비하여 특별한 시설물이 없다. 그외 관람편의와 관리를 위한 진입로의 블라드, 외곽 경계웬스, 문화재 안내판, 집수정 등이 있다.



김유신유허비각과 재매정



김유신유허비각과 재매정 보호 담장



보호구역 경계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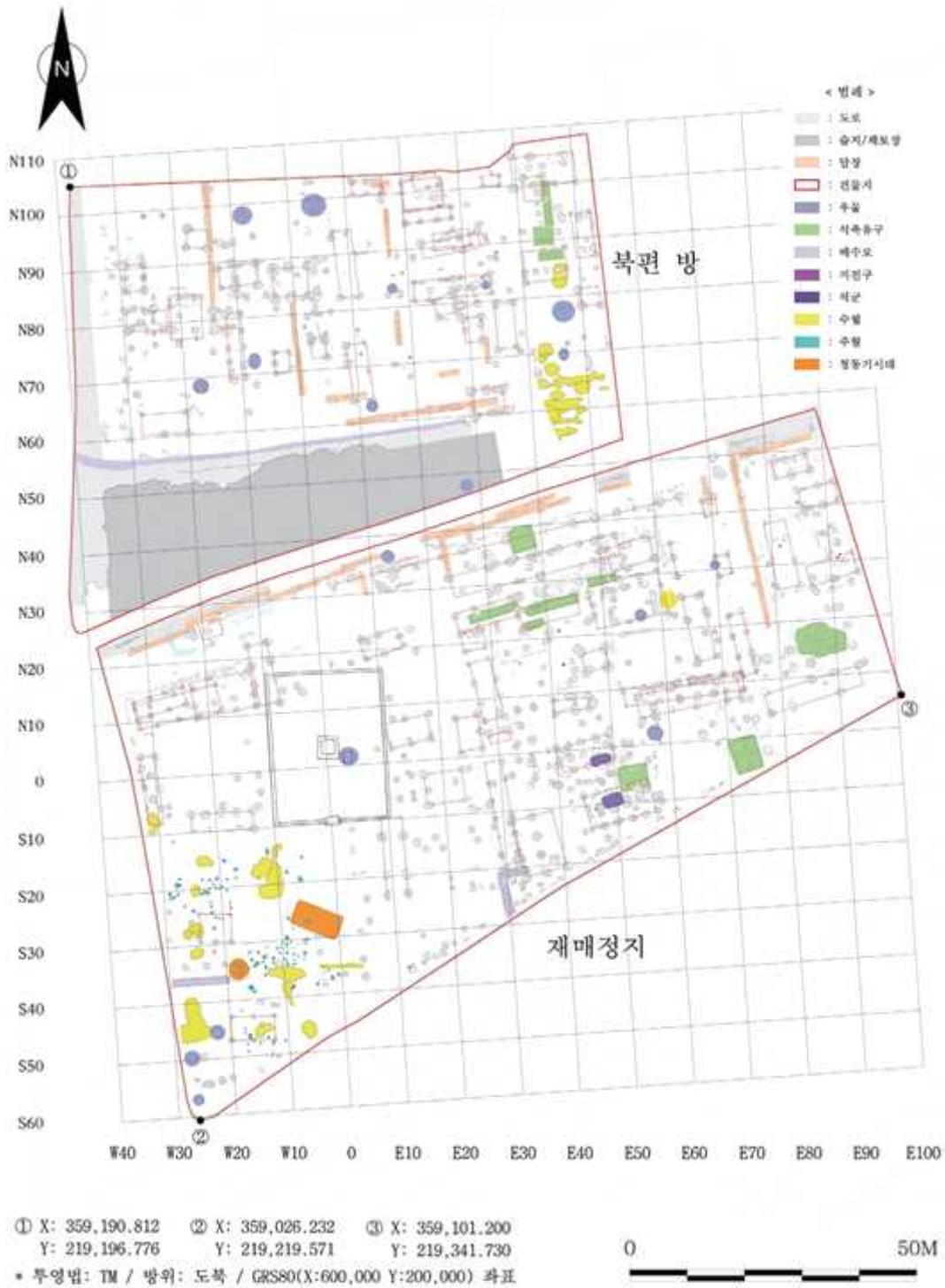
진입부 블라드



문화재 안내판



건물지 성토정비



재매정지 발굴조사 유구배치도(2013~201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채매정지 I 구역 유구분포도



재매정택 내 주요 유구 현황(신라 및 통일신라)



문화재 추가지정 구역 현황(남서→북동)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 개별심의지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전통한옥에 한함)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7구역	○ 별도심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8.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8.1.1. 계획의 목적

재매정 일원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보존정비활용계획[제도적 보존방안, 학술적 조사계획, 유적 정비계획, 유적 활용계획]에 따라 단계적 보존 대책이 필요

8.1.2. 범위 및 방법

8.1.2.1. 공간적 범위

- 대상지역 및 주변 연계 범위 : 재매정 주변 전체

- 주변 유적 연계 범위 : 남산, 월성 등

8.1.2.2. 내용적 범위

- 기 조사결과 및 현장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 문화유적 탐방 및 활용에 필요한 기본 시설 확충
-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대책 수립(보호구역 확대)
- 활용방안 및 관광자원화 계획 및 개발방안 모색
- 2030년 경주도시 기본계획에 맞춰 역사문화 관광벨트 내의 기본방향에 부합

8.1.3. 기본방향

8.1.3.1.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 문화재는 현 위치에 공간의 변형 없이 있어야 하고
- 지속적인 보존·관리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 주변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산업의 콘텐츠로 개발·활용 가능성 제시

8.1.3.2. 문화재 수리의 원칙

- 기존 양식, 기법대로 수리하고, 주변환경의 변화 없이 보존
- 재료는 문화재의 붕괴 훼손될 우려, 보강하지 않고는 구조적인 위험에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교체, 대체, 보강
- 수리 전 상태, 사용재료, 수리절차와 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 수리는 최소범위로 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보수정비시 색, 색조, 결, 외관,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 수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해 수리한다.

8.1.3.3. 유적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 유적 정비계획의 필요성 강조

- 유적 정비계획은 유적이 지닌 가치 보존과 보전·관리 및 활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유적 정비는 단위 유적별 또는 구간별 기본적인 정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 실천
- 유적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 정비계획(원형보존, 복원, 정비 등)
- 원형 고증을 전제로 하고, 복원은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

■ 유적 정비 시 고려사항

- 역사적 고증 및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
- 불확실한 고증에 따른 과도한 정비는 지향
-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정비목표 설정
-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 관련법규·재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수립

■ 추진 계획 설정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안) 마련
- 역사성 및 원형 고증을 위한 단계별 조사계획 수립
- 유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 등
- 유적의 실제적 활용, 보존관리를 위한 역사문화 종합활용공간 계획
- 유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미래지향적 편의시설 확보
- 유적의 특성에 맞는 역사교육의 장 및 문화관광 명소로 활용되도록 계획이 필요
- 주변 지정, 비지정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아우르는 유적의 스토리텔리 계획이 필요하다.
-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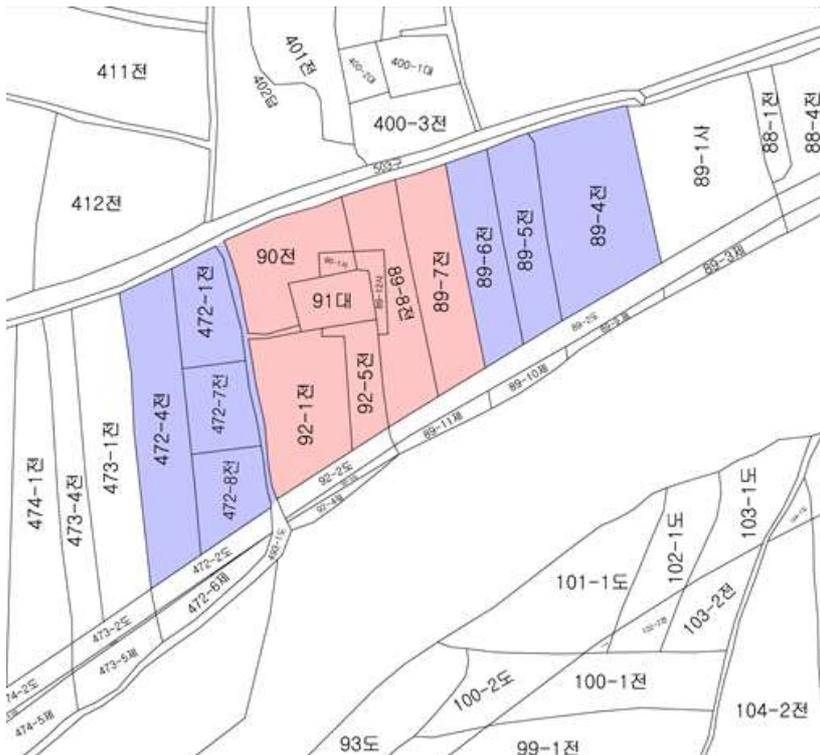
8.2. 유적 정비

8.2.1. 문화재구역 확대지정 및 사유지매입 계획¹⁾

8.2.1.1. 문화재구역 확대지정

총 5차에 걸쳐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재매정의 문화재구역 이외에 재매정택 경역으로 추정되는 영역이 확인되므로 발굴조사 결과 재매정택 경역으로 추정되는 영역에 대한 추가 지정이 필요

8필지 7,239m²



1)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경주 재매정 종합정비계획』에서는 재매정지와 남천 사이의 도로 지적을 문화재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번 문화재구역 추가는 수변지역을 제외한 재매정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 동편의 발굴조사한 3필지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서편의 5필지로 계획을 수정하였음

지번	면적(m ²)	소유자
교동 89-4	1,848	경주시
교동 89-5	876	경주시
교동 89-6	896	경주시
황남동 472-1	652	사유지
황남동 472-4	1,593	사유지
황남동 472-7	595	사유지
황남동 472-8	595	사유지
황남동 493-1	184	문화재청
계	7,239	

8.2.1.2. 사유지매입

기 진행된 발굴조사의 진행선상에서 재매정택의 담장, 도로, 문지 등의 추가 확인(발굴)을 위해 재매정지 서측의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임

추가 발굴 및 정비를 위한 매입 대상 사유지는 총4필지로 대상지 서쪽의 472-1, 472-4, 472-7, 472-8번지이며, 매입 대상지 면적은 총 3,435m²

8.2.2. 추가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계획

8.2.2.1. 추가 발굴조사계획

발굴결과에 따른 재매정택 경역으로 추정되는 재매정지 서편을 추가 발굴하여 전체 경역 확인 및 정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

추가조사는 담장과 도로 등의 영역을 확인하고, 삼국사기 옥사조에서 기술하는 진골귀족(사방문 가능) 금입택의 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추가 발굴 대상지는 서편의 황남동 472-1, 472-4, 472-7, 472-8번지 3,435m²와 그 사이 도로 황남동 493-1번지 184m²로 발굴면적은 총 3,619m²

재매정지 남편의 경우 재매정택 전체 영역 확인과 남천과 재매정지와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나 기 발굴조사에서 재매정지의 남쪽과 북쪽의 경계는 어느 정도 확인되었고, 남편은 남천과 접한 수변공간으로 성격이 명확하므로 추가 발굴 여부는 여타 상황 발생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음

8.2.2.2. 학술연구계획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주거건축의 특성과 도시구조, 생활상을 연구하여 재매정택의 정비 및 향후 통일신라 관련 정비복원 등의 자료로 활용

장기추진계획으로 재매정택의 일부 건물 복원계획이 있으므로 통일신라시대 건축물 복원을 위한 고증연구를 진행하여 건물 복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함
더불어 복원건물 내부공간을 전시 및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시 생활상을 바탕으로 하는 내부 공간구성 및 생활도구 등의 연구도 필요함

구분	분야	연구내용
1	역사, 사상	- 김유신 및 재매정택의 역사적 의미 등
2	도시, 건축, 조경 등	- 도시구조, 주거건축, 식생 등
3	고미술, 민속의례	- 민속·의례, 출토 유물 분석 등
4	활용, 콘텐츠	- 콘텐츠 개발(교육, 체험, 답사, 안내, 이벤트) 등

8.2.3. 동선 계획

8.2.3.1. 접근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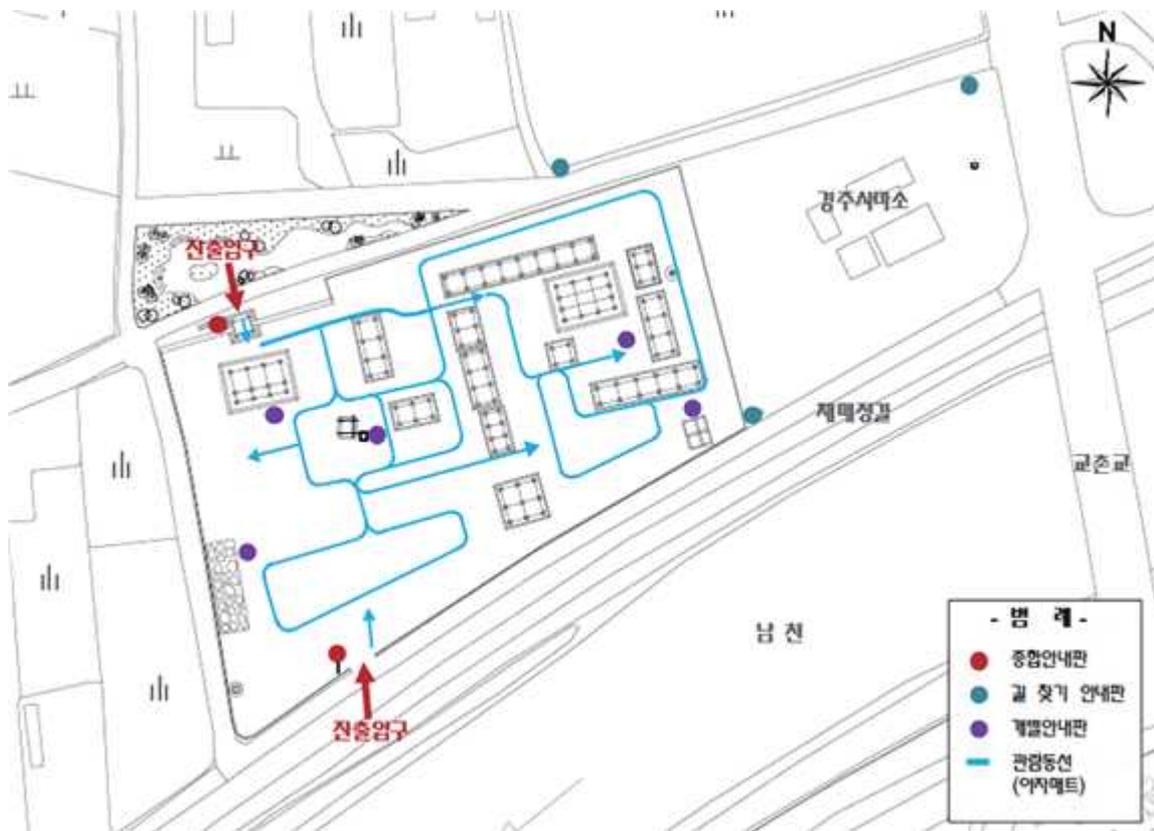
대상도로	방법	정비내용	비고
① 재매정길-남쪽	정비	- 발굴조사 후 결과에 따라 도로 폐쇄 또는 기존의 보차혼용 도로로 정비	단기(4년)
② 재매정 옛 길	제거 신설	- 발굴조사 후 결과에 따라 기존 도로 철거 후 옛 길(신설-보행자 전용도로)회복	단기(4년)
③ 재매정 옛 길	정비	- ②번 도로 발굴결과와 2014년 발굴결과로 확인된 ③번 도로의 옛 길 범위 등을 바탕으로 하여 옛 길 회복을 위해 정비	단기(4년)
④ 재매정길-북쪽	정비	- 2014년 발굴결과로 확인된 ④번 도로의 옛 길 범위를 바탕으로 옛 길 회복을 위해 정비	단기(4년)
⑤ 재매정 옛 길	신설	- 2014년 발굴결과로 확인된 ⑤번 도로를 옛 길 회복을 위해 정비함	단기(4년)
⑥ 교촌길	정비	- 현재 보차분리 도로이긴 하나, 1면만 인도가 있어 다른 1면 또한 인도로 정비	중기(3년)
⑦ 일정교 및 월정교 주차장	정비	- 현재 보차분리 도로로 다른 1면의 인도 추가 정비	중기(3년)
⑧ 남천 제방길	정비	- 남천 북측의 제방길이 보행로로 정비가 되어 있으나, 일부 포장과 벤치 등의 보수 필요	중기(3년)

8.2.3.2. 관람동선 계획

관람동선은 재매정지 유적 전체를 충분히 관람(유적 가치 체험) 할 수 있도록 관람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유적과의 시각적 연계성을 통해 유적 가치 체험 효과를 높임

관람객의 출입은 대상지 남, 북측 진출입구로 하고, 내부동선의 흐름은 재매정 및 주변 건물지(공적 공간)→건물지(사적 공간)→건물지 및 석축유구(친수공간) 등의 순으로 구성

관람 시 출입구에는 종합안내판, 주요 유구에는 개별 안내판을 통해 유적 전체 및 개별 유구의 개요와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모서리에는 열린 공간을 통해 주변 유적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



재매정 관람동선 계획

8.2.4. 유적·유구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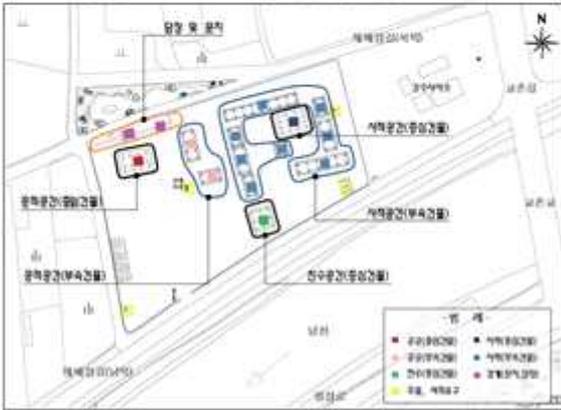
8.2.4.1. 건물지

■ 건물지 정비방향

건축물 정비·복원을 위해 선행 연구와 복원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고증연구와 자문·검토과정을 거쳐서 진행

각 건물지 정비는 주요 공간별로 중심건물과 부속건물로 위계를 구분하여 정비하고, 건물지 성격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건물지 정비의 위계는 중심건물, 부속건물, 문지 및 담장 등의 순으로 구분하고, 위계별 정비방향은 토단의 높이 등의 차등을 두어 정비



2단계(중기 추진계획) 계획에서의 건물지 정비는 유구복토 위 유구표시(토단 위 초석 표시)정비로 추진

3단계(장기 추진계획) 계획에서는 1단계부터 진행한 건물복원을 위한 고증연구를 통해 일부 건물의 복원을 검토하여 진행

■ 건물지 정비의 단계별 추진계획

● 중기 추진계획(2단계)

각 공간별(공적, 사적, 친수공간) 중심 건물지와 부속 건물지는 유구 복토 후 토단 위 초석정비(유구표시 정비)로 규모와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

유구 복토 후 성토하여 토단을 조성하고 잔디로 정비하여 마당의 마사토 포장과 구별되도록 하며, 토단 위에는 초석을 배치

토단의 최하부에는 토단의 흠이 유실되지

않도록 바닥 면석(외부에 노출 최소)으로 정비하고, 건물지 토단상부의 초석은 화강석을 치석(사각 초반에 2단의 원형주좌 초석, 원형주좌의 운두는 3~5cm정도-통일신라시대 초석의 주좌높이는 낮은 편임)하여 정비하고, 초석위치 주변으로 흠다짐을 충분히 하여 초석의 위치가 변화되지 않도록 조성

● 장기 추진계획(3단계)

재매정 공적공간의 중심 건물지와 부속 건물지는 장기 추진계획으로 면밀한 고증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원을 검토하여 진행

단기 추진계획에서부터 건물 복원을 위한 고증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후 전문가 자문과 문화재위원회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진행

중심 건물의 내부 공간은 고증연구를 통해 당시 모습으로 재현하여 전시, 체험, 교육할 수 있도록 하며, 부속건물 중 일부는 관람편의를 위한 시설로 활용

공간	중심건물	정비 방안
공적 공간	①번 건물	- 건물지는 유구 복토 후 토단 위 초석표시 정비로 하고, 토단의 각 면은 경사면으로 조성
사적 공간	④번 건물	- 중심 및 부속건물)의 정비 위계는 토단의 높이로 차등을 두어서 정비 - 최하단부는 흙 유실 방지를 위해 바다 면석(외부에 노출 최소)을 설치하며, 마당의 마사토와 구분되도록 잔디를 식재
친수 공간	⑬번 건물	- 초석의 위치는 발굴당시 적심위치를 기준으로 배치, 사각 초반에 2단의 원형주좌)를 기준으로 정비 - 건물지는 유구 복토 후 토단 위 초석표시 정비로 하고, 토단의 각 면은 경사면으로 조성
문지	⑭번 건물	- 건축형식은 3단의 계단위에 목조의 일각문으로 하고, 지붕은 맞배 지붕으로 계획하였음(건물지 중 가장 낮은 위계의 건물형식으로 계획)
담장		대상지 북서쪽 문지 옆 담장지 길이 약 35m를 통일신라시대 담장 형식으로 정비함
우물		신라시대 및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3개 우물(재매정, 1호, 6호 우물)을 대상으로 정비 원형 복원이 가능한 부분까지 정비하여 노출 전시
석축 유구		방형의 6호 석축유구를 신라시대 금입택의 개인 얼음 창고인 빙고로 추정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되므로 유구복토 후 발굴 당시 유구형태로 복제 전시

8.2.5. 주변정비계획

8.2.5.1. 옛 길 정비 및 포장

■ 옛 길 정비

통일신라시대 옛 길인 ③, ④, ⑤번 길과 ②번 길(③번 길의 연장 길-옛 길로 추정, 향후 추가 발굴을 통해 정확한 위치와 규모 확인 필요)

⑤번 길은 발굴결과로 확인된 당시 도로의 위치, 규모를 기준으로 원형복원 개념으로 정비(신설-마사토 포장, 보행자 전용)

③, ④번 길 또한 발굴결과에 따라 원형(위치, 규모 등)복원 개념으로 정비(정비-기존도로 위 황토경화포장, 보행자 전용)

②번 길은 ③번 길의 연장 길로써 옛 길로 추정되므로 향후 추가 발굴결과에 따라 옛 길 원형으로 정비(신설-마사토 포장, 보행자 전용)

①번 길은 향후 발굴결과에 따라 옛 길 또는 이동도로(정비-기존도로 위 황토경화포장, 보차혼용도로)로 정비

■ 배수계획

지형이 거의 평지이므로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되 정비 시 대상지 각 모서리 방향으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구배를 정비 조성

남서쪽의 기존 집수정 외 남동쪽에 집수정 1개소 추가 설치



8.2.5.2. 안내표지판 및 조명계획

■ 안내표지판 계획

1	종합 안내판	재매정지의 배치와 관람동선 등	- 진출입구(남쪽, 북쪽)
2	영역별 안내판	주요 영역의 개요 및 설명	- 주요 영역의 핵심지점(공적 공간, 사적 공간)
3	개별 안내판	중요 유구의 개요 및 설명	- 중요 유구의 전면(재매정, 중심건물, 석축유구, 석물)
4	길찾기 안내판	외부재매정지 / 진입로, 길찾기 안내	- 진입로 변 갈레길(재매정길 남, 북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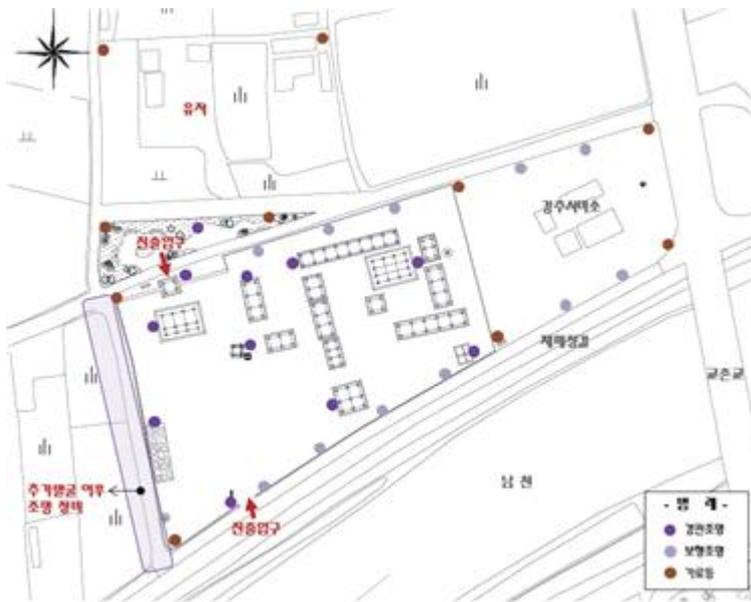
■ 조명계획

조명시설은 안내시설 또는 유적지 훼손을 주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유적경관로 조화를 고려하여 재료 및 디자인을 선택

가로등은 유적정비 공간1, 2(모서리)에 총 6개소, 관람편의공간(모서리)에 2개소, 진출입공간에 2개소(교촌길, 재매정길 남북측 교차점) 설치

보행등은 야간이용 시 관람객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1m이하의 낮은 높이로 관람동선 경계부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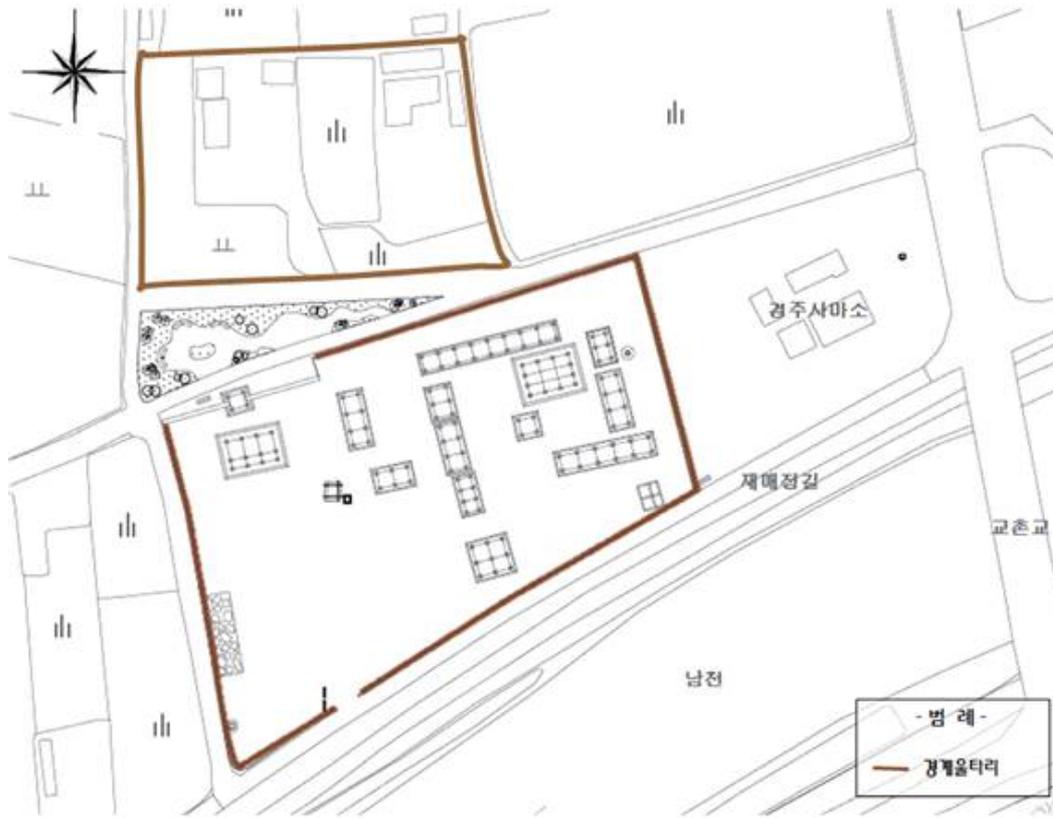
경관조명등은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과도한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



8.2.5.3. 경계울타리 계획

일부 복원되는 담장과 출입구를 제외한 곳에 재매정 영역을 한정하기 위하여 친환경 경계울타리를 조성, 유적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유적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간소한 형태와 주변 유적의 경계울타리와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목재 울타리로 조성하여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유적을 시각적으로 차단하지 않도록 개방감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높이(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높이)를 설정하여 계획



8.2.6. 관람 및 편의공간 계획

유적정비 공간-1과 유적정비 공간-2사이에 있는 영역은, 발굴결과 채토장으로 확인된 곳이므로 시설조성 시 매장유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호한 장소 편의 및 휴게시설(벤치 등),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적정비공간에 대한 관리 및 관람객에게 편의(안내, 휴식, 만남 등)를 제공 대상지 주변에 휴게 및 녹지시설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식재와 일부 편의시설(벤치 8기, 휴지통 3기 등)을 설치

■ 야외전시물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석물유구와 재매정 내 출토석재를 한 곳에 모아 관리·전시하여 야외전시장의 기능

정비 유구와 관람동선을 고려, 남쪽 출입구와 인접한 재매정 남서쪽 위치에 배치

■ 전시시설

대상지 내 유적정비공간-1의 공적공간에서 중심건물과 부속건물 총 3개의 건물을 장 기적으로 복원·정비하여 내부공간을 전시시설로 활용

전시 프로그램은 재매정택 및 김유신장군 관련 역사(관련 인물 및 사건 등)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휴게공간 계획

유적경관과 조화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시설 조성(녹지공간, 벤치, 쓰레기통 등)을 통해 관람을 위한 편의기능을 제공

인근에 교촌 한옥마을이 위치하여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과도

한 시설계획은 지양, 기능은 휴식, 만남, 안내 등

■ 화장실 및 주차장 계획

교촌한옥마을과 월정교 주차장 내에 화장실이 있으므로 대상지 내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음

재매정지와 인접하여 월정교 주차장과 교촌한옥마을 임시주차장이 위치함으로 신규 주차장 건립보다는 기존의 주차장을 이용하여 접근을 유도

8.3. 활용계획

8.3.1. 활용방향

재매정 및 김유신 관련하여 교육, 홍보, 답사, 안내, 이벤트를 위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주변 유적(신라왕경 유적, 한옥마을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경주시의 다양한 이벤트 등과 접목하여 유적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8.3.2. 문화콘텐츠(역사교육자료, 이벤트 등) 개발

- 정비와 함께 경주시 차원의 김유신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발굴
- 김유신의 생애에 집중하여 인물 중심 축제 콘텐츠 개발
- 통일신라시대 생활·문화상 연구
- 시대를 반영한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예: 신라방, 금입택, 김유신 등 통일신라시대 인물과 제도에 대한 역사교육자료)
-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 및 테마 개발
- 재매정에 담긴 역사·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하여 신라왕경 및 경주 시내 관광자원 연계
- 천관녀와 김유신, 김유신의 생애 등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코스 개발(예: 재매정-천관사지, 재매정-김유신장군묘)
- ‘김유신 BIKE 둘레길’과 같이 테마가 있는 복합개발 추진
- ‘신라왕경 핵심유적’과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

8.3.3. 활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신라왕경의 성장과 함께 본 재매정택(금입택)
- 신라시대의 금입택 연구를 통한 통일신라시대 건축 콘텐츠
- 재매정택은 통일신라시대의 금입택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신라시대 생활상 및 문화상
- 김유신 장군의 일대기를 통한 통일신라시대 흥망성쇠
-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유래에 얽힌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개발
- 재매정택의 의미와 김유신 일생에 대한 문화 콘텐츠
- 재매정 등 경주시 내 우물에 대한 스토리텔링
- 당시 생활상 재현(복원된 건물 내부), 재현용품 확충

8.4.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1단계(단기) 4년(2018~2022)	2단계(중기) 3년(2022~2025)	3단계(장기) 3년(2025~2028)	
1.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	재매정택 관련 유적 ①유적정비공간 - I 구역 3필지(89-4, 89-5, 89-6) ②추가조사예정구역 -4필지(472-1, 472-4, 472-7, 472-8)			
2. 사유지 매입	사유지 매입영역 (재매정택 영역 확인 등을 위한 추가 발굴구역) ①재매정지 서측 4필지 (472-1, 472-4, 472-7, 472-8)			
3. 학술 조사	발굴 (재매정택 영역확인 등) ①재매정지 서측 5필지 (472-1, 472-4, 472-7, 472-8, 493-1)			
	연구 정비활용을 위한 고증연구 ① 역사(재매정 관련 역사적 의미) ② 도시, 건축(도시구조, 주거건축 등) ③ 고미술, 민속의례(출토유물 등) ④ 활용(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고증연구(건물, 경관정비) ①건축(신라 귀족주택 등) ② 활용(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4. 정비 복원	설계 감리	실시설계 → 주요 유구, 주변 환경, 관람편의시설 등 / 각 단계별로 설계 및 감리		
	유적 유구	유적정비공간-2 ①포장&배수정비 ②경계울타리	유적정비공간 ①건물지(총14동) ②담장(약35×1.4m) ③우물(총3기)-재매정, 1,6호 ④석축유구(6호) ⑤수로(친수공간-중심건물 연결)	일부 건물복원 ①유적정비 공간 - I 구역 공적공간 총3동 (중심1동, 부속건물2동) → 건물 및 내부공사
	주변 환경	추가 발굴이후 정비 ①탐방로 정비(옛 길 복원) → 주요 접근로(옛 길) : 5개도로 신설 2개기존 도로정비 3개(포 장 등) ②배수로 정비(대상지 주변)	유적정비 -1&관람편의&수변공간 ①관람로 정비 ②배수정비 ③경계울타리-(유적정비 공간) ④포장정비 ⑤식재정비-(관람편의&수변공간) ⑥안내표지판 정비 ⑦경관조명 정비	
편의 부대 시설	관람편의&수변공간 ①포장 & 식재정비 ②벤치 & 쓰레기통 유적정비공간-1 ①야외전시물(석물유구) 정비			
활용	* 활용 프로그램 개발 ①교육, 홍보, 안내, 답사, 행사 등		* 활용 콘텐츠 구축 및 전시이용 활성화	

8.5. 단계별 소요예산 계획

항목		상세내용	소요예산 (천원)	비고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		재매정지 서편, 동편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20,000	
사유지 매입		추가 발굴을 위한 토지 매입 4필지 (황남동 472-1, 472-4, 472-7, 472-8)	감정평가 후 시행	
학술조사	발굴조사	추가 발굴(재매정지 서편)1)	574,800	
	학술연구	* 정비활용 연구(기반연구) → 역사, 건축, 조경, 고미술, 활용 등	300,000	
		* 복원건물 고증연구(심화연구) * 활용 프로그램 개발	300,000	
	소계		1,174,800	
정비 공사	1단계	유적정비	* 포장 및 배수정비(유적정비 공간-2) * 경계울타리 정비(유적정비 공간-2)	125,100
		주변정비	* 탐방로 정비 (옛길 복원) * 배수로 정비(대상지 주변)	970,000
	2단계	유적정비	* 건물지 14동 - 복토 후 초석정비 * 담장 * 우물 3개소(재매정(보수정비), 1, 6호 (신설정비)) * 6호 석축유구 * 수로(친수공간-중심건물 연결)	1,128,400
		주변정비	* 관람로 정비(야자매트-주요 관람로) * 배수정비(유적정비공간-1, 관람편의공간) * 경계울타리정비(유적정비공간-1) * 포장정비(유적정비공간-1) * 식재정비(관람편의공간) * 안내표지판 정비 (종합, 개별, 길찾기 안내판) * 경관조명 정비	1,259,540
		편의시설	* 포장정비(관람편의 및 수변공간) * 벤치(관람편의 및 수변공간) * 쓰레기통(관람편의 및 수변공간) * 야외전시물(석물유구/유적정비공간-1)	2,711,980
	3단계	유적정비	* 건물복원-신라양식 * 내부전시 등	1,600,000
		부대공사	* 건물 내 전기 통신시설 * 건물 내 소방시설 * 건물 주변 영상감시장치	90,000
	소계		7,885,020	
	부대 비용	설계비	1~3단계(문화재수리설계요율)	545,200
		감리비	1~3단계(문화재수리설계요율)	149,400
소계		694,600		
총사업비			9,774,420	

8.6. 관리운영계획 및 기대효과

8.6.1. 관리운영계획

8.6.1.1 기본방향

사적을 적절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적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이해와 사적의 중요 구성 요소를 정확히 파악

사적활용의 관점에서 관람객 및 지역 주민에게 안전성 ·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해당 사적 정비의 목표가 계획·설계·공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지 또는 관리 및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사적의 보존·활용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필요에 따른 보존 조치 강구

주변에 재매정지와 관련된 유적지와 연계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마련

대상지의 관리운영은 경주시가 주체가 되어 총괄적인 관리를 시행하되, 지역주민 및 학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적 관리를 유도

관람객의 안전관리와 서비스관리, 이미지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운영체계를 수립하며, 각 시설물에 대한 훼손, 재해, 안전, 보존처리의 예방대책을 수립

8.6.1.2 운영주체에 의한 관리운영방안

시설에 대한 직영방식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며, 인력 및 예산을 절감

민간위탁관리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수익성과 능률성이 요구될 경우, 서비스가 지역단체 안에서 분산되거나 일정한 지역주민이 이용할 경우, 민간부문 대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순 반복적이거나 시설관리가 중심일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혼합운영관리방식은 직영방식과 민간위탁의 절충형으로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설 특성에 따라 운영주체를 달리 할 필요가 있음

경주 재매정지의 경우는 현재의 경주시 중심의 시설관리방식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학교 또는 민간단체등과 연계, 상호 · 보완하는 협력체계의 관리방식이 필요

8.6.1.3 공간적 관리운영방안

재매정지의 보존과 정비에 따른 활용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보존·정비공간(유적 정비공간)과 활용공간(관람편의 및 진출입공간)을 구분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문객의 동선을 유도

보존·정비중심 공간은 안내시스템을 갖추어 보존관리와 관람안내 위주로 운영, 활용중심 공간은 진출입공간 및 관람편의공간으로 구분

1) 발굴조사 소요예산은 경주 재매정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황남동 493-1번지 도로부분 184㎡를 추가 발굴구역에 포함시켰으므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진입마당은 관람안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관람편의공간은 관람객에게 자유스러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
유적정비공간은 관리자의 관리범위에서 진행되도록 유도

8.6.1.4 유지관리 계획

구체적인 유지관리 목표 및 유지관리 수준을 정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일정 기간의 업무 흐름을 나타내는 작업계획표를 작성

설정된 유지관리목표 및 유지관리수준에 기초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조직의 규모·능력에 따라 어느 시기에 업무가 극도로 집중하지 않도록 업무의 배분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음

관람객이 집중되는 시기(휴가철, 축제, 연말연시, 지자체의 행사 등) 및 학교 교육 등과 연계한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시기 등 업무량이 증대하는 시기 등을 파악

유지관리목표 및 유지관리수준을 설정한 후, 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

8.6.1.5 점검 및 유지 조치

유적 및 유구 등의 보존 및 그 보존시설, 활용 및 활용시설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양호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기본적인 유지관리와 상황에 따른 점검 및 유지조치를 실시

■ 일상적인 유지관리

일상적인 유지관리업무는 주로 일상적인 공개·활용 업무에 있어서 사적의 주요한 부분의 보존과 활용에 지장이 없는가를 파악하고, 경미한 수리에 의해 이것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전문 지식을 동반하지 않고 가능한 유지관리업무, 단순 순찰을 기본으로 사적 전반에 이상유무 확인, 간단한 청소·제초, 경미한 수리 등

■ 정기적인 유지관리

사적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 상황의 확인 및 보존을 위한 경미한 예방조치에 의해 사적의 보존과 활용에 지장이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미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정기적인 유지관리에서는 일상적으로 실시하는데 업무상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업자 및 전문가의 협력 하에 실시

일상적인 유지조치에서 실시할 수 없는 규모의 청소·제초 외에 보존처리 등의 효과, 유지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제의 도포·살포 등을 실시하거나 보존시설에 있어서 건물·설비·기기 등의 보수관리와 안전관리상의 경미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정기적인 유지관리는 담당 직원이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담당 직원의 기능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관해서는 전문업자 또는 전문가의 협력 하에 적절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임시적인 유지관리

임시적인 유지관리업무는 사적의 지정지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태풍·지진·화재 및 인위적인 재해 등이 생긴 경우와 임시적인 행사를 포함한 특별한 공개·활용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필요

임시적인 순찰 및 긴급적 및 응급적인 조치, 필요에 따라 경미한 보수·개선의 조치, 훼손 등의 확대·악화 등을 방지하고, 본격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초기 대응 준비를 갖추어야 함

행사 개최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적의 구성요소의 보존관리 및 관람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설물의 설치 및 인원의 보충·배치 등에 있어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8.6.2. 기대효과

8.6.2.1. 사회·문화적 측면

경주 재매정지는 신라시대에 조성된 주택지로 발굴조사를 통해 조사된 유구와 유물이 말해주듯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매우 중요한 유적지로서의 의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과 주변의 조선시대 유적(교촌한옥마을, 사마소) 등과 더불어 역사·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경주시민의 문화적 유대감 형성에도 기여

주변 문화재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통합적인 보존정비 및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역사도시 경주의 정체성 확립 및 민족문화의 재정립에 이바지 할 것으로 여겨 짐

8.6.2.2. 지역적 측면

국내 관광산업은 2005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를 통해 개인 및 가족단위의 여가시간 증가를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패 턴 또한 변화하고 있음

경주시는 국내 최대의 역사문화도시로 문화유산 답사 및 견학의 관광패턴에서 문화유산과 더불어 휴식제공, 재충전개념의 관광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관광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면서 유적보존 및 활용을 통한 새로운 역사문화 자원 개발은 관광자원들과 우수한 산업들이 융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따라서 경주 재매정 유적정비는 관람객에게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이 성장하는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9. 종합의견

- 경주 재매정은 1991~1993년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문화재 구역이 설정되었음.
- 이후 2013~2014년까지 두 차례 추가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현 문화재구역의 동편 일대에서 건물지가 연속되고 있음이 밝혀져 동편의 3필지[89-4, 89-5, 89-6]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신청한 것임.

- 또한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참조하면 동서방향으로는 건물지가 연속되고 있어 서편 황남동의 4필지[472-1, 472-4, 472-7, 472-8]와 그 사이의 도로[493-1, 184 m²]도 문화재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한 사항임.
- 이러한 사항을 현지조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발굴조사에 의해 동측으로 확장되는 건물지는 유구의 편년, 유구의 성격이 재매정과 일체성, 장소성을 갖는 다고 할 수 있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나, 서편의 미확인 필지는 향후 시·발굴을 통해 유구의 존재를 확인한 후, 그 성격 규명에 따라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내 4필지 694㎡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검토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추가지정 : 4필지 694㎡(풍납동 126-17, 155-15, 297-11, 237-1)
-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내 II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26-17, 237-1/'21.05.10.)
 - 해당지번은 서울 풍납동 토성의 핵심시설지구, 동성벽 매입/정비지구(사적 지정·매입 예정지에 해당)로 추가 사적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2)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55-15/'21.04.26.)
 - 해당지번은 서울 풍납동 토성의 동성벽 매입/정비지구(사적지정·매입 예정지에 해당)로 추가 사적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3)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97-11/'21.05.10.)
 - 해당지번은 서울 풍납동 토성의 서성벽 복원지구(사적지정·매입 예정지에 해당)로 추가 사적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송과구 풍납동	126-17	대	155	155		
2	송과구 풍납동	155-15	대	116	116		
3	송과구 풍납동	297-11	대	212	212		
4	송과구 풍납동	237-1	대	211	211		
계		4필지		694	694		

5. 공주 수촌리 고분군 내 방문자센터 건립 기본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적 「공주 수촌리 고분군」 내 방문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방문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문자센터 건립사업의 기본계획을 검토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 2005.03.03. 지정)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방문자센터 건립 기본계획 검토>
 - 위치 : 공주 수촌리 고분군 내
 - 사업내용
 - 규모/층수/높이 : 338.4m² / 지상1층 / 6.5M
 - 구조/마감 : 철근콘크리트구조 / 노출콘크리트 마감
- (4) 신청인 의견
 - 현재 수촌리 고분군에 방문자센터가 없어 방문객에게 유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이에, 유적 진입부 초입에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여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관람 편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명, 보류 12명

건 명	내 용	결 과									
2. 고양 행주산성 주변 무장애 생태·역사탐방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3번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행주산성 무장애 주변 생태 탐방로(무장애 동선) 설치 <table border="1" data-bbox="456 421 1107 779"> <thead> <tr> <th data-bbox="456 421 539 465">구분</th> <th data-bbox="539 421 823 465">'21년 소위3차-보류</th> <th data-bbox="823 421 1107 465">금회 변경</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6 465 539 622">설치 길이</td> <td data-bbox="539 465 823 622"> 총 750m - 행주양수장 구간 : 150m - 수변 구간 : 600m </td> <td data-bbox="823 465 1107 622">좌동</td> </tr> <tr> <td data-bbox="456 622 539 779">설치 폭(m)</td> <td data-bbox="539 622 823 779">3.5m</td> <td data-bbox="823 622 1107 779"> 최대 3.0m - 행주양수장 구간 : 2.0m - 수변 구간 : 3.0m </td> </tr> </tbody> </table>	구분	'21년 소위3차-보류	금회 변경	설치 길이	총 750m - 행주양수장 구간 : 150m - 수변 구간 : 600m	좌동	설치 폭(m)	3.5m	최대 3.0m - 행주양수장 구간 : 2.0m - 수변 구간 : 3.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자문위원회를 구성, 사업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아 추진
구분	'21년 소위3차-보류	금회 변경									
설치 길이	총 750m - 행주양수장 구간 : 150m - 수변 구간 : 600m	좌동									
설치 폭(m)	3.5m	최대 3.0m - 행주양수장 구간 : 2.0m - 수변 구간 : 3.0m									
3. 수원 화성 주변 주거복합건물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54-1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0m 이격/8, 9구역,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득할 것)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6,404.0㎡ - 건축면적/연면적 : 3,834.63㎡/43,778.62㎡ - 건물규모 : 지하3층~지상 15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동(48세대) : 9층(32.85m) · 102동(98세대) : 15층(50.59m) · 102동(98세대) : 15층(50.59m) - 최고높이 50.59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4.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하리항 어촌뉴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 일원 (문화재보호구역과 연접) ○ 사업내용 <table border="1" data-bbox="456 1406 1107 1984"> <thead> <tr> <th data-bbox="456 1406 544 1451">사업명</th> <th data-bbox="544 1406 799 1451">시설규모</th> <th data-bbox="799 1406 986 1451">방식 등</th> <th data-bbox="986 1406 1107 1451">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6 1451 544 1984">물양장 보강</td> <td data-bbox="544 1451 799 1984"> [1안] (전면보강) L=94m, B=5m, A=470㎡ (상부보강) L=70m, B=18m (상부재포장) L=24m, B=18m - L=75, A=1,300㎡ [2안](원상복구) * 매립없음 (현재 단면 유지) L=70m, B=18m (상부재포장) L=24m, B=18m </td> <td data-bbox="799 1451 986 1984"> (당초방식) -월파 방지 기능 확보 및 구조물 안정성 확보 (제거 후 재설치) -월파 방지 미확보 </td> <td data-bbox="986 1451 1107 1984">1구역</td> </tr> </tbody> </table>	사업명	시설규모	방식 등	비고	물양장 보강	[1안] (전면보강) L=94m, B=5m, A=470㎡ (상부보강) L=70m, B=18m (상부재포장) L=24m, B=18m - L=75, A=1,300㎡ [2안](원상복구) * 매립없음 (현재 단면 유지) L=70m, B=18m (상부재포장) L=24m, B=18m	(당초방식) -월파 방지 기능 확보 및 구조물 안정성 확보 (제거 후 재설치) -월파 방지 미확보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물양장 보강은 2안으로 추진 - 알림터 신축은 해경 초소 철거 협의 후 시행 - 굴착지역은 입회조사 등 실시 	
사업명	시설규모	방식 등	비고								
물양장 보강	[1안] (전면보강) L=94m, B=5m, A=470㎡ (상부보강) L=70m, B=18m (상부재포장) L=24m, B=18m - L=75, A=1,300㎡ [2안](원상복구) * 매립없음 (현재 단면 유지) L=70m, B=18m (상부재포장) L=24m, B=18m	(당초방식) -월파 방지 기능 확보 및 구조물 안정성 확보 (제거 후 재설치) -월파 방지 미확보	1구역								

건 명	내 용				결 과
	사업명	시설규모	방식 등	비고	
		[3안](표층 보수) (현재 단면 유 지)L=70m, B=18m	(상부만 재포 장)		
	호안 보강	- L=60m, B=2~8m, A=370m ² (확장)	블록식	1구역 *현지실 사 반영	
	알림터 신축	- 28.0m×6.0m, A=336m ² , 지상2층	어업휴게시설 위치	위치변경 *현지실 사 반영	
	어촌계 사무실	- 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도색, 내부공사 재축	1·2구역 (기준내)	
5.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울산시 중구 남외동 20번지 외 25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2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7,477m² - 건축면적 : 9,100m² - 연면적 : 127,763m² - 최고높이 : 46.9m - 규모 : 지하 2층, 지상 15층, 12개동, 802세대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후 재검토
6. 김제 벽골제 주변 용·배수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신두리 일대(문화재구역과 연결/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소, L=4.6km, 최대굴착 : H=0.3m · 용수로 규격 : 개거식, B×H = 0.6m×0.6m, 0.5m×0.5m - 배수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소, L=6.5km, 최대굴착 : H=1.2m · 배수로 규격 : 수로관, B×H = 1.5m×1m, 1m×1m, 1m×0.8m, 0.8m×0.7m, 0.6m×0.6m, 0.5m×0.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면 굴착 구간은 시굴조사 선행

건 명	내 용	결 과
7. 경주 옥산서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1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478-4(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기와잇기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 연면적 : 97.78㎡ · 최고높이 : 5.95m -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사토(V=356.2m³), 사면보호공 A=52m² · 우수공 : PE이중벽관(D300) L=90m, 빗물받이(H600) 5개소 · 구조물공 : 석축(0~1.5m) L=67m · 부대공 :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한옥 형태로 설계보완 후 재검토
8. 경주 옥산서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2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478-3(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기와잇기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 연면적 : 97.78㎡ · 최고높이 : 5.95m -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사토(V=751.8m³), 사면보호공 A=14m² · 우수공 : PE이중벽관(D500/D300) L=59/86m, 빗물받이(H600) 5개소, 집수정(0.6×0.6×1.0) 4개소 · 구조물공 : 석축(0~2.9m) L=86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A=227m² · 부대공 :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한옥 형태로 설계보완 후 재검토
9. 경주 옥산서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3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478-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기와잇기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 연면적 : 84.16㎡ · 최고높이 : 6.23m -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순성토(V=167.9m³), 사면보호공 A=10m² · 우수공 : PE이중벽관(D300) L=57m, 빗물받이(H600) 6개소 · 구조물공 : 석축(0~1.5m) L=52m · 부대공 :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한옥 형태로 설계보완 후 재검토

건 명	내 용	결 과
10. 경주 옥산서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4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478-1(문 화재구역으로부터 23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기와잇기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 연면적 : 84.16㎡ · 최고높이 : 6.23m -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사토(V=240.8m³) · 우수공 : PE이중벽관(D300) L=65m, 빗물받이(H600) 5개소 · 구조물공 : 석축(0~1.0m) L=56m · 부대공 :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한옥 형태로 설계보완 후 재검토
11. 경주 옥산서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5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478-2(문 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기와잇기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 연면적 : 84.16㎡ · 최고높이 : 6.23m -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사토(V=145.4m³), 사면보호공 A=37m² · 우수공 : PE이중벽관(D300) L=80m, 빗물받이(H600) 5개소 · 구조물공 : 석축(1.0~2.9m) L=43m · 부대공 :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한옥 형태로 설계보완 후 재검토
12. 경주 옥산서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6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478-2(문 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기와잇기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 연면적 : 97.78㎡ · 최고높이 : 5.95m -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순성토(V=169.2m³), 사면보호공 A=26m² · 우수공 : PE이중벽관(D500/D300) L=52/69m, 빗물받이(H600) 4개소, 집수정(0.6×0.6×1.0) 4개소 · 구조물공 : 석축(0~2.9m) L=98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A=246m² · 부대공 :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한옥 형태로 설계보완 후 재검토

건 명	내 용	결 과																					
13.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축사 적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7-58번지 외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2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강파이프구조, 시멘트 벽돌조 / 칼라강판, 칼라쉬트, 샌드위치판넬 - 최고높이 : 가동 7.01m / 나동 3.55m - 건축규모 : 지상 1층 / 2동 - 연면적 합계 : 2,187.59㎡(기존 1,511.68㎡ + 적법화 675.91㎡) - 대지면적 : 3,929.00㎡ - 건축용도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굴착깊이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악취저감 시설 완비 - 축사시설물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차폐식재 실시 																					
14.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축사 적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9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강파이프구조 / 칼라쉬트 - 최고높이 : 6.00m - 건축규모 : 지상1층 / 1동 - 대지면적 : 2,474.00㎡, 연면적 : 378.14㎡(적법화) - 굴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악취저감 시설 완비 - 축사시설물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차폐식재 실시 																					
15.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축사 적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손곡동 320-1 외 2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대지면적 : 899.00㎡ - 연면적(지상 1층) : 269.24㎡(적법화 : 193.19㎡, 가설건축물 : 76.05㎡) - 건물높이 : 4.57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악취저감 시설 완비 - 축사시설물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차폐식재 실시 																					
16. 부여 홍산현 관아 주변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 부속채의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25(문화재 구역으로부터 65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건축면적 50㎡, 높이 4.17m, 지상 1층 - 구조/용도 : 조적조·철골 / 제1종 근린생활시설(판매점) <p style="text-align: center;">< 기존 건물과의 비교표 ></p> <table border="1" data-bbox="454 1675 1109 1986"> <thead> <tr> <th>구분</th> <th>기존</th> <th>신청</th> </tr> </thead> <tbody> <tr> <td>구조</td> <td>조적조(벽돌)</td> <td>조적조/철골</td> </tr> <tr> <td>용도</td> <td>창고시설(창고)</td> <td>제1종근생(판매점)</td> </tr> <tr> <td>건축높이</td> <td>4.39m</td> <td>4.17m</td> </tr> <tr> <td>건축면적</td> <td>30.4㎡</td> <td>50㎡</td> </tr> <tr> <td>건 폐 율</td> <td>42.03%</td> <td>49.54%</td> </tr> <tr> <td>용 적 율</td> <td>72.42%</td> <td>79.92%</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신청	구조	조적조(벽돌)	조적조/철골	용도	창고시설(창고)	제1종근생(판매점)	건축높이	4.39m	4.17m	건축면적	30.4㎡	50㎡	건 폐 율	42.03%	49.54%	용 적 율	72.42%	7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구분	기존	신청																					
구조	조적조(벽돌)	조적조/철골																					
용도	창고시설(창고)	제1종근생(판매점)																					
건축높이	4.39m	4.17m																					
건축면적	30.4㎡	50㎡																					
건 폐 율	42.03%	49.54%																					
용 적 율	72.42%	79.92%																					

건 명	내 용	결 과																					
17.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9-1번지(문화재 구역으로부터 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3,260.0㎡ - 건축면적/연면적 : 156.9㎡/148.9㎡ - 건물규모 : 지상 1층 - 최고높이/구조 : 4.8m/철근콘트리트구조 - 수목식재 : 소나무 등(2~6m, 55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진행 																					
18.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사무소)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무갑리 549번지(문화재 구역으로부터 3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data-bbox="454 689 1109 1225"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신청인</th> <th style="width: 42.5%;">A</th> <th style="width: 42.5%;">B</th> </tr> </thead> <tbody> <tr> <td>신청면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97㎡ - 부지 : 784㎡ - 도로 : 13㎡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59㎡ - 부지 : 785㎡ - 도로 : 74㎡ </td> </tr> <tr> <td>건축면적</td> <td>155㎡</td> <td>155㎡</td> </tr> <tr> <td>연면적</td> <td>155㎡</td> <td>155㎡</td> </tr> <tr> <td>최고높이</td> <td>7.94m (지상1층, 경사지붕)</td> <td>7.94m (지상1층, 경사지붕)</td> </tr> <tr> <td>구조</td> <td>일반철골조</td> <td>일반철골조</td> </tr> <tr> <td>구조물 설치</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형옹벽(H=1.0m) : 19m - 석축쌓기(H=0.5~1.2m) : 47.2m - 웬스설치(H=1.0m) : 142m - 아스콘포장(T=325mm) : 1,293㎡ </td> </tr> </tbody> </table>	신청인	A	B	신청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97㎡ - 부지 : 784㎡ - 도로 :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59㎡ - 부지 : 785㎡ - 도로 : 74㎡ 	건축면적	155㎡	155㎡	연면적	155㎡	155㎡	최고높이	7.94m (지상1층, 경사지붕)	7.94m (지상1층, 경사지붕)	구조	일반철골조	일반철골조	구조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형옹벽(H=1.0m) : 19m - 석축쌓기(H=0.5~1.2m) : 47.2m - 웬스설치(H=1.0m) : 142m - 아스콘포장(T=325mm) : 1,2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진행
신청인	A	B																					
신청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97㎡ - 부지 : 784㎡ - 도로 :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59㎡ - 부지 : 785㎡ - 도로 : 74㎡ 																					
건축면적	155㎡	155㎡																					
연면적	155㎡	155㎡																					
최고높이	7.94m (지상1층, 경사지붕)	7.94m (지상1층, 경사지붕)																					
구조	일반철골조	일반철골조																					
구조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형옹벽(H=1.0m) : 19m - 석축쌓기(H=0.5~1.2m) : 47.2m - 웬스설치(H=1.0m) : 142m - 아스콘포장(T=325mm) : 1,293㎡ 																						
19. 남한산성 주변 가설건축물(창고)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629번지(남한산성 행궁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00m, 남한산성 문화재보호 구역으로부터 약 1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13.42㎡ - 가설건축물(창고) 설치 1동 : 4.55m×2.95m×(H)3.5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3년 후 재검토 																					
20. 서울 한양도성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627-96(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2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1.7㎡ - 건축면적(연면적) : 24.88㎡(83.29㎡) - 규모(높이) : 지상4층(12.9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건축디자인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건 명	내 용	결 과
21. 서울 한양도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36-2(문화재보호 구역으로부터 90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69.25㎡ - 건축면적(연면적) : 67.36㎡(233.03㎡) - 규모(높이) : 지하1층, 지상3층(13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22.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81-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m 이격/3권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371㎡ - 건축면적(연면적) : 643㎡(2,621.1㎡) - 규모(최고높이) : 지상7층(23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3. 청주 정북동 토성 주변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청주시 정북동 324 외 1필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 2동(재배시설) : 길이 97m, 폭 8.2m, 높이 3.5m - 비닐하우스 1동(작업동) : 길이 20m, 폭 8m, 높이 4m - 저온저장고 : 길이 5.6m, 폭 3m, 높이 2.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후 재검토
24. 청주 정북동 토성 주변 비닐하우스, 농막, 저온저장고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청주시 정북동 401-3(문화재보호 구역으로부터 4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 : 길이 80m, 폭 8.2m, 높이 3.9m (200평) - 컨테이너 농막 : 길이 6m, 폭 3m, 높이 2.5m (6평) - 저온저장고 : 길이 4.8m, 폭 2m, 높이 2.3m(3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후 재검토
25. 청주 정북동 토성 주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청주시 정북동 197(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3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 5동 : 길이 80~100m, 폭 8m, 높이 4.2m - 컨테이너 : 길이 9m, 폭 3m, 높이 2.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후 재검토
26. 논산 돈암서원 주변 진입도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80-8 외 (문화재보호구역과 연접/1, 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입로 신설(L=108m), 아스콘포장(t=45cm, A=750㎡) - PC암거(3×2.5) L=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건 명	내 용	결 과
27. 함안 가야리 유적 주변 주택 신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23-1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0m 이격/허용 기준 없음)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규모 : 1층, 75.94㎡ - 구 조 : 경량철골구조 - 최고높이 : 5.5m(1층) - 용 적 율 : 19.62% - 건 폐 율 : 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8. 함안 가야리 유적 주변 주택 신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23-1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0m 이격/허용 기준 없음)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규모 : 1층, 75.94㎡ - 구 조 : 경량철골구조 - 최고높이 : 5.5m(1층) - 용 적 율 : 19.62% - 건 폐 율 : 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9. 고령 주산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402-14번지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8m 이격/6구역, 공통사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실) : 1,609.0㎡ - 건축면적 : 517.47㎡ - 연면적 : 5,750.19㎡ - 건폐율 : 32.16% - 용적율 : 346.85% - 최고높이 : 46.7m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 세대수 : 아파트 42세대, 오피스텔 14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선행
30. 성주 성산동 고분군 주변 군부대 경계울타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135-1번지 외 2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23m 이격/1, 3구역 등)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2,123m, W=1~3m, H=2.4~3.0m - 계비온용벽 H=2.0m, L=252m, 3개소 - 철제 계단 142m, 출입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선행

라.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의성군 소재 사적 「의성 금성면 고분군」 내에 수목 제거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55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의성 금성면 고분군	경북 의성군	○○○	<수목 제거> ○ 위치 :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337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에 따른 과수목 제거 정비 - 과수제거(4,225㎡) ○ 허가조건 - 신청구역은 매장문화재구역으로 관계 공무원이 입회 필요	허가	'21.05.07.
사적 영주 금성대군 신단	경북 영주시	○○○	<보행 도로개설 및 보수> ○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520(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4m 이격/1구역) * 순흥향교로부터 108m 이격 ○ 사업내용 - 콘크리트 포장(T=10cm) A=240.0㎡ - 야적매트설치(2000*t30mm) L=123.0m - 배수관설치(D300) L=8.0m ○ 허가조건 - 신청구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굴착행위시 참관조사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허가	'21.05.0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경북 경산시	○○○	<p><임당3근린공원 공원등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산시 임당동 578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m 이격/1, 3 구역) * 사업지와 157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멸기 1면, 공원등 설치 5분 - 터파기 및 되메우기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굴착행위 시 참관조사 등 매장문화재조사를 실시할 것 	허가	'21.05.14.
사적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	<p><농업용 창고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1번지(매장문화재유존지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688m 이격/1구역) * 순흥향교(지방문화재)로부터 250m 이격, 도산서원으로부터 780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50㎡ - 건축면적 : 99.0㎡(9*11m) - 최고높이 : 6.90m(경사지붕) - 외부재질 : 샌드위치판넬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유존지역으로 매장문화재조사를 실시 할 것. 	허가	'21.05.18.
사적 관문성	울산시 북구	○○○	<p><가설건축물(농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울산시 북구 천곡동 80-3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3,185㎡ - 규모 : 18㎡/1개소 	허가	'21.05.2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사적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p>	<p>경북 경주시</p>	<p>○○○</p>	<p><월성동 박물관 주변지역 오수관로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507번지 일원(문화재구역, 1, 2구역) ○ 밝은마을 - 토공 : 터파기(2,340m³), 되메우기(1,622m³), 잔토(718m³) - 관로공 · 오수관로(내충격PVC하수관, D200~250mm) L=968m · 배수설비(내충격PVC하수관, D100~150mm)-33가구 - 구조물공 : 1호 오수맨홀(D900)-26개소, 소형맨홀(D400) - 11개소 - 포장공 · 아스콘덧씌우기(T=5cm) : A=2,103m² · 콘크리트포장(T=20~10cm) : A=810m² · 소형고압포장(T=6cm) : A=453m² - 부대공 : 1식 ○ 반달마을 - 토공 : 터파기(4,536m³), 되메우기(3,124m³), 잔토(1,412m³) - 관로공 · 오수관로(내충격PVC하수관(VG1), D200mm) L=1,525m · 배수설비(내충격PVC하수관(VG2), D100~150mm)-48가구 - 구조물공 : 1호 오수맨홀(D900) - 29개소, 소형맨홀(D300) - 29개소 -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T=15cm) : A=1,112m² · 아스콘덧씌우기(T=5cm) : A=3,004m² · 콘크리트포장(T=10~20cm) : A=1,367m² · 소형고압포장(T=6cm) : A=138m² · 보도블록포장(T=6cm) : A=296m² · 인조화강블록포장(T=6~8cm) : A=48m² - 부대공: 1식 ○ 허가조건 : 시굴조사 후 실시</p>	<p>조건부 허가</p>	<p>'21.05.07.</p>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금척리 고분군	경북 경주시	○○○	<p><유지보수용 승강설비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25-9(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0m 이격 /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204.00m² - 1층 면적 : 5.64m² - 건물높이 : 24.7m -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 95.998m³ · 되메우기 : 56.369m³ · 절토고 : 0.96~2.61m ○ 허가조건 : 시굴조사 후 실시 	조건부 허가	'21.05.07.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배암골 진입로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198 번지 외 5 필지(454-2, 454-4, 458, 462, 463)(문화재구역과 연결 /2 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성토 65 m³, 절토 235 m³, 터파기 315 m³, 되메우기 134 m³, 순성토 349 m³, 무근콘크리트깨기 1.0 m³ - 배수공 : 슬라브(B=1.4m) L=14.0m, 이중벽관(Φ300 mm) L=8.0m, 집수정(600×600) 1EA, 집수정(900×900) 1EA, 연석 L=123.0m - 구조물공 : 자연석 쌓기(H=1.0m) L=54.0, (H=1.0~1.5m) L=26.0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 cm) A=847.5 m² ○ 허가조건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건부 허가	'21.05.07.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보호구역 내 2021년 경주국립공원 남산 훼손 탐방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 1-1번지 외 8필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와룡사~천룡사지 구간 진입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계단 설치 : 74EA - 목재데크 설치 : 23경간 - 야자매트설치 : L=18.2m - 석축찰쌓기 : L=93.0m - 철제다리 철거 : 2EA - 낙차공 설치 : 1개소 	허가	'21.05.2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내남 노곡소한천 재해복구사업 관련 지반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7-58번지 외 4필지(문화재구역으 로부터 269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조사 규모 : 심도 30.0m, 직경 76.0mm - 지반조사 공수 : 1공 	허가	'21.06.01.
사적 경주읍성	경북 경주시	○○○	<p><도시계획도로(소 3-62)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성동동 188-149 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2m 이격/3 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절토 218㎡, 터파기 114㎡, 퇴메우기 78㎡ - 배수공 : L형 측구 L=180m - 포장공 : 아스콘포장 725㎡ - 부대공 : 1식 ○ 허가조건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건부 허가	'21.05.07.
사적 경주읍성	경북 경주시	○○○	<p><2021년 생생문화재 활용프로그램(경 주읍성 생생나들이) 운영을 위한 가설 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북부동 1 외(문화 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바라텐트 5동(가로5m×높이3m), 테이블10개 - 성모형세트 2개(가로6m×높이2.5m) - 자바라텐트 지붕 높이 3m - 굴착 없음 · 텐트, 테이블 등 설치물은 동문 안 모래 바닥에 설치 ○ 사업기간 : '21.05.26~10.27.매월 마지 막 수 일요일(7월, 8월 제외)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화기사용 금지 및 소화 장비 (소화기 등) 비치 -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관람 보장 - 행사전후 및 행사기간 내 문화재 구 역 환경정리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최 신 지침을 준수하여 행사일정 및 방 역관리를 최우선 고려 	조건부 허가	'21.05.1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읍성	경북 경주시	○○○	<p><태양광 설치(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성건동 224(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3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 - 설치 후 총 높이 5.6m(옥상 설치) 	허가	'21.05.21.
사적 경주 나정	경북 경주시	○○○	<p><2021년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오래된 미래) 운영을 위한 가설 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690-3(주요행사지 육부전)(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바라텐트(가로5m×높이3m)×1개, 천구조물(가베놀이) (높이6m)×1개 - 경주 나정 우물 모형 (지름1m×높이1m)×1개, 기타구조물(가로1.2m×높이2m)×1개 - 굴착 없음 · 텐트, 테이블 등 설치물은 육부전 주차장 활용 ○ 사업기간 : '21.05.22.~10.24. 매월 4번째 토·일(7월 제외)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화기사용 금지 및 소화 장비(소화기 등) 비치 -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관람 보장 - 행사전후 및 행사기간 내 문화재 구역 환경정리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최신 지침을 준수하여 행사일정 및 방역관리를 최우선 고려 	조건부 허가	'21.05.1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효공왕릉	경북 경주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248-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357.00m² - 터파기 : 85.00m³ - 1층 면적 : 85.00m² - 건물높이 : 4.80m - 경량철골구조(피벽돌붙이기)/칼라강판 잇기 - 기존담장: h=1.20m/L=56.00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도서대로 시행하되, 건물의 벽채 및 지붕 색상은 명채도가 낮은 색으로 하고 담장 설치 시 전문가 자문 받아 실시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건부 허가	'21.05.21.
사적 경주 구정동 방형분	경북 경주시	○○○	<p><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정동 458-23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1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528.00m² · 건축면적 : 284.04m² · 연 면 적 : 497.49m² · 건물높이 : 9.90m -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토 12.0m³, 성토 957.0m³ · 터파기 130.0m³, 되메우기 84.0m³ · L형 옹벽(H=2.0m) L=45.00m · 수로관(이중벽관)L=14.0m · 성토고 0.80m 	허가	'21.05.21.
사적 경주 구정동 고분군	경북 경주시	○○○	<p><태양광 설치(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정동 110-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5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 - 설치 후 총 높이 5.6m(옥상 설치) 	허가	'21.05.2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구정동 고분군	경북 경주시	○○○	<p><태양광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정동 233(문화재구역으로부터 27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 - 총 높이 3.9m(마당에 설치) 	허가	'21.06.01.
사적 경주 서악동 고분군	경북 경주시	○○○	<p><태양광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서악동 905-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9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마당에 지상형으로 태양광 설비 3kW 설치 · 모듈스펙 : 가로1,000mm, 세로1,994mm, 두께35mm · 설비높이 : 2.80m · 설치면적 : 14m² · 베이스플레이트 : 250×250×12T, RIB 6T 	허가	'21.06.01.
사적 경주 서악동 고분군	경북 경주시	○○○	<p><태양광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서악동 802-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마당에 지상형으로 태양광 설비 3kW 설치 · 모듈스펙 : 가로1,000mm, 세로1,994mm, 두께35mm · 설비높이 : 2.80m · 설치면적 : 14m² · 베이스플레이트 : 250*250*12T, RIB 6T 	허가	'21.06.01.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우량농지 성토(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 148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0m 이격/3구역) ○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면적 : 2,386m² - 성토량 : 3,195.5m³ - pe이중관 16m, 법면보호(코아 및 시드스프레이) 43m², 기존 돌 경사면 140m 	허가	'21.05.1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 258-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1, 3구역) ○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517㎡(진입로 58㎡ 미포함) - 건축면적/연면적 : 79.08㎡/99.81㎡ - 층수/최고높이 : 지상2층/8.94m(경사지붕) - 옹벽설치(1.0~4.5m) : 62.6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허가	'21.05.17.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산림사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산55번지(문화재구역과 연결)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림 보육(경영계획도 1-0-1) : 3.6ha(총 수량의 20% 실시) - 가지치기(경영계획도 1-0-2) : 0.54ha(총수량의 20% 실시) - 숲아베기(경영계획도 1-0-3) : 1.4ha(총 수량의 20% 실시) 	허가	'21.05.20.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4-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910㎡ - 건축면적/연면적 : 155.90㎡/155.90㎡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1층(1동)/7.05m(경사지붕) - 구조 : 일반철골구조 	허가	'21.05.25.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4-1(문화재구역으로부터 6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932㎡ - 건축면적/연면적 : 155.90㎡/155.90㎡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1층(1동)/7.05m(경사지붕) - 구조 : 일반철골구조 	허가	'21.05.2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공장(3동)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4-1(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5,126㎡ - 건축면적/연면적 : 1,774.56㎡/2,882.55㎡ - 층수/최고높이 : 지상2층/9.0m, 경사지붕(1호동, 2호동), 지상2층/7.2m, 경사지붕(3호동) - 구조 : 철골조 	허가	'21.06.02.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단독주택 신축(7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55-45(문화재구역으로부터 3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88.0㎡ - 건축면적/연면적 : 77.22㎡/77.22㎡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1층(1동)/4.7m(경사지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L형 옹벽(H=0.5~3.5m) 38.5m, 석축돌쌓기(H=0.5m) 42.0m ○ 허가조건 : 시굴조사 선행 후 공사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21.06.02.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단독주택 신축(8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55-45(문화재구역으로부터 4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49.0㎡ - 건축면적/연면적 : 77.22㎡/77.22㎡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1층(1동)/4.7m(경사지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L형 옹벽(H=3.2m) 15.4m, 석축돌쌓기(H=0.5~3.6m) 36.0m ○ 허가조건 : 시굴조사 선행 후 공사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21.06.0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강화 선원사지	인천시 강화군	○○○	<p><농지성토 및 단독주택 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166-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1,408.0㎡(농지 844.0㎡, 단독주택부지 564.0㎡) - 성토(H0.0~3.6m) : 1,790.0㎡ - 조경석쌓기(H2.8m) : 25.5m - 석축쌓기(H0.0~2.8m) : 148.4m 등 	허가	'21.05.11.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95-2(문화재구역으로부터 90m 이격 /2, 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1,714㎡ - 건축면적 /연면적 : 246.28㎡/328.72㎡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1층 2동(근생), 지상2층 2동(단독주택)/4.81m(근생), 7.488m(단독주택) - 구조 : 목구조(단독주택), 경량철골조(근생) - 석축(H0~3.0m) 쌓기 : 160m 	허가	'21.05.21.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신축(10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33-2(문화재구역으로부터 140m 이격/3, 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956㎡ - 건축면적/연면적 : 964.40㎡/1551.20㎡ (1동당 96.44㎡/155.12㎡)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2층(10동)/7.5m(경사지붕) - 구조 : 일반목구조 - 보강토옹벽(0~4.0m) : 547m - 차폐식재 : 은행나무 총 99본 	허가	'21.05.25.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70-16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0m 이격/4, 5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457㎡(진입로 811㎡ 포함) - 보강토옹벽(0.5~4.8m) 설치 : 494.8m 	허가	'21.05.18.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연천 전곡리 유적	경기도 연천군	○○○	<p><컨테이너 전시관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전시관 설치: 총 12동(1동당 3m×6m×2.6m(H)) - 설치면적 : 216㎡ - 최고높이 : 5.2m 	허가	'21.05.18.
사적 고양 행주산성	경기도 고양시	○○○	<p><농막용 컨테이너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의동 115(문화재구역으로부터 86m 이격 /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규격/동수 : 3m×6m×3.2m(H)/1동 	허가	'21.05.21.
사적 부여 궁남지	충남 부여군	○○○	<p><보호구역 내 조경대상 동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67-1(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판 설치 1식(가로35×세로35×높이 100cm) - 지상노출 20cm, 매립 80cm * 고도보존육성과-500('21.2.23.)호와 관련 ○ 사유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불허	'21.05.25.
사적 부여 궁남지	충남 부여군	○○○	<p><보호구역 내 보행자 진입로 및 교통 안전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52-1 외 1필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진입로 설치(길이 92M, 폭 1.5M ~ 2.2M)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길이 15M, 폭 1.8M) ○ 허가조건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조건부 허가	'21.05.28.
사적 부여 정림사지	충남 부여군	○○○	<p><문화해설사의 집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384(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1개소 설치 (가로 2.5m × 세로 2.5m × 높이 3m) ○ 사유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불허	'21.05.28.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	충남 부여군	○○○	<p><문화해설사의 집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32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1개소 설치 (가로 2.5m × 세로 2.5m × 높이 3m) ○ 사유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불허	'21.05.28.
사적 부여 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	<p><학술발굴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쌍북리 678-2임 등 3필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부소산성(16차) 학술발굴조사 :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에 따른 조사 - 조사면적 : 7,181㎡ - 사자루 구간 발굴조사 : 4,708㎡ - 궁녀사 평탄대지 발굴조사 : 2,473㎡ 	허가	'21.05.28.
사적 부여 나성	충남 부여군	○○○	<p><보호구역 내 나루터로 경관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439(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성된 노후 도로(인도) 정비 (B=12.5m, L=100m) ○ 허가조건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조건부 허가	'21.05.28.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	충남 공주시	○○○	<p><보호구역 내 산림복구용 수목식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92-7 (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1,580㎡ - 수목식재(소나무) H=1.0m 150주 - 줄떼식재(300×300) 85㎡ - 배수시설 : 맨홀(1000×1000mm) 1개, 토사층구(300×300) 180m * 공주시 산림과의 산림복구 명령에 의한 수목식재 신청 	허가	'21.05.28.
사적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용산구	○○○	<p><보호구역 내외 남산팔각안내센터 리모델링(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번지 3호(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153.66㎡ → 164.65㎡(옥외계단 면적 포함) - 연면적: 255.24㎡ → 254.22㎡(연면적 재산출) - 허가기간: 2020. 11. 03. ~ 2021. 12. 31. → 2022. 12. 31.까지 	허가	'21.05.2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p><공동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81-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m 이격 /3권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371m² - 건축면적(연면적) : 643m²(2,621.1m²) - 규모(높이) : 지상7층(20m)(옥탑층 포함 23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허가기간 : 2021.06.01 ~ 2023.12.31 ○ 허가조건 :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조건부 허가	'21.06.01.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p><전신주 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15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주 이설(높이 10m, 직경 0.4m / 굴착 너비 1.2m×1.2m, 깊이 1.9m) ○ 허가기간 : 2021. 6. 3. ~ 2021. 12. 31. 까지 ○ 허가조건 : 굴착 시 관계공무원 참관 조사 	조건부 허가	'21.06.03.
사적 경희궁지	서울시 종로구	○○○	<p><수목 식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1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소나무 식재(30주) ○ 허가기간 : 2021. 5. 11. ~ 2022. 5. 10. 까지 	허가	'21.05.11.
사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	서울시 광진구	○○○	<p><도서관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117 (문화재구역으로부터 9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연면적) : 356.34m²(505.85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외장마감 : 벽돌마감, 목재 사이딩 마감 - 층수(높이) : 지상2층(7.92m) ○ 허가기간 : 2021.5.11. ~ 2023.5.10.까지 ○ 허가조건 : 문화재 시굴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21.05.1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청주 신봉동 고분군	충북 청주시	○○○	<p><공원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산6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터 신설, 잔디광장 및 주차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사항 : 지장물 철거 및 분묘 이장 추가 ○ 허가기간 : 2021. 5. 21. ~ 2022. 12. 31.까지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묘 개장 및 이장은 관계전문가 자문받아 시행 - 지장물 철거 및 분묘 이장 시 관계공무원 입회하 실시 	조건부 허가	'21.05.21.
사적 청주 상당산성	충북 청주시	○○○	<p><농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212-1(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0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농막(가설건축물) 설치 (3m×6m, 높이 2.6m) ○ 허가기간 : 2021. 5. 24. ~ 2023. 5. 23. 까지(2년) ○ 허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막(가설건축물) 설치는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 임시로 허가하며, 허가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2)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주거 목적은 불가합니다. 3) 농막 외관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토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무 패널 등 설치를 권장합니다. 4) 농막 설치를 위한 농지 절성토, 다락설치, 데크, 난간, 천막, 파고라 등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며,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조건부 허가	'21.05.2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논산 노성산성	충남 논산시	○○○	<p><간선임도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논산시 산성리 산12 외 12필지(문화재구역에서 30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포장(B=3.5m, 6,704.5㎡), 사 리포장(B=3.5m, 5,341㎡), 배수관부설 (@800, 173m / @1000, 24m / @1200, 13m), 친환경생태복원공법 (5,132㎡) 등 - 허가기간 : 2021. 5. 24 ~ 2022. 12. 31. 까지 	허가	'21.05.24.
사적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충남 당진시	○○○	<p><야간 경관조명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150-11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2, 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투광 6set(6m, LED54W×3개, 3000K), 광장 및 건축물 투광(6m, LED54W×2개, 3000K / LED150W, 3000K×2개), 수목 업라이트 33개 (LED36W, 3000K), 열주등 8개, 지중 등 4개 ○ 허가기간 : 2021. 5. 26. ~ 2021. 12. 31.까지 ○ 허가조건 : 사적 문화재구역 야간 경 관에 영향이 없도록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시행 	조건부 허가	'21.05.26.
사적 강릉 초당동 유적	강원도 강릉시	○○○	<p><야구장비 창고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7-2(문 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 56.89㎡ - 건축면적 : 37.26㎡ - 규모(최고높이) : 2층(5.2m) - 구조 : 컨테이너조 	허가	'21.05.12.
사적 창녕 비봉리 패총	경남 창녕군	○○○	<p><가족자연장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산 8번지 5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여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규모 : 99㎡ - 조경공사 : 잔디식재 99㎡ - 토사측구 : L=11m 등 	허가	'21.05.2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김해 구지봉	경남 김해시	○○○	<p><보호구역 내 점등탑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63번지 6호(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등기간 : 20.4.29~5.19. - 점등식 : 5.1. 19:30 - 장소 : 시민의 종 광장 - 규모 : 1.2m × 1.2m × 10m(높이) - 기타 : 4줄 와이어 고정, 조립식 설치, 전기인입 및 전기조명, 전기콘센터 설치, 안전관리 수시점검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대책 및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 할 것 	조건부 허가	'21.04.30.
사적 대구 블로동 고분군	대구시 동구	○○○	<p><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대구시 동구 도동 9-1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7.5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붕구조 : 평지붕 - 대지면적 : 216㎡ - 연면적 : 438.55㎡(기존허가대비+8.96㎡) - 건물높이 : 18.4m(4층,옥상계단실포함) - 용도 :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휴게음식점), 2~4층(사무소)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굴조사후시행 -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원안시행 	조건부 허가	'21.05.31.
사적 함안 가야리 유적	경남 함안군	○○○	<p><가설건축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89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규모 : 1동, 18㎡(6m×3m) - 구 조 : 컨테이너 - 최고높이 : 2.3m(1층) - 용도 : 발굴조사 사업추진 관련 비품 보관고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기간이후준치시재허가필요 	조건부 허가	'21.05.31.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